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A STUDY ON THE HEALTHY CHURCH GROWTH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SMALL GROUP IN TRADITIONAL CHURCH**

전통적 교회에서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 연구

A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Min Yong Park (박 민 용)

Lynchburg, Virginia

May 2020

© Copyright 2020 by Min Yong Park (박 민 용)

All rights reserved.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READER

Dr. Yunseop Kim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ABSTRACT

A STUDY ON THE HEALTHY CHURCH GROWTH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SMALL GROUP IN TRADITIONAL CHURCH

Min Yong Park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0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The church is the body of Jesus Christ, which Christ has built and became the head of it. Therefore,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or a social organization, but a family community of the laity who saved through Christ and united under him. Recently, however, the Korean church has lost its original nature planned by God. They achieved significant external growth that made churches around the world focus. But lost the true nature and obsessed with the outward buildings and numbers. As a result, the holy influence of the church on the world diminished.

This paper defines the term ‘traditional church’ as a church complacent about the present outward growth, losing its biblical essence. Also, the paper analyze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a stagnant traditional church and study about the 'vitalization of small group ministries' as a biblical alternative to overcome it. To this end, this paper will present the biblical, theological, and church-historical basis for the small groups, and analyze the merits and demerits of representative types of small group ministries that have been introduced to contemporary churches, thus presenting a specific guideline to achieve ‘small group vitalization’.

Through this paper, we hope that traditional Korean churches, including the one that the researcher serves for, restore the communion of the church and grow into a healthy figure.

Abstract length: 220 words

ABSTRACT

초록

A STUDY ON THE HEALTHY CHURCH GROWTH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SMALL GROUP IN TRADITIONAL CHURCH

전통적 교회에서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 연구

Min Yong Park (박민용)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0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친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나 사회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믿음의 지체들이 연합한 가족 공동체다. 그런데 최근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외적인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참된 교회의 본질을 잃고, 외형적인 건물과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 그 결과 세상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의 외형적 성장에 안주하고,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가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의 모습을 '전통적인 교회'라고 규정하고, 정체된 전통적 교회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이를 극복할 성경적 대안으로서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교회의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교회사적 근거를 연구하며, 현대 교회에 가장 많이 소개된 소그룹 사역 유형들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소그룹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을 통해서 본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의 전통 교회들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초록 길이: 153 words

ACKNOWLEDGEMENTS

감사의 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D.Min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지도해 주신 리버티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여러분 교수님들, 그리고 교회와 목회 사역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비전을 나누며 함께 했던 학우 목사님들, 무엇보다 논문 연구 과정에서 자상하고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유정 교수님과 김운섭 교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목회의 길에서 동반자로 늘 함께하며 기도와 격려, 그리고 위로를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설문 통계에 도움을 준 정예인 자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에서 함께 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부족한 중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포항성동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CONTENTS

목차

ABSTRACT	iv
초록	
ACKNOWLEDGEMENTS	vi
감사의 글	
TABLES	xiii
표	
FIGURES	xv
그림	
ABBREVIATIONS	xvi
약어	
SUMMARY	xvii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1
제 1 장: 서론	
1. Statement of the Problem and Purpose of the Study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Scope and Limitation of study and Definition of Terms	7
범위와 한계 및 용어 정의	
3. Theoretical Basis	11
이론적 근거	
1) Biblical Basis	11
성경적 근거	
2) Theological Basis	12
신학적 근거	
4. Statement of Methodology	13
연구 방법론	
5. Review of Literature	14
문헌 검토	
6. Sub- Conclusion	18
소결론	
CHAPTER 2: Theoretical Basis of Small Groups	19
제 2 장: 소그룹에 대한 이해	

1. Understanding of Small Groups	19
소그룹에 대한 이해	
2. Small Groups Appeared in the Old Testament	24
구약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	
1) The Family of Adam and Eve	24
아담과 하와의 가정	
2) The Small Groups of Israelites.....	25
이스라엘의 소그룹	
3. Small Groups Appeared in the New Testament.....	26
신약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	
1) Small Groups of 12 Disciples.....	26
열 두 제자 소그룹	
2) Small Groups of the Early Christianity	27
초대 교회의 소그룹	
4. Theological Basis for Small Group.....	31
소그룹에 대한 신학적 근거	
1) Trinity Theology	31
삼위일체 신학	
2) Community Theology.....	33
공동체 신학	
3) Koinonia Theology	34
코이노니아 신학	
4) Theology of Lay Ministry	35
평신도 신학	
5. Small Groups Appeared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37
교회 역사에 나타난 소그룹	
1) Small Groups in the Middle Ages.....	39
중세시대의 소그룹	
2) Small Groups in the Reformation Period.....	40
종교 개혁 시대의 소그룹	
3) Small Groups in the Modern Church History.....	41
근대 교회의 소그룹	
4) Small Groups in Contemporary Church History.....	45
현대 교회의 소그룹	
6. Sub- Conclusion.....	46
소결론	

CHAPTER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talization of Small Groups in Traditional Churches and Healthy Church Growth.....47

제 3 장: 전통적 교회에서의 소그룹 활성화와 건강한 교회 성장의 연관성

1. The Characteristics of a Traditional Church	47
전통적 교회의 특징	
1) The Meaning of the ‘Traditional Church’	47
전통적 교회의 의미	
2) Positive Values and Social Contributions of the Traditional Church	49
전통적 교회의 긍정적인 가치와 공헌	
3)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Church	52
전통적 교회의 한계	
4) Section, The Small Group System of a Traditional Church	56
전통적 교회의 소그룹인 구역 제도	
2. Vitalized Small Groups and Cell Church	60
소그룹 활성화와 셀 교회	
1) The Necessity of Vitalizing the Small Groups, as a Scheme of Renew and Healthy Growth of the Traditional Church.....	60
전통 교회의 갱신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소그룹 활성화의 필요성	
2) Vitalization of Small Groups and a Healthy Growth of the Church	66
소그룹 활성화와 건강한 교회 성장	
3) The Five Elements of the Cell Church	71
셀 교회의 다섯 가지 요소	
4)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ll Church	73
셀 교회의 특징	
3. The Cases of Church Growth Through the Vitalization of Small Groups	77
소그룹 사역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의 사례	
1) Family Church – Hwapyung Church, Ilsan	77
가정 교회 – 일산 화평교회	
2) ‘Cell’ System of Dongsan Church, Ansan.....	81
안산 동산교회의 ‘셀’	
3) ‘Evangelic Small Groups’ of Disciples Church, Daejeon	85
대전 제자들교회의 ‘진도 소그룹’	
4) ‘Cell Church’ of Pungsunghan Church, Busan	89
부산 풍성한교회의 ‘셀 교회’	
4. Sub- Conclusion.....	94
소결론	

CHAPTER 4: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is97

제 4 장: 설문 조사와 분석

1. Questionnaire Survey97

설문 조사

1) Purpose of Questionnaire Survey97

설문의 목적

2) Participants in Questionnaire Survey97

설문 참가자

3) Methods of the Survey.....97

설문 조사 방법

4)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Questionnaire98

설문 내용과 구성

2. Result of Questionnaire Survey99

설문 결과와 분석

1) Questions About Demographic Sociological Characteristic and Church Life99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교회 생활에 관한 질문

2) Questions About the Reason and Benefit of Participating in a Small Group103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유와 유익에 관한 질문

3) Questions About the Training of Church Members109

평신도 훈련에 관한 질문

4) Questions About Vitalization Small Groups111

소그룹 활성화에 관한 질문

5) Results of Cross-Analysis113

교차 분석의 결과

3. Sub- Conclusion.....117

소결론

CHAPTER 5: The Scheme for Vitalization of Small Groups and Transition to Cell Church119

제 5 장: 소그룹 활성화와 셀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

1. The Principles of the Cell Management 119

셀의 운영 지침

1) The Leadership in the Cell Church..... 120

셀 교회의 리더십

2) Hosting the Cell Church Meetings (4W)124

셀 모임 진행하기(4W)

2. The Strategy for Vitalizing the Small Groups and Transitioning to a Cell Church...125

소그룹 활성화와 셀 교회 전환을 위한 전략

1) The Paradigm Shift	125
패러다임의 전환	
2) The Leadership of the Senior Pastor.....	126
담임목사의 리더십	
3) The Vision Presentation	127
비전 제시	
3. Small Group Activation and Training System.....	132
소그룹 활성화와 훈련 체계	
1) Importance of Nurturing and Training System	132
양육과 훈련 체계의 중요성	
2) Processes and Contents of Nurturing Systems	134
양육 훈련의 체계와 내용	
4. Plan to Vitalize the Small Groups in Pohang Sungdong Church.....	137
포항성동교회의 소그룹 활성화 방안	
1) Introduction of the Pohang Sungdong Church	137
포항성동교회 소개	
2) Core Values of Pohang Sungdong Church	137
포항성동교회 핵심 가치	
3) Nurturing Systems of Pohang Sungdong Church	139
포항성동교회 양육 훈련 체계	
4) Small Group Ministry of Pohang Sungdong Church.....	143
포항성동교회의 소그룹 사역	
5) Introduction of Small Group Meeting(4W) of Pohang Seongdong Church.	146
포항성동교회의 소그룹 모임(4W)소개	
6) Actuality of 4W	148
4 W 의 실제	
CHAPTER 6: Conclusion.....	151
제 6 장: 결론	
1. A Summary of the Study	151
연구 요약	
2. Proposal for Vitalize the Small Groups	154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제안	
3. Limitations of Research and Need for Additional Research.....	158
연구 한계성과 추가 연구의 필요성	

Appendix A160
부록 A

Appendix B.....162
부록 B

Appendix C.....164
부록 C

Bibliography.....168
참고자료

IRB Approval175
IRB 승인

TABLES

표

표 1. 설문지의 문항 구성.....	98
표 2. 인구 사회학적 영역.....	99
표 3. 본 교회의 장점.....	100
표 4.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	101
표 5. 포항성동교회의 지상명령 실천 정도.....	101
표 6. 교회가 더 추가해야 할 사역.....	102
표 7. 소그룹 참여 여부.....	103
표 8. 소그룹에 불참하는 이유.....	103
표 9. 소그룹에 참여할 의사.....	104
표 10. 소그룹 활동 참여도.....	105
표 11. 참여해 본 소그룹 유형.....	105
표 12. 소그룹 참여 이유(전체).....	106
표 13. 소그룹 참여 이유(연령별).....	106
표 14. 소그룹 활동의 유익.....	107
표 15.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107
표 16. 소그룹 리더에게 필요한 부분.....	108
표 17. 앞으로 교회에 조직되기 원하는 소그룹.....	108
표 18. 평신도 제자 훈련 참여 경험 여부.....	109
표 19. 평신도 훈련의 유익.....	109
표 20. 평신도 훈련의 필요성에 동의 여부.....	110
표 21. 리더 양성을 위해 필요한 평신도 훈련.....	110
표 22. 소그룹 리더로 사역할 의사가 없는 이유.....	111

표 23. 소그룹의 필요성.....	111
표 24.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112
표 25. 연령대에 따른 본 교회 신앙생활 만족도.....	113
표 26. 출석 횟수에 따른 본 교회 신앙생활 만족도.....	114
표 27. 연령대에 따른 리더 양성을 위한 평신도 훈련 참여 용의.....	115
표 28. 연령대에 따른 소그룹 리더 사역 참여 의향.....	116
표 29. 포항성동교회 양육 훈련 체계.....	139
표 30. 포항성동교회 소그룹 셀모임 4W 순서지.....	148
표 31. 포항성동교회 셀 리더 교육(소그룹 인도법).....	149

FIGURES
그림

그림 1. 안산 동산교회 큰숲 양육 과정..... 83

그림 2. 제자들교회 전도 소그룹 5 단계 86

그림 3. 풍성한교회 세계비전 두 날개 92

ABBREVIATIONS

약어

FCBC 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

QT Quiet Time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In the 20th century, Korean churches achieved a remarkable growth that had drawn attention from the world churches. But in the 21st century, Korean churches stopped growing, and the number of Christians began to decline.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the number of Christians stood at 8.76 million in 1995, but it has decreased by about 1 million up to 2018.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phenomenon,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and income growth and the decline of the next-generation population due to the low birthrate. But most of all,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churches and Christians have lost the holiness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the world, and their influence on the world as well. It was also because traditional churches failed to grow people into mature Christians, either concentrating on large buildings and quantitative growth.

For the traditional Korean church to recover again, it must return to its biblical essence. We need to restore our community which is full of dynamic love and companionship, just like the early churches appeared in the Bible. Also, it should promote the Church members to grow and become mature believers. Lastly, the church must be restored as a community that conveys Christ to the world.

This study aims its focus on the small group of churches in early Christianity, to refresh traditional churches of these days. And based on it, I would like to suggest a way to achieve healthy church growth through the vitalization of small group ministries. The biblical small group contains elements of companionship, evangelism, and education. Thus, achieving "Small group vitalization" can be a solution to overcome the individualistic shortcomings that traditional churches have, and restore the dynamics of the community. And when laity works as a small group worker, the church can grow more dynamically than when only pastors serve. Through the study of the vitalization of small groups, this paper looks forward to contributing to the achievement of sound spiritual maturity of traditional churches.

CHAPTER 2

THEORETICAL BASIS OF SMALL GROUPS

This paper seeks to find ways to solve the problems of traditional churches by vitalizing biblical small groups. First, this paper reveal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mall groups. The essential elements presented in the small group community of churches are worship, companionship, service and the eulogy of the Holy Spirit. It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church, and it cultivates church members to become mature believers.

Next, this chapter presents a theoretical basis for small groups. The small group is not a fashion or program that suddenly appeared in modern times, but an essential ministry of the Bible-based church. Fundamentally, God's existence as a trinity is a type of small group. There is also a variety of forms of small groups in the Old Testament. Above all, Jesus Christ trained his disciples through a small group. And within the apostolic age, churches in the form of small groups existed in various regions.

The form of small groups also has appeared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for 2000 years. After Christianity had become the Roman Empire's national religion, the church was institutionalized, and the dynamic small group was ostensibly disappeared. However, small groups possessing vitality existed in every era. In the Middle Ages when churches were transformed into building-centered religions, small groups survived through whom sought to preserve the fundamentals of the Bible. After the Religious Reformation, small groups appeared actively and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spiritual maturity and progressing missionary work of Christians. Thus, small-group community is a valuable tool that God has given the church and must be recovered in today's modern church. Small groups are very useful tools for renewing traditional churches.

CHAPTER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TALIZATION OF SMALL GROUPS AND HEALTHY CHURCH GROWTH IN TRADITIONAL CHURCHES

A traditional church means that first, it is timely old, and secondly, it is a church that has formed an institution, customs, and principles over time. The traditional church in Korean has made many positive contributions to this society. It consoled the people who had to live in a time of hardship and encouraged them with the words of God to overcome adversity. It has also achieved unprecedented growth and revival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But as time passes, customs and institutions hardened and the church began to decline.

Traditional churches turned to have building centered beliefs, and especially have lost social intercourses of small group communities. Therefore, the activation of small groups is necessary to renew the traditional church. Small group activation is necessary for the following reasons:

- 1) To effectively nurture new believers.
- 2) To progress discipleship training to establish Laity as leaders.
- 3) To make personal relationships between church members.
- 4) To do evangelism based on relationships, effective in the contemporary society.

Modern churches must restore intercourse among saints, such as the churches of early Christianity. And through small groups, we must help God's people be faithfully mature in quality. Then the church could grow numerically. The activation of small groups contributes to healthy church growth. Later in Chapter 3, small group models that are successfully running in modern Korean churches are introduced.

CHAPTER 4

SURVEY AND ANALYSIS OF CHURCH GROWTH THROUGH THE VITALIZATION OF SMALL GROUPS

This chapter introduces the procedure and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on the church members belonged to the Korean traditional church, the Pohang-SUNG DONG Church. The questions of the survey totaled 30 questions and consisted of three main parts. The first part is a general question, which asks gender, age, time spent as a Christian, and satisfaction of the church life. There were 56 respondents, with slightly more women than men, and evenly distributed age groups. More than 70 percent attended church for more than 10 years, showing the stereotype of these day traditional churches with many old members.

The second part is about small groups. More than 70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were participating in small groups. When the question comes to the benefits of small group activities, "warm companionship" and "praying for each other" were major answers. Most of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in a small group said that they are too busy because of business but would like to participate if they had a chance. These results show that many church members need a small group, and we could see that the reason is for "relationship."

The third part is about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church members.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well-trained laity leaders are needed for the small groups to be vitalized. When asked whether they want to participate in the training, 73.6 percent answered positively, mainly to achieve spiritual growth. This shows that Christians are not indifferent to spiritual growth, but willing to grow spiritually through training. It informs the church that preparation and concentration of training programs are needed to revitalize the small group, when trained people become small group leaders, small groups are vitalized, and that's the key to the healthy growth of the Church the survey results are telling.

CHAPTER 5

THE SCHEME FOR VITALIZATION OF SMALL GROUPS AND TRANSITION TO CELL CHURCH

This chapter deals with the scheme for vitalizing small groups and the transition to the Cell Church. First, it presents 'Cell Church', a model of the small group with vitality. In a traditional church, a small group is a single program among the numerous ministries. But in a cell church, a small group becomes an essential part of the church ministry. Also, only the pastor ministers in the traditional church, whereas laity actively serve as leaders in the cell church. These small groups in the Cell Church work in process with 4w format, with dynamic companionship and activities taking place.

Second, strategy is needed to transform a traditional church into a small group-activated one. To vitalize a small group (cell) and achieve the vision of a Cell Church, a pastor should present the vision and achieve the understanding and empathy of the church members. When vision is well presented to the entire church, small group vitalization can be realized.

Third, for traditional churches to vitalize small groups, they must prepare the system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laity. The small group is led by the laity, not by the pastor. Thus, there must be an education process that can nurture good laity leaders. And when a well-trained leader serves others well in a small group, the community can be vitalized.

Fourth, the scheme for vitalizing small groups in Pohang-SUNG DONG Church is analyzed and presented. SUNG DONG Church has a goal of "a church that saves, fixes and builds people with the gospel." To achieve that goal, the church needs dynamic small groups full of love. Through small groups, the church can spread the gospel, share the companionship of love, and nurturing the people to faithfully grow.

SUNG DONG Church currently has 31 small groups (cells), which is expected to be vitalized as a dynamic community, and the number of cells will increase further as well. To achieve those

expectations, SUNGDONG Church is trying to train members as good leaders. A good leader makes a good small group, and through good small groups, the church can achieve healthy growth.

First, it presents 'Cell Church', a model of the small group with vitality. In a traditional church, a small group is a single program among the numerous ministries. But in a cell church, a small group becomes an essential part of the church ministry. Also, only the pastor ministers in the traditional church, whereas laity actively serve as leaders in the cell church. These small groups in the Cell Church work in process with 4w format, with dynamic companionship and activities taking place.

CHAPTER 6

CONCLUSION

This Thesis began with the motivation to diagnose the crisis that the traditional church faces and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raditional churches. Traditional Korean churches had experienced the stunning revival and growth before, but nowadays they are facing the crisis of stagnation and declination. Although there are many other external causes of this cris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existing inside the church itself, since they have lost their biblical essence while pursuing an external growth of buildings and numbers.

The Biblical way to breathe life into traditional churches and achieve healthy growth again lies in the recovery of small groups. Small groups are not a program dealing with the external growth, but the essence of the biblical church that God has shown. The reason and necessity for vitalizing small groups can be found with a theological, biblical and historical basis. The early form of church that appeared in the New Testament was a small group as a community with love intercourse and sharing. The true image of the church God wants is in the community of the Christians, and the companionship of love. So healthy church growth must be discussed with a nurturing of people through small groups and restoration of the church's communion.

The researcher selected four churches in Korea, achieving healthy growth by actively serving in small groups, and analyzed their current system of small group ministries. Also looking at the leadership training course that nurtures the laity leaders, the system introduced would apply to a wide range of traditional churches. To study the activation of small groups in traditional churches, this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of church members at Pohang-SUNGDONG Church about small groups.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researcher was able to diagnose the reality of traditional churches and identify the church members' ideas about small groups. The survey results also showed what Christians in traditional churches expect from small groups and what is needed to activate small group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presented a plan to activate the small group.

Finally, this paper does not have all the answers to how to activate small groups in traditional churches. It also clearly has limitations that cannot be universally applied to all churches. But I hope it will be of some help to pastors who try to activate small groups in traditional churches and restore the dynamics of the community

제 1 장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문제 제기

1885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와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가 한국 땅을 밟음으로 한국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35년의 비교적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는 세계가 놀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는 성장이 멈추었고, 급격한 교인 감소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한국 교회의 각 교단의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전체 교인 수는 2,802,576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2,554,227명으로 10년 사이에 8.5%인 248,349명이 감소했다. 이것은 1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248개가 없어진 것과 같은 숫자이다. 동 교단의 중 고등부 교인 수 감소는 더욱더 가파르는데 2009년도에 195,275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19,691명으로 무려 3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의 교세 현황을 보아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교단의 2011년도 교인 수는 2,988,553명이었는데, 이후 2015년도에 2,700,977명, 2018년도 2,656,766명이었다. 2011년에서 2018년 사이에 무려 11.1%가 감소한 것이다.² 그리고 감리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이 발표한 교세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1,491,754명이었고, 2019년도에는 1,304,856명이었다. 즉 감리교의 교인 수는 이 기간에 12.5% 감소한 것이다.³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한국 교회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큰 외적인 성장을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온라인자료]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1_05&wr_id=1, 2019년 10월 12일 접속.

2)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온라인자료] http://gapck.org/sub_01/sub02_01.asp?menu=menu2, 2019년 10월 12일 접속.

3)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온라인자료]

https://kmcmission.or.kr/board/bbs/index.php?group_code=bbs&category_id=97&p_cate_id=59&m_id=116&pageID=2, 2019년 10월 12일 접속.

이루었지만, 이제는 급격하게 교인 감소 현상을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경제 발전과 소득의 증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가를 더 많이 갖기 위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이유일 수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새로 교회에 유입되는 젊은 신자가 줄어드는 한국사회의 인구 구조도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더욱더 근원적인 이유는 한국 교회 내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이러한 원인을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공신력을 상실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기윤실이 2008년 11월에 전국의 19세 이상인 남, 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2008년에 18.4%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008년에 48.3%였다.⁴ 그러데 동일한 조사를 2010년 11월에 다시 실시했을 때는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17.6%로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48.4%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접해서’가 18.6%, ‘교인들의 언행일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가 15.6%, ‘교인들의 비윤리적 행동 때문에’가 14.9%였다.⁵

기윤실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다. 즉 한국 교회가 교인 숫자를 늘리는 양적 성장과 외형적인 큰 건물을 짓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일에는 소홀했다. 예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고 하셨지만, 신앙과 삶이 유리된 이중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고, 사람들은 더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으며, 전도는 어려워지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유입되지 않게 된 것이다.

한국 교회의 쇠퇴와 침체가 비기독교인들을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내부의 ‘공동체성’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원규는 “한국 교회가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교회의 주된 패러다임은 ‘양적 성장주의’였으며, 이웃을

4) 기윤실, 「2008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08), 11.

5) 기윤실, 「2010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0), 11-5.

향한 수평적 사랑을 빠뜨린 채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신앙만을 강조해왔다”고 말한다.⁶ 그리고 이러한 성장주의 목회를 통해서 대형교회가 출현했지만, 그 거대한 규모 속에서 관계 중심적인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교회의 중요한 기능인 ‘친교’를 상실했다.⁷ 그 결과 교회 밖의 불신자가 교회에 오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교회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대한민국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5 년도 개신교 인구는 8,616,438 명이었고, 2015 년 조사에서는 9,675,761 로 늘었다.⁸ 정부 조사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은 12% 늘었는데, 각 교단이 밝힌 교회에 소속된 교인 수는 10%가량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이탈한 ‘나 홀로’ 기독교인이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는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 즉 불신자 전도의 한계와 교인 이탈 현상, 교인들의 대 사회적 신뢰도 하락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교회의 성경적 모습인 초대교회의 ‘소그룹’을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 교회는 지나친 성장 위주의 목회, 건물 중심의 목회를 추구하면서 이 소그룹의 가치를 잃어버렸는데, 성경적인 소그룹을 회복할 때 다음과 같은 성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로, 소그룹은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불신자들은 교회에 찾아오기를 꺼리는데, 그들을 친분에 있는 사람들이 소그룹의 현장인 ‘집’으로 초청한다.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함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소그룹을 통한 ‘관계 전도’는 이 시대 새로운 전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둘째로, 소그룹은 교인들의 교회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돌보고, 작은 모임 안에서의 친밀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심어주고,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다.

셋째로, 소그룹은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말씀과 삶이 일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대그룹 중심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흠여지기

6) 이원규, 「기독교의 위기와 희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41-63.

7) 김성건, “한국 교회 교인의 수평 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학적 고찰”, 「교회 성장」, (2004년 3월호), 47.

8) 대한민국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온라인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0505&vw_cd=MT_ZTITLE&list_id=A1111&seqNo=&lang_mod=e&k&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9년 10월 12일 접속.

때문에,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도록 도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소그룹은 설교를 들은 후의 느낌이나 깨달은 점, 교훈과 감동을 서로 이야기하며,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점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살며, 신앙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성경적인 ‘소그룹’의 장점들을 주목하고, 초대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소그룹 공동체’의 역동성과 친밀성, 제자 훈련과 영혼 구원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오늘의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과 방법론을 살피고자 한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교회들이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서 교인들을 성숙한 예수의 제자로 세우고, 사랑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기원이 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중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모든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역동적으로 사역했다. 즉 모든 교인이 구경꾼에서 주인으로, 객체에서 주체로, 군중에서 제자로 교회의 사역에 참여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지속해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했다. 또한, 초대교회는 대그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한 몸, 한 지체로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유무 상통의 공동체성을 실천했고,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행 2:44-47). 이것은 오늘날 대그룹 중심, 건물 중심의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에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외부적으로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정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다시 한번 전통 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소그룹 모형을 회복해야 한다. 즉 양적 성장을 추구했던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교회의 성경적인 역할과 목적을 재정립하고, 영적 성숙을 추구하며, 대내외적인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절실한 부분이 바로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라고 본다.

국제 NCD 대표인 크리스천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그의 책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건강한 교회의 8 가지 질적 특성을 말하는데, 특히 “소그룹의 계속된 번식이 보편적인 교회 성장의 원리가 된다”⁹⁾고 말하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인적 소그룹 사역’이라고 말한다. 이에 전인적인 소그룹 사역이 교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그룹의 공동체성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가족이다. 소그룹이야말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현대 사회 속에서 진정한 돌봄과 교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그룹이야말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둘째, 소그룹은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의 최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인데(막 16:15, 마 28:18-20, 행 1:8),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그룹에서 할 수 없는 소그룹만의 친밀한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소그룹은 팀 사역의 현장이다. 교회가 세상과 이웃을 섬기고, 서로를 돌보며 봉사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다. 성도 개개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고, 팀 사역을 통하여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한국 전통 교회가 성경적인 소그룹의 역동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를 이루어갈 때 한국 교회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소그룹 사역을 목회에 접목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 교회 성장을 견인해왔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80년대부터 유행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과 순장 목회’, 그리고 최근의 ‘셀 교회 운동’까지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소그룹 사역’이 없는 교회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9)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패러다임」, 임원주 역 (서울: NCD, 2001), 32.

소그룹 운동들이 전통적인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영적 성숙과 교회 성장의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은 ‘소그룹 사역’을 목회의 본질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양적 성장의 도구로 이해하고, 본질이 아닌 도구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양적인 교회 성장’의 도구로서 ‘소그룹’을 이해하고, ‘소그룹 사역’을 시행하기만 하면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오해와 잘못된 접근 방법 때문에 ‘성경적인 소그룹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소그룹 사역을 접목했던 대다수의 전통 교회가 유명한 대형교회의 ‘셀 운동’을 유행처럼 따라 하고, 무비판적으로 모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본 논문은 소그룹 사역의 이론과 실재를 분석해보고, ‘전통적 교회’라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연구자가 목회하는 포항성동교회를 비롯한 전통적 중소교회들이 각 개교회의 실제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소그룹 사역을 활성화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기초 위에서 현재까지 존재했던 소그룹 사역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것을 전통적 교회의 상황에 부합하는 소그룹 사역으로 적합하게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소그룹 사역의 이론적인 기초들을 살펴볼 것이다.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현재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전통 교회의 개념과 특징, 공헌과 한계점들을 살펴보고, 전통 교회를 갱신하려는 방법과 대안으로서 소그룹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성경적인 바른 이론적 바탕 위에서 소그룹의 특징과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성경적인 교회론의 본질을 회복하는 필수 요소’로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넷째, 성장의 시대가 가고, 정체나 퇴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소그룹 사역이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소그룹 사역의 여러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전통적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현장에서 일반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통 교회의 문제점과 소그룹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들을 분석하여 ‘전통적 교회에서의 소그룹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처럼 이 논문은 이러한 소그룹 사역의 가치를 이론적으로 확인하고, 실제적인 전통 교회의 현장에서 소그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 연구가 연구자가 시무하는 포항성동교회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범위와 한계 및 용어 정의

1) 범위와 한계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논문의 주요 주제인 ‘소그룹’의 범위이다. 첫 번째로, 본 논문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와 소그룹 사역 원리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게 연구할 것이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수많은 소그룹 사역의 프로그램과 모델이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 내는 것으로는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갱신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명한 교회의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참고 대상이지, 본인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오직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그룹 원리’만이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성경이 제시하는 소그룹 원리를 밝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전통 교회를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가 전인적으로 사역하는 역동적인 교회로 갱신시키는데 집중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논문은 전통 교회를 깨우고, 소그룹 활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자훈련, 예배와 교육의 모델들도 아울러 제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공동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에 공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통 교회를 공동체 교회로 전환해 가고, 수동적인 청중을 능동적인 참여자를 넘어 리더로 훈련하는 과정이 없이는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전통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본 논문은 현대 교회의 수많은 소그룹 사역 유형을 다 분석하고 다루지는 않는다. 이 시대 많은 소그룹 유형과 사역 프로그램 중에서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현장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소그룹을 선별하여 연구하고, 분석하며, 적용할 점을 소개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소그룹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 교회의 구역, 가정 교회의 목장, 셀 중심 교회의 셀을 연구할 것이다.

이 논문에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본 논문은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서 영적 성숙을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지, 외형적인 교회 성장의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앞서 문제 제기에서 밝힌 바와 같은 전통 교회의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소그룹 활성화’를 주제로 한다. 이를 통해 교인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며, 침체한 교회의 전도 동력을 살리는 과정을 연구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2) 용어 정의

(1) 소그룹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 18:2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의미의 헬라어 ‘에이스 토 에몬오노마’의 문자적인 뜻은 ‘내 이름과 관련해서’, ‘내 이름 안에서’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에 대해 침례신학대학교 박영철 교수는 “5~15 명의 교인으로 구성되어 교제, 기도, 전도, 교육, 봉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 간에 영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맺은 모임”으로 정의한다.¹⁰

(2) 대그룹

대그룹은 교인들이 주일(일요일)에 교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모임을 일컫는데, 한국의 전통 교회에서는 이를 주일날 모이는 큰 모임이라는 뜻으로 ‘주일 대 예배’라고 부른다. 한국의 전통 교회는 그동안 대그룹 사역인 예배, 기도회, 찬양, 전도 집회, 부흥회 등을 통해 성장해왔다. 대그룹에서 많은 신자를 모아놓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했다. 그러나 대그룹에서는 성도들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민감할 수 없다. 대그룹 중심의 전통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10) 박영철, 「셀 교회론」(서울: 요단, 2006), 231.

서로의 삶과 아픔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적이며,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구성원들조차 서로의 삶에는 무관심한 채 자기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는 현실에 처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는 ‘생명의 유기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전통 교회는 대그룹 일변도의 사역을 반성하고 다시 성경적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소그룹 사역을 회복해야 한다.

빌 백헨은 대그룹과 소그룹을 새의 날개로 비유하면서 교회가 다시 새롭게 비상하기 위해서는 대그룹과 소그룹의 양 날개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서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를 만드셨다. 한 날개는 대그룹 예배를 위한 것이고, 다른 날개는 소그룹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¹¹ 또한, 이상화는 소그룹 사역이 다시 회복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지나치게 개별화된 이 사회는 자신의 문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장소를 찾고 있다. 이것은 교회 안의 교인들도 마찬가지다. 서로 삶과 영적인 문제를 나눌 소그룹이 절실히 필요하다.”¹²고 설명한다.

(3) 교회 성장

한국 교회에는 많은 교회 성장에 대한 이론들이 소개되었는데, 대부분의 성장에 출판물은 ‘수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¹³ 이러한 외적인 성장주의에 대해 옥성호는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장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빠뜨리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더 많은 상품을 홍보하듯 교회가 진리가 아닌 것에 더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¹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물량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은 외면하고,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을 간과한 채 교회의 외적인 부분만을 마케팅하듯 상업적인 모습으로 변한 모습은 옳지 않다. 그러한 성장 조급증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는커녕 외면받는 교회가 되는데 일조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성장’은 일방적인 ‘숫자의

11)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0), 32.

12) 이상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사람에 집중하라”, 「기독신문」, 2019년 10월 29일.

13)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패러다임」, 임원주 역 (서울: NCD, 2001), 10.

14) 옥성호,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서울: 부흥과 개혁, 2008), 51.

증가'가 아니다. 이 논문은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면 더디지만, 반드시 양적으로도 성장한다”¹⁵는 슈바르츠의 ‘자연적 교회 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 NCD) 원리에 동의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신앙인으로 세우고, 교회를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 교회로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숙시키는 ‘영적 성숙’에 ‘교회 성장’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4) 전통적 교회

전통 교회에 대해 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를 목회하는 해리 L. 리더 (Harry L. Reeder) 는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교회”라고 말한다.¹⁶ 또한 새들백 교회’를 설립하여 기존 교회의 틀을 깨고, 실험적인 공동체 교회 운동을 펼치며, 구도자들을 위한 교회로 이끈 릭 워런(Richard Duane Warren)은 전통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교회들이 규정과 형식적인 의식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¹⁷ 전통 교회는 그동안 헌신적인 전도와 기도의 열정 가운데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거두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친 제도와 규정, 그리고 형식주의화 되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황에 둔감하고, 변화가 느리며, 기존 질서에 안주하고 있다. 특히 소그룹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전통 교회는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구역은 성경적인 ‘공동체’의 개념을 상실하고, ‘교인 관리’와 ‘봉사’를 위한 행정적인 조직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할 양육과 돌봄, 섬김과 전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별개의 ‘전도회’ 또는 ‘사역 부서’를 조직하여 전도와 양육 사역을 이원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전통 교회는 소그룹 모임이 없거나, 단순한 형식적인 친교 수준에 머무르며, 대그룹 예배(주일예배)에만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교회를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교회’, 또는 ‘전통 교회’라고 부른다.

15)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8). 이 이론에 입각하여 설립된 NCD 독일예 본부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회들이 더 건강하고 질적으로 성장하여 나아가 양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16) Harry L. Reeder,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송영일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8.

17) Rick Warren, 「새들백 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2002), 93.

3. 이론적 근거

1) 성경적 근거

(1) 창조주 하나님(창세기 1:26)

성경에 직접적으로 ‘소그룹’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경 전반은 소그룹의 모습을 보여준다. 소그룹은 이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개념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며, 성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구약성경 창세기 1 장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다. 즉 자신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즉 ‘소그룹 공동체’라는 존재 양식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으로서 그분 자신이 하나 됨을 이루고 계신 분이시다.¹⁸ 창조 전부터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교회의 소그룹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며, 또한 교회 소그룹 공동체를 연구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초대교회

신약 성경은 처음 교회가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이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의 이중적인 구조로 진행되어 있음을 말한다(행 2:42-47).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한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

로마서도 초대교회가 소그룹 형태의 모임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롬 16:5). 여기서 ‘저의 집’을 NASB 는 ‘in their house’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로마서 16 장 3 절에 의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성경은 1 세기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와 교제 모임을 진행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18) Gilbert Bilezekian, 「공동체」,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7), 15.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행 5:42).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고전 16:19).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늪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골 4:15). 이처럼 신약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기까지 약 300여 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건물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였다. 그들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공개적인 대그룹 모임이 아니라, 가정에서, 지하 동굴에서 소그룹으로 모였고, 그로 인하여 복음은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었다.¹⁹⁾

2) 신학적 근거

소그룹의 신학적 근거는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 양식,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 1:26).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를 중요한 신학적 근거로 보고 소그룹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에 나오는 ‘교제’의 헬라어 원어인 코이노이아(κοινωνία)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성경과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동체 신학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연구자는 소그룹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면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살펴보고, 교회론적으로 공동체 신학과 코이노이아 신학을 살펴본 후, 사역론적으로 ‘만인 제사장’ 신학을 담고 있는 평신도 신학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코이노이아 공동체, 만인 제사장 공동체, 양육과 전도 공동체로서의 소그룹을 연구하고, 이러한 소그룹을 활성화해서 전통 교

19)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0), 73.

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소그룹에 대한 신학적 근거는 제2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4. 연구 방법론

본 논문은 총 5장에 걸쳐서 작성되는데 각 장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 1 장은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를 담고 있다. 현재 한국 전통 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진술하고, 용어를 정의하며,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다. 제 2 장은 ‘소그룹’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성경적인 근거’, ‘신학적인 근거’, ‘역사적인 이론’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 3 장은 현재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인 ‘전통 교회’의 개념을 설명하고, 전통 교회가 가진 가치와 공헌, 그리고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전통 교회를 새롭게 하고, 다시 성경적인 원리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왜 소그룹 활성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면서, 소그룹의 활성화의 방법론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제 4 장은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포항성동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인데, 이것은 ‘소그룹을 활성화’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30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 조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현재 전통 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이며, 둘째는 소그룹에 대한 참여 현황과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유와 유익에 대한 질문이고, 셋째는 소그룹과 평신도 제자 훈련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넷째는 전체적인 소그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다.

제 5 장은, 모든 연구의 자료들을 요약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장에서는 특히 한국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그룹 사역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그것의 장단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중소형 교회에서 소그룹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적용할 점들을 연구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자가 시무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 전통 교회인 ‘포항성동교회’를 중심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소그룹 활성화’ 방안을 적용할 것인지를 제시할 것이다. 제 6 장은 결론으로서 ‘전통 교회에서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에 대한 제안과 한계점이 담겨 있다.

5. 문헌 검토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책과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저자의 책

개러스 아이스노글(Gareth Weldon Icenogle)이 쓴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는 소그룹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기본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스노글은 이 책에서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인 근거를 설명하고, 이 시대에 교회 성장의 주요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그룹의 이론과 실체를 소개한다.²⁰ 특히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명쾌하게 밝혀 주고, 소그룹의 중요성과 사역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에 관해서 설명해준다.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가 쓴 「셀 교회 지침서」는 현대적 의미의 소그룹인 ‘셀’의 실제적인 운영 원리를 소개하는 책이다.²¹ 랄프 네이버는 세계 교회에 알려진 학자로서 ‘셀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셀 교회’ 연구의 대가이다. 이 책은 그가 평생을 연구한 셀에 관한 이론이 집대성되어 있다. 셀의 중요성, 셀의 이론적 배경, 셀 운영의 실제적 원리 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현대 교회의 ‘소그룹’ 연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빌 벡햄(William A. Beckham)이 쓴 「제 2의 종교개혁」(The Second Reformation)은 셀 교회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²² 미국 텍사스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했으며, 그 이후 미국 남침례교가 파송한 태국 선교사로, 또한 수많은 교회를 건설하는 학자로서 이 시대 셀 교회 운동을 주도해 온 벡햄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그는 터치 사역의 국제 사역 대표로 일하며,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의 셀 교회 운동을 돕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21세기 교회 갱신을 대그룹과 소그룹, 두 날개를 가진 교회를 주장하고, 예수님의 원형 요소를 분석하며 셀 교회의 이론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20) Gareth Weldon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서울: SFC, 2007).

21) Ralph W. Neighbour,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22) William A. Beckham, 「제 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0).

슈바르츠는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질적인 특성들을 설명하면서,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것을 이론과 실재를 설명한다.²³ 현대 교회가 인위적인 양적인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특별히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는 그의 저서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 특성을 설명하는데, 그중에서 여섯 번째 특성이 전인적(holistic) 소그룹이다. 이것은 소그룹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빌 도나휴(Bill Donahue)와 러스 로빈슨(Russ Robinson)이 함께 쓴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는 미국 시카고 윌로우크릭 교회의 소그룹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²⁴ 이 책은 그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소그룹 사역의 실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또한,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얻는 유익과 열매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ey)가 쓴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은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소그룹 리더들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²⁵ 이 책은 소그룹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나아가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며,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로버트 콜먼(Robert E. Coleman)이 쓴 「주님의 전도 계획」은 미국 보스턴 고든 콘웰 신학교 교수인 로버트 콜먼이 쓴 책으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실행 원리를 설명한다.²⁶ 예수님의 사역을 선택, 동거, 성별, 분여, 시범, 위임, 감독, 재생산 등 8가지로 원리로 설명하면서, 전도의 원리뿐 아니라, 양육과 성장의 원리를 명쾌하게 기술하고 있다.

빈센트 브래닉(Vincent P. Branick)이 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는 성경적으로 교회가 처음에

23)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8).

24)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25) Joel Comiskey,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NCD 편집부 역 (서울: NCD, 2010).

26) Robert E. Coleman, 「주님의 전도 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밝힌다.²⁷ 이 책은 주님이 세운 초대 교회는 ‘가정 교회’였음을 밝히며, 현대 교회는 가정 교회의 공동체성과 아름다운 역동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한다. 또한, 번역자인 홍인규는 이 책의 서문에서 “희망을 상실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저자는 세상의 희망으로 탄생한 교회가 전통의 이름으로 제도화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음을 밝히며,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이 책은, 퇴보와 정체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제안하고 있는 책이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가 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로잔(Lausanne)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에서 발표된 ‘하나님의 복음 전도 대행자로서의 교회’라는 논문을 확대하여 출판한 책이다.²⁸ 교회 갱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스나이더가 저술한 이 책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서 볼 때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대행하는 대행자이며,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정상적인 교회 성장은 교회의 본질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성장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교회론의 성경적인 본질을 강조한다.

2) 국내 저자의 책

옥한흠이 쓴 「평신도를 깨운다」는 옥한흠이 쓴 ‘제자훈련’에 대한 책이다.²⁹ 저자는 평신도 한 사람을 복음으로 깨워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로 세우는 데 집중한 목회자이다. 본 연구자는 저자가 인도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목회 사역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을 통해서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일에 집중한 옥한흠의 목회 철학과 제자 훈련을 잘 이해할 수 있다.

27) Vincent P. Branick,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5).

28) Howard A.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29)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3).

채이석이 쓴 「소그룹의 역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소그룹’을 소개하고, 초대 교회에서 시작해서 현대 교회까지 교회 역사 속에 존재했던 ‘소그룹’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책이다.³⁰ 이러한 이론적인 소개를 통해서 소그룹이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설명한다.

최영기가 쓴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는 ‘가정 교회’ 사역으로 유명한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의 목회 원리가 담겨 있는 책이다.³¹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전통 교회를 ‘가정 교회’로 전환하고,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을 펼쳐가는 이론과 실재를 이해할 수 있고, ‘가정 교회’라는 소그룹 사역을 지탱하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론을 이해할 수 있다.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는 일산 화평교회를 개척하고 가정 교회 사역을 펼치고 있는 최상태의 목회 현장 이야기이다.³² 저자는 이 책에서 소그룹 사역의 이론과 실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가정 교회’가 전통 교회의 구역 조직과는 다른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주장한다. 이 책을 통해서 화평 교회의 사역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정 교회의 사역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가정 교회의 실행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안재은이 쓴 「소그룹 목회 원리와 프락시스」는 ‘소그룹’이야말로 교회의 목적과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교회 현장에서 소그룹 사역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³³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소그룹 사역의 근거와 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목회자들이 실제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내용과 소그룹 목회를 설계할 방법들을 기술하고 있다.

박영철이 쓴 「셀 교회론」은 전통 교회가 ‘셀 교회’로 전환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과정부터 실제적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⁴ 저자는 전 세계의 소그룹 중심 교회를 방문한 후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소그룹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이론과 실제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0)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경기: 소그룹하우스, 2010).

31) 최영기, 「가정 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32)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33)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0).

34)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 2006)

본 논문을 위해 중점적으로 연구한 성구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의 창세기 1 장 2 절, 창세기 1 장 26 절, 신약의 마태복음 28 장 19 절, 요한복음 17 장 21-22 절, 빌립보서 2 장 6 절, 요한복음 6 장 38 절, 요한복음 15 장 26 절, 요한복음 1 장 3 절, 고린도전서 8 장 6 절, 골로새서 1 장 16 절, 히브리서 1 장 2 절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핵심 근거가 되는 구절이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 2 장 42-47 절, 사도행전 5 장 42 절, 로마서 16 장 3-5 절, 고린도전서 16 장 19 절, 골로새서 4 장 15 절은 초대교회의 소그룹과 가정 교회 사역을 살피는 핵심 근거가 되었다. 자세한 논증은 2 장에서 다룰 것이다.

6. 소결론

현재 침체 일로에 있는 한국의 전통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주효한 방법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제시한 교회의 본질, 즉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 교회는 그동안의 많은 업적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침체와 쇠퇴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성경적인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 논문은 전통적인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성경적인 교회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것에서 찾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교회, 구약 교회로부터 초대교회에 분명히 존재했던 소그룹 공동체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 소그룹이 회복될 때 나타날 교회의 역동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회의 소그룹을 회복하는 일은 단순히 ‘수’의 성장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되찾는 일이다.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고,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서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러한 ‘소그룹 활성화’는 침체하여 가는 전통 교회를 갱신하는 매우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소그룹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고찰하고, 전통적인 교회 현장에서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전도와 양육과 사역의 역동성이 회복되도록 하는 실제적인 방안과 적용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소그룹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 1 장에서 한국 교회의 침체와 쇠퇴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통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은 너무나 중대한 이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전통 교회를 갱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구자는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소그룹이 이 시대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소그룹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역사적 근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볼 만한 소그룹의 역동성과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소그룹에 대한 이해

1) 소그룹의 정의

위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인격적이며 유기적으로 교제하고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타락했고, 그 본성이 부패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다. 그렇기에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 안에서 회복하고 참여해 가야 한다. 이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소그룹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의 Solana Beach Presbyterian Church 목사이며, Fuller Seminary 에서 교수로 사역했던 유명한 소그룹 사역자인 로베르타 헤스테네스(Roberta Hestenes)는 소그룹에 대해서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 명에서 12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인

모임”이라고 정의했다.³⁵ 여기에는 소그룹의 외형적인 조건인 시간과 장소와 일정 규모의 인원이 담겨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적인 요소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목적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만남’이 함께 담겨 있다. 이에 더해서 유명한 셀 교회 이론가인 랄프 네이버 박사는 그의 책, ‘셀 교회 지침서’에서 소그룹 모임 인원이 15 명이 넘으면 범위가 너무 커져서 공동체 형성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³⁶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 공동체 모임은 첫째, 15 명 이내의 소수의 사람이 시간을 정하여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해 가는 곳이다. 둘째,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이다. 셋째로, 새로운 영혼을 초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신앙인으로 재탄생하는 공동체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 소그룹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모여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고 섬기는 사역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의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이다. 왜냐하면 교회 소그룹은 세상적인 관심이나 가치관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추구하는 공동체인데, 영생은 성경이 증언하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39)”. 그러므로 교회 소그룹의 지도자는 소그룹의 핵심 DNA 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하고, 예수 DNA 의 바탕 위에서 소그룹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³⁷ 소그룹의 두 번째 요소는 ‘사랑의 교제’이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4)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데, 사랑의 교제는 다양한 교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어가는 상호 간의 친밀한 결속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소그룹의 세 번째 요소는 ‘사역, 즉 전도와 섬김’이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장해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견고한 공동체를 이룬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이제는 교회 밖의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하나님의

35) Roberta Hestenes, 소그룹 성경 공부, 이종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1), p. 26.

36) Ralph W. Neighbour,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42.

37) 옥한흠, 「예비 리더를 키우라, 소그룹 305 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나라를 위해 실천하고 봉사해야 한다. 이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담고 있는 소그룹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명 이내의 소규모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의 교제를 갖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며, 새로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헌신과 결단의 장이다.”

2) 소그룹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그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 원리이기도 했다. 즉 소그룹은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시대의 교회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구한 교회의 역사와 함께해 온 것이며, 각 시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였다.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로서, 대그룹 공동 예배와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사역은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 교회 성장(NCD) 창립자로서 교회 성장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저술을 통하여 현대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슈바르츠는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건강한 교회에 꼭 필요한 여덟 가지 질적 특성’을 말하면서 그중 가장 핵심 요소로 ‘전인적인 소그룹 사역’을 말한다.³⁸ 그리고 미국의 교회 성장 학자인 칼 조지(Carl F. George)도 수만 명의 교인이 있는 메타 교회(Meta Church)의 원동력을 연구하고 집필한 그의 책에서 소그룹 사역이 꼭 필요한 8가지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인격적인 교감을 갈망. 둘째, 새로운 대안 요구. 셋째,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해석. 넷째, 급속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회 구조. 다섯째, 남녀가 함께 사역. 여섯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믿음과 사역을 성장시키는 방법. 일곱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구조. 여덟째, 모든 사람이 인격적인 돌봄을 받게 하는 방법.”³⁹

이처럼 소그룹은 교인들을 돌보고, 필요를 충족시키며, 그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데

38)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8), 32.

39) 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22-3.

효과적인 사역인데, 소그룹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 이 기능적인 요소들은 각각 존재하는 요소이면서 또한 서로 유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기능적인 요소들이 바르게 작동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3) 소그룹의 필수 요소

(1) 예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예배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부여받는 시간이며,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진정한 힘을 얻는 것이다.⁴⁰ 또한, 기독교에서 예배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⁴¹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교인들은 주일날 일정한 시간에 예배당에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교회 문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형식화되고, 생명력을 잃은 예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초대 교회의 예배는 건물(회당) 중심이 아니었다. 그들의 예배 중심지는 성도들의 집이었다(행 2:46, 행 5:42, 고전 16:19).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성찬을 나눌 때 그 예배는 감격이 있고, 생명력이 있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한 사람들의 변화된 얼굴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단하는 예배야말로 살아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⁴²

(2) 코이노니아 (교제)

코이노니아는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40) 신현광,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는가」(서울: 신학연구, 1997), 175.

41) Donald G. Miller, 「교회 본질과 사명」, 박상중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1), 186.

42) 방선기, “가정교회 비전과 한국교회의 부흥”, 「목회와 신학」, (2004년 2월), 85.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교인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 교제하게 하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4). 종교개혁가 존 칼빈(John Calvin)도 교회를 볼 때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보았다.⁴³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교회 안에서 ‘교제’가 약화하였거나,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소그룹은 다시 친밀한 코이노니아(교제)가 회복될 수 있게 하는 대안이다.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인 교회 교인들이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상호 간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며, 갈등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내용을 격려하고 훈련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의 능력이다.⁴⁴

(3) 봉사

봉사, 즉 섬김은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고 설명했다. 여기서 쓰인 ‘섬김’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네오’(diakoneo)인데,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봉사”를 의미한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행 2:44-45). 현대 교회의 대그룹 모임은 많은 사람이 군중으로 모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그룹 공동체에서는 상대방의 형편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서로의 필요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도와줄 수 있다.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인 섬김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며, 현대인들의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4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IV.i.3.

44) Carl F. George,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박종훈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272.

(4) 성령의 은사

소그룹 공동체는 교회의 원동력이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은사에 있다고 본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성경 요엘서에 예언된 약속의 성취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욥 2:28-29).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성취된 것이다(행 2:1-4). 이제 성별의 차이, 신분의 차이, 연령의 차이를 뛰어넘어 선택받은 모든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힘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벧전 2:9).

신약시대 사도들은 교회를 움직이는 권력과 사역을 자신들만 갖지 않고, 평신도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다.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갔다(행 6:1-6). 이처럼 사도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할 때 초대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행 6:7).

소그룹 사역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수직적인 계급 관계로 보지 않고, 직분에 상관없이 성령의 은사대로 사역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즉 교회에서 목회자만 사역하고, 평신도들은 균중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된다. 또한, 평신도들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대로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성도를 돌보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한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평신도가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여 사역에 참여하고, 교회의 역동적인 성장과 부흥에 기여하는 소그룹 사역은 침체한 전통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 구약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

1) 아담과 하와의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도 소그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의존하며 함께 살게

하셨다. 이것은 죄와 타락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섭리이다.⁴⁵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창 2:22-24). 세상을 창조한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걸작품의 모습을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셨다(창 2:18).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NASB”. 하나님은 인간이 고립되어 독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이다.⁴⁶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사람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상호 의존과 상호 도움의 삶을 살게 하셨다. 한 분이면서 동시에 셋인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 역시 공동체로 존재하며, 연합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국의 원형인 가정 소그룹 공동체는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졌다. 즉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을 계기로 상호 의존과 연합의 삶은 깨어졌다. 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이 소외와 고독, 고립의 삶을 살게 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신 가정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스라엘의 소그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출 19:6)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때 모세는 백성을 이끄는 지도 방법을 바꾸어야만 했다. 이집트에서 성장한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했다.⁴⁷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함께 하는 리더십’을 말씀하셨다(출 18:14-17). 이에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대로

45)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53.

46) Gilbert Bilezekian, 「공동체」, 26.

47)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113.

백성들의 리더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서 함께 동역했다(출 18:18-25).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출 18:24-25). 모세가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리더십은 그의 기력을 쇠하게 하고, 쉽게 탈진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소그룹을 통한 지도력의 공유는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동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함께 하는 리더십’을 통해 모세는 훨씬 더 수월하고, 힘차게 사역할 수 있었고, 동역하는 리더들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

느헤미야 3 장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온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에서 가족 그룹별로 각자의 형편과 사정과 기술에 따라서 일을 나누어서 수행하게 했다. 다양한 그룹이 각자의 재능과 도구를 사용하여 성벽 건축을 위해 일했고, 또 수많은 소그룹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협력해서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위해 일했다. 그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52 일만에 이루어졌다.⁴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보여 주신 이스라엘의 소그룹은 인격적인 교제와 동역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역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서 삼위가 함께 하신 삼위 일체의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종과 백성들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협력하고, 상호 신뢰의 의존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기 원하셨다고 볼 수 있다.

3. 신약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

1) 열두 제자 소그룹

신약 성경에서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 소그룹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예수님은 열두 명을 제자로 부르셨다(막 3:13).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사역을 펼치시기에 앞서서 12 명의 제자와 공생애 동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

48) Gareth Weldon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146.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일에 자신의 공생애 사역의 대부분을 헌신하셨다.⁴⁹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함이었다(막 3:14). 예수께서는 소그룹으로 함께 하면서 제자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셨으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수천 명의 군중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양육시키고 사도로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하셨다. 예수님의 제자 소그룹은 다시 세분되는데, 특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서 효율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동역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눅 5 장).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더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제자들을 효율적으로 양육하셨고, 그들을 통해 많은 천국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⁵⁰

2) 초대 교회의 소그룹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소그룹의 모습을 보면,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모였고, 또한 소그룹은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을 택해서 소그룹으로 모임을 했음이 분명하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초대 교회는 별도의 예배당 건물을 세우지 않고,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 교회 모임을 했음을 볼 수 있다.⁵¹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서신서에는 각 가정에서 모인 교회의 모습들을 증거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헌신적인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소개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49) Robert E. Coleman, 「주님의 진도 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25.

50)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0), 25.

51)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경기: 소그룹하우스, 2010), 103.

교회에도 문안하라”(롬 16:3,5). 또 골로새서에서는 늬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소개한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늬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골 4:15).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한다.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몬 1:2).

이처럼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개인의 집에서 가정 교회 형태로 모였음을 알 수 있다.⁵²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은 모두 가정에서 모인 교회였고, 그들은 별도로 준비된 큰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다.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었고, 예배와 선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갔다.⁵³

(1)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인 교회(롬 16:3-5)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으로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정착한 유대인 부부였다(행 18:1-3). 그들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고(행 18:18-19), 신앙의 깊이가 있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한 아볼로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행 18:26).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책임을 맡았고(고전 16:19), 후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이끌었을 것이다. 로마서 16 장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인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롬 16:3).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롬 16:5). 이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가 아니지만 그들의 집에서 교회의 모임을 했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다.

52)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6), 207.

53) Vincent P. Branick,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5), 5.

(2)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모인 교회 (행 18:7)

디도 유스도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찾은 사람이다. 그의 이름 디도 유스도(Titus justus)는 로마식 이름인데,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려준다. 그는 회당 옆에 있던 그의 집을 사도 바울의 전도를 위해 제공했고,⁵⁴ 이후 그의 집은 고린도 교회의 첫 모임 장소이며, 고린도 전도의 중심부가 되었다. 이에 누가는 그의 헌신과 이름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행 18:7).

(3) 스테바나의 집에서 모인 교회

스테바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다.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고전 1:16). 바울은 스테바나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고전 16:15). 여기서 바울은 ‘스테바나’ 개인만이 아니라 ‘스테바나의 집’이라고 말했다. ‘집’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이키안’은 라틴어의 ‘파밀리아’(familia)처럼 ‘자녀를 비롯한 가족’뿐만 아니라 ‘노예들’까지도 포함되는데, 곧 한 가족 전체라는 의미이다.⁵⁵ 즉 스테바나는 아덴에서 회심한 후에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의 가족 전체가 교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가이오의 집에서 모인 교회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바울은 ‘가이오’에 대해 이렇게 일컫는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롬 16:23). 바울이 ‘돌보아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이오에게 어느 정도 남을 섬길 만한 여력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며, 또한 가이오의 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개방되고, 또한 고린도를 방문하는 신앙인들에게 제공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돌보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54) 문효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타난 소그룹 공동체 연구」 (서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06), 98.

55) 김지철, 「성서주석, 고린도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00.

‘크세노스’인데, ‘초청된 친구’라는 의미에서 나중에는 ‘나그네’(마 25:35), ‘외국인’(엡 2:19), 그리고 사람을 친절하게 환대하거나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교부들은 고린도 교회가 가이오의 집에서 모인 것으로 본다.⁵⁶ 말하자면 가이오의 집은 초창기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소그룹 회집 장소였던 것이다.

(5) 에라스도의 집에서 모인 교회

‘에라스도’에 대해서도 바울은 로마서 16 장에 가이오 다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롬 16:23). 바울은 에라스도를 그 성의 ‘재무관’이라고 소개한다. 1929년 에라스도의 이름과 직책이 기록된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발굴된 비문에는 “에라스도가 고대 로마의 공공건물이나 도로, 시장, 공중 보건 등을 관할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자비로 도로를 건설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⁵⁷

사도행전 19 장 22 절과 디모데후서 4 장 20 절을 볼 때 에라스도는 초대 교회의 선교 사역에 크게 기여한 사도 바울의 신뢰받는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다. 에라스도는 자신의 은사와 사회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 소그룹 가정 교회의 리더였을 것이다.⁵⁸

(6) 뵈뵈의 집에서 모인 교회

사도바울은 로마서 16 장에서 자신의 사역에 큰 도움을 준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술하며 감사를 표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뵈뵈’이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롬 16:1-2). 뵈뵈는 헬라어로 ‘포이벤’이라는 단어로 ‘밝다’, ‘빛을 받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겐그레아

56) Vincent P. Branick,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5), 97.

57) 차정식, 「성서주석, 로마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502.

58) Vincent P. Branick,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98.

교회의 여집사였는데, 사도가 로마 교회에 추천할 정도로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또한, 바울은 ‘뵈뵈’를 ‘우리 자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육신의 혈연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그녀를 보내면서 그를 잘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뵈뵈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기 문이다”(롬 16:2). 여기서 ‘보호자’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προστάτις) 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뵈뵈를 ‘여성 후원자’였다고 소개하는 것은 그녀가 자기의 재물을 바울의 선교 사역과 겐그레아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내어놓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⁹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뵈뵈는 자기의 집에서 겐그레아 교회가 모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섬긴 사람이었다.

4. 소그룹에 대한 신학적 근거

1) 삼위일체 신학

전통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써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를 제시하면서, 먼저 소그룹의 기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서부터 ‘소그룹’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소그룹은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원형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본 단락에서는 소그룹의 신학적 근거로서, 가장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으로 하나 됨을 이루며 존재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어거스틴(Augustine)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삼위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불리는 삼위 하나님이 존재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본체를 가지고 계시며 결코 분리될 수 없다.”⁶⁰ 박윤선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삼위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이며, 질적으로도 신의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 동일하며, 수적으로도 하나이다(빌 2:6). 둘, 하나님의 위가 삼위라는 뜻은 인격의 부분에 있어서도 셋이라는 뜻이다. 셋,

59) Vincent P. Branick,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99.

60) 성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 김종흡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4), 121.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안에서 성자는 성부 안에, 성령은 성자 안에 구원 사역의 종속적 관계를 가진다.”⁶¹ 다시 말하면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으므로 성부에게서 나온다(요 6:38). 성령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요 15:26).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나님이다. 그분의 본체는 하나이지만 그분의 인격은 셋이고,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다.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창조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사역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다. 즉 자신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고 말씀하고,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고전 8:6)고 하였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 1:16),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히 1:2)고 말씀한다. 이것은 제 2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고 계심을 드러낸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창 1:2)고 말씀하심으로 신성의 제 3 위이신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협력하셨음을 증거한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로,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공동체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낸다.⁶²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진술(마 28:19, 요 17:21-22)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근거가 된다.⁶³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아버지여

61)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120.

62) Gareth Weldon Icenogle,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서울: SFC, 2007), 28.

63)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역 (서울: 옥토, 1997), 25.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7:21-22).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은 인격적인 관계성이다.⁶⁴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체(personal)로 존재하시며, 그 인격적 관계성 안에는 사랑, 슬픔, 순종, 용기, 결단 등이 담겨 있고, 의지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안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각 사람의 머리에 바람 같이 임하여 교회를 이루어 전인적으로 교제하게 하신 성령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도 공동체가 필요하며,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로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⁶⁵

2) 공동체 신학

우리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동등한 지위와 권한과 능력을 지니셨고, 삼위일체 안에서 상호 인정과 협력이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소그룹 사역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시지 않고, 공동체로 함께 존재하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걸작품인 인간도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⁶⁶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서로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며 풍성함을 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도 당연히 공동체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⁶⁷

64) Ibid., 24.

65) Neal McBride, *How To Lead Small Groups*, (NavPress, Colorado Springs, F.T.S, 1992), 14.

66) 권문상, “21 세기 목회를 위한 조직신학적 제안”, (개혁신학 논문집 13 권, 2002), 99-101.

67) Ibid., 101.

3) 코이노니아 신학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 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13). 여기서 ‘교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이다.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참여’(participation), ‘나누어 줌’(impartation), ‘친교와 사귄, 교제’(fellowship)를 뜻한다.⁶⁸

이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인간과의 교제이다. 즉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 그리고 믿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고후 5:17-28; 요 15:1-11) 있다는 말로 표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한 몸이 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고전 11:23-26),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고 코이노니아의 선물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고전 10:6-17).⁶⁹

초대교회에서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코이노니아는 개인적인 교제와 사귄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서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초대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집회나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지어진 건물이나 빌딩에서 만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경험하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였다. 코이노니아는 초대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였다.⁷⁰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현장이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있다.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올리면서 건물이나, 대그룹 집회만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이며, 한 몸이라고 할 수는

68) 정인찬, “코이노니아,” 「성서대백과사전」 (서울: 기독교출판사, 1981).

69) Jü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 박봉량 외 4인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0), 49.

70) James F. Cobble, 「교회 성장과 조직의 역동성」, 명성훈 역 (서울: 나단, 1994), 145.

없으며, 그 모습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만일 교회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더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4) 평신도 신학

교회의 소그룹 사역은 목회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봉사하는 특징이 있다. 사실 1세기 당시 초대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점점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직분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 당시 로마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통치자의 계급인 ‘클레로스’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성직자’를 지칭하게 되었고, 피지배자의 계급인 ‘라오스’가 교회 안에서 평신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교회가 제도화되고 로마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클레로스라 라오스가 계급적인 대립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⁷¹

그러나 목회자와 평신도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동등한 주체이며, 평신도는 결코 목회자의 보조자가 아닌,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담당하는 일꾼이다. 교회의 사역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사명인데, 평신도 사역에 대한 신학적인 동기는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⁷²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모든 신앙인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직무상의 차이만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했다.⁷³

오늘 이 시대에 평신도 사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평신도는 선택받은 하나님은 백성이다. 성경 출애굽기 19장과 이사야 6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71) 은준환, 「실천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06.

72) Ibid., 113-4.

73) James Mackinnon, *Luther and the Reformation: The Breach with Rome (1517-21)*, vol. 2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28), 222-7, 심일섭, 「평신도 신학과 한국교회의 미래」 (서울: 한국기독교신학협회, 1997), 159-60에서 재인용.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출 19:6).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사 61:6).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둘째, 평신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엡 1:23). 이 사실은 모든 교인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소중한 존재이며 각자의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또한 교회의 유기체적인 특성은 그 지체들이 상호의존, 상호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평신도는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목회자가 봉사하는 것처럼, 평신도들도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 때문에 모든 지체에게 섬김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전 12:11). 루터의 주장처럼 평신도의 위치는 목회자보다 계급상으로 낮은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기능과 임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시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하여 평신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지도력을 개발하고, 사역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1세기 당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다(롬 16장). 바울의 사역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평신도들에게 의존적이었는데, 서신서는 그들을 동역자(롬 16:3), 주의 일에 힘쓰는 자(고전 15:58)라고 불렀다.⁷⁴ 이처럼 신약의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동역을 통하여 성장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교회도 평신도들이 소그룹을 통해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4)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207-8.

5. 교회 역사에 나타난 소그룹

신약 성경의 목회 서신에는 교회 내 외부의 위기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처하는 지역 교회의 권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권면이 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딤후 3:1).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딤후 1:7).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딤후 1:9).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신을 볼 때 1세기 당시의 교회에는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장로와 감독’이 최고의 권위자로서 교회 내의 직분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다.⁷⁵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그동안 강력한 권위를 사도 조직이 이제는 지역 교회가 이어받았고, 제도적인 권위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소그룹 가정 교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유지되기 힘들어졌다. 이후 가족과 같았던 소그룹 가정 교회 대신에 점차 제도적인 지역 교회가 교회 활동의 중심이 된 것이다.⁷⁶

2세기에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는 그의 글에서 “주님의 권위로 교회를 관리하는 ‘감독’의 직분을 말하고, 감독이 불참한 상태에서는 성찬이나 세례가 진행될 수 없었음을 밝히는데, 이렇게 제도화된 교회에서 더는 가족적인 소그룹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⁷⁷ 또한, 313년 가이사라의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는 그의 책 ‘교회사’에서 교회의 초기부터 324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려고 예루살렘에 건축한 웅장한 교회당의 헌당식과 성직자들을 위한 긴 의자와 고상한 제단”에

75) 박익수, 「성서주석,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94

76) Vincent P. Branick,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205.

77) Ignatius Antiochenus, *epistulae 1-7*, in: *Die Apostolischen Väter*, ein. u. a. m. v. Joseph A. Fischer,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9. Aufl., 1986), 142-224, 주재용, 「사도교부 이그나티우스의 생애와 사상, 신학연구」 (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0/1969), 207에서 재인용.

대해 조사하고 있다.⁷⁸ 이것은 교회가 소그룹 공동체가 아니라 웅장한 건물에서 모이는 대그룹 집회임을 보여준다. 또한, 교인들의 증가로 더는 가정에서 모일 수 없었으며, 큰 건물에서 모여야 했음을 설명한다. 이제 교회는 크고 고상한 건물에서 제도적인 조직이 되었고, 더는 가족과 같은 소그룹 공동체가 아니었다. 그리고 초기 교회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국가 종교로 공인된 후에 교회는 국가 교회 형태로 나타난다.

A.D. 313년 2월 로마 제국의 공동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Constantinus I)는 ‘밀라노 칙령’(Edict of Milan)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포함해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⁷⁹ 이 칙령은 기독교가 보호받고 장려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중단되었고, 국가나 개인이 교회에서 빼앗은 재산은 반환되었다. 또한, 콘스탄티누스 1세는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많은 특권을 안겨주었고, 각 지역에 교회 설립을 후원하였다. 이러한 밀라노 칙령 후에 ‘바실리카’ 양식의 건물들이 세워졌는데, 바실리카의 등장은 기독교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⁸⁰

첫째, 교회는 더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건물’로 인식되었다. 둘째, 교회의 가족적인 리더십은 제도화된 성직 계급에 밀려났다. 셋째, 그동안의 은사 중심의 사역이 자취를 감추고, 성직자(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이 나타났다. 넷째, 예배는 ‘제도화된 의식’, 미사로 바뀌었고, 평신도들은 예배의 참여자에서 수동적인 관객이 되었다. 다섯째, 교인들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대그룹 속에서 형식화된 교인으로 전락하고,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초대교회의 소그룹 가정 공동체는 불법으로 선언되었는데, 주후 360~370년 사이에 라오디게아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가정에서 성찬을 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⁸¹ 이제 확실히 예배의 장소는 가정에서 크고 웅장하며 거룩한 예배당으로 옮겨갔으며, 소그룹 가정교회 공동체는 불법으로 공포되고, 자취를 감추었다.

78) Eusebius Pamphili,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엄성욱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8), 20.

79) 두산동아백과사전 편집부, 「두산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2002), 245.

80) Vincent P. Branick,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5), 258.

81) Ibid., 259.

1) 중세시대의 소그룹

이렇게 초대 교회가 소그룹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왔다면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부터는 제도화된 교회로 바뀌게 된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공공건물이 아닌 교인들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중세 시대에는 교회당 건물이 세워지고, 정부의 조직 체계를 교회에 적용하게 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서구 유럽 사회를 기독교화하였다. 그렇게 교회가 제도화되고, 거대화되면서 교회는 소그룹의 역동성과 순수성을 상실해 갔다.⁸² 초대교회 시대에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와 나눔, 섬김을 경험했다면, 이제 중세 시대에는 대그룹의 예전과 의식이 강조되었다.⁸³ 그러나 이렇게 제도화된 중세 교회에서도 교회의 변화를 염원하는 신앙인들이 나타났다.

(1) 왈도파(Waldness)의 공동체 운동

중세 시대의 공동체 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룹으로 왈도파(Waldness)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재산가였던 왈도(Peter Waldo)는 1176년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빈곤을 자처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천했다. 사람들은 왈도의 모범을 따라 2인 1조로 짝을 이루고, 청빈의 삶을 살며, 각 지역을 다니며 설교했다.⁸⁴ 기존 질서의 혼란을 우려한 로마 교회는 왈도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탄압했지만, 왈도파의 수는 증가했다. 1217년 왈도의 사망 이후, 박해는 더욱 거세지면서 그들의 세력은 약화되었다. 왈도파는 가족공동체로서 가정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2인 1조로 짝을 지어 복음 전파의 삶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82)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74.

83) 박용규, 「초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4), 112.

84) Joseph H. Lynch, 「중세교회사」, 심창섭,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5), 364.

(2) 롤라드파(Lollards)의 공동체 운동

중세 교회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그룹으로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했으며, 거리와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던 롤라드파(Lollards)의 소그룹 운동을 들 수 있다. 그들을 통해 잉글랜드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지만, 로마 교회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많은 롤라드파 사람들이 투옥당했고, 심지어 죽임당했다.⁸⁵ 그들의 모임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모인 선구자적인 소그룹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공동생활 형제단

이들의 모임은 게르하르트 그루테(Gerhard Groote, 1340-1384)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1380년대 포렌시우스 라더웨인스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규칙적으로 모였는데, 공동생활을 하며 청빈의 삶을 살았다. 그 모임에는 성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참여도 자유롭게 허용되었는데, 그들은 병자를 방문하고, 교육에 힘쓰며, 복음을 전했다. 각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로마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경건과 청빈의 삶을 실천하고, 공동으로 서로의 것을 나누는 이들의 소그룹 운동은 훗날 루터의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다.

2) 종교 개혁 시대의 소그룹

(1)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소그룹

마틴 루터는 중세시대까지 수동적이던 평신도들의 신앙적 지위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근거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격상시켰다.⁸⁶ 그래서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제들과 동일한 신분임을 강조했고, 소그룹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세례와 성찬을 갖고, 성도의 교통을 나눌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루터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지체가 지체를 위하듯이 각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면서 교회라는 용어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라는 용어

85) 정수영,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종교개혁사」 (서울: 쿤란출판사, 2012), 65.

86) Martin Luther, 「종교개혁의 3대 논문」, 지원용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3), 279.

를 선호했다.⁸⁷ 이처럼 루터는 철저하게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루터는 ‘독일 미사와 예배 규범’에서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예배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형태는 라틴어로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형태는 어느 곳에서든지 공식적인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형태는 비공식적이며 소공체성, 그리고 가정 교회적 성향이 있는 것이다.⁸⁸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소그룹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칼빈(John Calvin)의 소그룹

오토 베버(Otto Weber)는 칼빈의 교회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직분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교회관을 가졌다”고 말한다.⁸⁹ 또한, 칼빈은 직접적으로 소그룹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특별히 소그룹을 실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칼빈에게서도 소그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전통적인 미사 대신에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성도들도 서로 교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육과 교제,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했다.⁹⁰ 이처럼 칼빈이 교회 조직과 실행에서 소그룹 공동체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성경 중심의 예배와 교회론에서 소그룹 목회의 신학적 기반을 찾아볼 수 있다.

3) 근대 교회의 소그룹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에서는 1500년대부터 극단적인 노선도 발생했는데, 특히 ‘재세례파’운동이 유명하다. 재세례파는 세 개의 단체가 잘 알려져 있다. 혁명적이고 군사적이며 광신적인 세례파, 온건한 세례파, 그리고 후터파이다. 재세례파는 성경적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가정’에서 모임을 했다. 이러한 재세례파 공동체는 다소 극단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자신들을 이단으로 몰면서 박해하는 사람들로 부터 피해서 집에서 서로 보살피며 예배를 드린 이

87) Marthin Luther, *Werke: 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1883, 1, 607, 38,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79-80에서 재인용.

88) Martin Luther, *Deutsche Messe und Ordnung Gottesdiensts*, (1526). WA 19:44-113. English translation: *The German Mass and Order of Service*. LW 36:51-90.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70-1에서 재인용.

89) Otto Weber, 「칼빈의 교회론」, 김영재 역 (서울: 이레서원, 2001), 63-4.

9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권」, 한철하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3.

공동체 운동은 이후의 교회 개혁과 성령 운동에 중요한 기여를 했고, 특히 소그룹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후에 독일의 경건주의로 이어졌다.⁹¹

(1) 필립 제이콥 스페너(Philip Jacob Spener, 1635-1705)

제 2의 종교개혁처럼 여겨지는 경건주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은 ‘스페너’이다.⁹² 그는 1635년 독일의 귀족 가문에서 출생했는데, 그의 가족은 루터파 신앙인이었고, 그는 어릴 때부터 청교도들에 관한 책을 읽었고, 특히 독일의 존 안트의 책 ‘참된 기독교’를 읽고 경건주의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청교도 목회자인 레위스 베일의 ‘경건의 실천’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스페너는 독일 스트라스부르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제네바에 가서 칼빈과 교제하며 스위스의 교회에 대해 연구했다. 1666년 목사 안수를 받고 프랑크푸르트의 목사로 시무했는데, 이곳에서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를 만나고, 자기 견해를 따르는 추종자가 되게 했다.⁹³ 그는 이론에만 치우친 당시의 설교에 감명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의 설교를 신앙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형식적인 종교에 저항하는 자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작은 집회를 만들었는데, 이는 ‘경건회’(Cellegia Pietatis)라고 불렸다. 이 이름 때문에 스페너의 운동은 경건주의로 불렸고, 경건회에서는 신앙적인 독서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스페너가 주일에 네 번 설교하고, 토론했다. 그런데 안트의 설교집에 쓴 서문을 통하여 경건주의의 개요를 밝혔고, 그 글은 1675년에 ‘경건한 열망’(Pia Desideria)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는데, 그 시대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책에는 그 시대 교회에 대한 탄식, 받은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는 일, 만인 제사장 주의가 담겨 있었는데, 형식화된 제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⁹⁴

91) 한정애, 「교회사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64-6.

92)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418.

93) Justo L. Gonzalez, 「기독교사상사 3권」,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부, 1989), 394.

94)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419.

(2)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

스페너에 이어서 독일의 경건주의운동은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로 이어진다. 프랑케는 스페너의 영향을 받았는데,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파울 안톤(Paul Anton)과 함께 ‘콜레기움 필로-비블리쿰’(Collegium philo-biblicum)이라는 소모임을 만들었다. 이것은 매주 모여서 신구약 성경 한 장을 해석하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다. 프랑케가 1689년 라이프치히 대학에서의 행한 성경 강의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청강했으며, 이후 수십 개의 소그룹과 기도 모임이 생겨났다. 이후 프랑케는 할레 대학에서 사역하며 경건주의 운동을 확대하는 일을 했는데, 어린이를 위한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에 힘을 쏟았다. 그때의 학생 중 한 사람이 진젠도르프였고, 그를 통해서 프랑케의 경건주의 운동은 모라비안 공동체로 이어졌다.⁹⁵

(3)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진젠도르프(Nikola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는 법률을 공부하고 드레스덴(Dresden) 궁정에서 섬기던 중에 모라비안들을 만나고, 헤른후트(herrnhut)공동체를 창설한다. 이 공동체는 거의 매일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믿음의 고백을 나누었고, 양육 훈련을 진행했으며, 의식이나 전통보다 살아있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실행했다. 특히 1727년 이 공동체 안에 ‘밴드’(Bande)가 조직되었는데, 그것은 ‘매는 띠’라는 의미를 가지며, 두 세 명, 남녀, 결혼한 사람과 미혼인 사람을 구별하여 조직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저녁에 모였으며, 기도와 죄의 고백,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와 치유를 목적으로 모였다. 그리고 밴드는 이후에 ‘콰이어’(choirs)로 재조직되었다.⁹⁶ 진젠도르프는 교회를 ‘상처받은 양의 작은 무리’, 또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회중’으로 보면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는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과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소그룹 공동체 운동을 펼쳤다.⁹⁷

95) 김문기, 「프랑케와 할레의 경건주의」 (경기: 평택대학교 논문집, 1999), 7.

96) Justo L. Gonzalez, 「현대 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138-39).

97) Arthur J. Lewis, *Zinzendorf the Ecumenical Pioneer*,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138-139,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424에서 재인용.

(4) 요한 웨슬리(John Wesley)의 소그룹 운동

요한 웨슬리는 1703년 영국의 성공회 사제관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의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⁹⁸ 웨슬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Holy Club’이라는 소그룹에 참여했고, 또한 헤른후트 공동체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⁹⁹

웨슬리가 영국 사회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회심자가 나왔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영적 성숙을 돕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고, 대중 집회와 병행하였다. 이때 우연히 시작된 소그룹이 ‘속회’(The Class Meeting)였는데, 1742년 2월 15일에 시작되었다. 이후 속회는 서로 권면하고 충고하며 격려하는 소그룹 형태의 조직으로 발전되었고, 회심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제자 양육의 기능을 감당했다. 또한, 요한 웨슬리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훈련시켰고, 지도자로 성장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속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였다. 이처럼 속회 안에서 핵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더 작은 규모로 조직하여 신앙 훈련을 하고, 상호 교제와 철저한 감독을 받게 했는데, 그 조직은 밴드(Band)라고 불렸다. 웨슬리는 속회와 밴드를 통해 전도와 제자 양육의 기능을 수행했고, 이들 소그룹에서 만인 제사장의 신앙 원리를 따라서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세우고, 봉사하도록 한 것이다.¹⁰⁰

웨슬리의 속회에 대해 조엘 코미스키는 “18세기 말까지 웨슬리는 1만 개 이상의 속회를 발전시켰다. 수십만 명이 여기에 참여했는데, 회심한 사람들의 결신이 대부분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 웨슬리의 속회는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을 감당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말했다.¹⁰¹ 요한 웨슬리는 ‘밴드’와 ‘속회’를 통해서 전통적인 교회가 빠지기 쉬운 교권주의와 제도 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코이노니아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한 것이다.¹⁰²

98) Martin Schmidt, 「존 웨슬리(상)」, 김덕순, 김영선 공저 (서울: 은성, 1997), 60.

99) 김진두, 「존 웨슬리의 생애」 (서울: KMC, 2014), 72-5.

100) Michael Henderson, *A Model for Making Disciples: John Wesley's Class Meeting* (Nappane: Evangel, 1997), 103.

101) Joel Comisky, 「셀 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31.

102)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 75.

4) 현대 시대의 소그룹

현대 교회의 소그룹 운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는 세렌디피티 하우스(Serendipity House)라는 사역 단체를 세워서 평생을 소그룹 운동에 헌신한 라이만 콜만(Lyman Coleman)을 들 수 있다. 그는 1959-1961년 뉴욕대에서 ‘소그룹을 통한 영적성장’(Growth by groups)을 연구했다.¹⁰³ 이 개념이 1972년 로베르타 헤스테네스(Roberta Hestenes)에 의해서 소개되었고, 이후 개인 성경 공부 중심이던 미국 교회에 소그룹 성경 공부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¹⁰⁴

소그룹 운동을 확산시킨 인물로 도슨 트로트만(Dawson Trotman, 1906~1956)도 유명한데, 그는 신앙 훈련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1932년에 미니트맨팀(Minute Men Team)이라는 팀을 구성해서 성경 공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사역이 후에 네비게이트 선교회가 되었고, 이 선교회의 제자 훈련 소그룹 운동은 미국 전역의 캠퍼스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¹⁰⁵ 또 소그룹 사역에 기여한 인물로는 로버트 콜만(Robert E. Coleman)도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제자훈련과 전도학을 가르쳤고, 신학생들과 소그룹으로 교체하면서 전도와 양육, 제자도를 가르쳤는데, 그의 책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전도 계획’¹⁰⁶은 제자훈련의 필독서로 손꼽히며, 소그룹 제자 훈련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현대의 소그룹 운동에 있어서 교회 현장에서 크게 성과를 낸 인물은 한국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설립하여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킨 조용기가 대표적이다. 그는 교회 회중을 소그룹별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구역’ 운동을 시작했다.¹⁰⁷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폭발적 성장에 기여한 ‘구역’에 대한 내용은 1980년에 ‘Successful Home Cell Group’¹⁰⁸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세계에 소개되었다.

미국의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는 ‘셀 교회 지침서’¹⁰⁹를 1990년에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현대 셀 교회의 모든 흐름과 내용을 교과서적으로 정리했고, 국제 터치(Touch)를 설립해서 전 세계에

103) Lyman Coleman, *Serendipity Training Manual for Groups*. Littleton, (Colo.: Serendipity House, 1992).

104)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경기: 소그룹하우스, 2010), 70-1.

105) Betty Lee Skinner, 「도슨 트로트맨」, 번역부 역(서울: 네비게이트, 2007), 86-7.

106) Robert E. Coleman, 「주님의 전도 계획」, 홍성철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107) 김인호, “한국교회 셀 목회의 역사와 과제”, 「목회와 신학」, 2013년 9월, 37.

108) Paul Yonggi Cho, *Successful Home Cell Group*, (NJ: Bridge Publishing Inc, 1981).

109) Ralph W. Neighbour,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서울: 도서출판 NCD, 2000).

셀 사역 운동을 확산시켰다. 이후 조용기와 랄프 네이버로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셀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켰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싱가포르의 로렌스 콩(Lawrence Khong)이 설립한 FCBC교회(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인데 불과 10년 만에 1,000여 개의 셀과 12,000명의 교회로 성장했고,¹¹⁰ 콜롬비아의 세자르 카스텔라노스(Cesar Castellanos)가 1983년에 8명으로 시작한 셀 교회인 ‘보고타 국제은사선교교회’(International Charismatic Mission Church, Bogota, Colombia)¹¹¹는 폭발적인 셀 재생산 사역을 통해 현재 약 48만 명의 성도로 성장했다.

6. 소결론

본 장에서는 ‘소그룹’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을 고찰했다. 먼저, 소그룹에 대한 정의를 살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부터 현대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셀 교회 이론까지 고찰했다.

다음으로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살펴보았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을 고찰하면서 ‘공동체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원리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본연의 모습이었던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의 근거들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것과 나아가 사도행전 이후의 초대 교회들에서 어떻게 소그룹의 원리들이 교회에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신약 성경의 교회들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집과 가정에서 모였던 소그룹 공동체였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초대교회 이후 중세를 거쳐 근대의 경건주의 운동과 종교 개혁,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소그룹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리를 통하여 ‘소그룹’이라는 개념은 이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도 아니며, 한 시대에 유행하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성장의 방편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중세와 종교 개혁 시대를 거쳐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성경적인 개념임을 고찰해 보았다.

110) 싱가포르 신앙공동체 침례교회(FCBC), [온라인자료] <https://www.fcbc.org.sg/>, 2020년 2월 25일 접속.

111) 보고타 국제은사선교교회, [온라인자료] <https://mci12.com/>, 2020년 2월 25일 접속.

제 3 장

전통적 교회에서의 소그룹 활성화와 건강한 교회 성장의 연관성

앞에서는 소그룹에 대한 정의와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 교회에서 소그룹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왜 성경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며, 왜 소그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이 시대 교회의 특징인 ‘전통적인 교회’를 살펴보고, ‘소그룹 활성화’와 ‘전통 교회의 건강한 교회 성장’과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전통적 교회의 특징과 의미

한국 교회는 약 135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전통을 만들어 왔고, ‘전통적 교회’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 교회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다.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 왔고, 고난받는 한국 민족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해왔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 선교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전통 교회의 노력과 공로는 인정받아야 하고, 크게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21 세기 들어서면서 전통 교회는 많은 부정적인 모습을 노출하고 있고, 교회 내 외부의 비판과 문제의식에 직면하며 쇠퇴의 모습을 보인다. 이에 이 장에서는 ‘전통 교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전통적 교회가 마주한 이 시대의 위기와 도전,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전통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방안으로서 ‘소그룹 목회’의 필요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전통적 교회의 의미

‘전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표준국어대사전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이라고 정의한다.¹¹²

초창기에는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시대의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해서 만들어진 제도와 관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되고 제도화되면, 전통은 그 조직과 단체의 가장 우선적인 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릭 워런은 전통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는 “과거를 반복하면서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현재의 정체 현상을 안정적인 상태와 동일시한다”고 지적한다.¹¹³ 이것을 한국 교회에 대입시켜서 살펴보면, ‘전통 교회’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전통 교회는 시간상으로 오래되었다는 의미이다. 한국 사회에는 백 년이 넘는 교회가 많이 있고, 본 연구자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도 70 주년을 앞두고 있다. 둘째로 전통 교회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나름의 제도와 관습,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 교회에서 제도화된 시스템은 어느새 불변의 가치 체계로 제도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다. 셋째로, 전통 교회의 관습과 제도와 시스템이 고착화되면, 교회가 초창기에 가졌던 생명력 있는 믿음과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전통과 반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와 구성원들의 요구에는 부정적이며, 변화보다는 기존 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김덕수는 이러한 전통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추구하는데 한계에 직면해 있고, 성경에 나타난 역동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¹¹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도 반대 세력의 저항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시대의 전통주의적인 사람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마 15:1-3).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고,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더 우선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소멸하고 말았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는 익숙한 것에

112) “전통”, 「표준 국어 대사전」.

113)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교회」,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2009), 93.

114) 김덕수, 「셀 교회 전환과 셀 리더 세우기」 (경기: 도서출판 NCD, 2002), 72.

붙잡히면 성경을 통해 전해진 위대한 전통인 ‘말씀’, ‘사역’, ‘교회’라는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힐 수 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2) 전통적 교회의 긍정적인 가치와 공헌

사실 ‘전통’이라는 것이 모두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회와 조직이 존재하고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전통’이 필요하다. 한재동은 한국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덧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고 흐르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 고리로서 강물이 흐르면서 옛것을 밀어내며 언제나 새롭듯 전통에 근거해서 교회를 갱신해야 한다”고 말한다.¹¹⁵ 다시 말해서 전통은 고리타분한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수천 년 역사의 문화, 언어, 국가, 세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 시대까지 살아남은 본질적 가치이다.

그래서 한재동은 전통을 세대 간에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요, 역동적인 운동으로 가치 있게 평가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을 무조건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배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 역사의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왔다. 그리고 예전과 체계를 세우며 교회의 기틀을 다져왔다. 이런 전통의 바탕 위에서 한국 사회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전통 교회’의 긍정적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교회의 신학적 교리, 학습, 복음 사역을 위한 공동의 가치관과 세대 계승의 기반을 형성하는 전통의 준수는 필요한 것이다.¹¹⁶ 이에 전통 교회의 갱신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국 전통 교회의 긍정적인 가치들을 살펴보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1) 시련의 역사를 극복한 교회

한국의 근현대사는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되어 왔다. 구한말의 쇄국정책과 핍박, 그리고 일제 식민

115) 한재동, “예배 갱신의 내포적 의미와 그 실현범위”, 「신학과 실천」, (1997년, 제 18호), 29-30.

116) Bill Hull,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박경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55.

지배, 한국 전쟁의 아픔, 극심한 가난 등. 한국의 전통 교회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해 왔다. 한국의 전통 교회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도록 격려했다. 또한, 전통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과 시련, 역경을 감수하면서 희생적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 사회와 역사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헌신했다. 한국의 전통 교회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슬픔이 가득한 이 땅에 희망의 복음을 전했고, 세계 교회 역사상 유래가 없는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 냈다.

(2) 가부장적인 문화를 변혁시킨 교회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시작될 당시에 이 사회는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를 배경으로 절대적인 남성 중심이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는 복음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 사상을 전파했고, 정신문화를 개혁하는 데 일조했다. 교회는 여성을 차별하고, 교육하지 않는 사회 구조 속에서 여학교를 세워 여성 리더들을 길러냈고, 성경적인 남녀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교회 내에 여성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만들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이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이면서 또한 신분 차별이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양반과 천민으로 철저하게 구분되었던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는 복음에 입각하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며 평등사상을 전파했다. 특히 한국 교회 초창기에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계급 중에 하나인 백정 신분의 박성춘이 서울 승동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고, 가죽신을 만드는 직업으로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사람인 고찬익이 서울 연동교회의 장로가 된 사건¹¹⁷은 한국 교회가 사회 개혁에 얼마나 크게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의 전통 교회는 세상의 계급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분 차별을 없애며, 교인들의 투표로 장로를 선출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당회 제도와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인들의 대의를 수렴하고, 교회 행정을 처리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확립시켰다.

117) 김수진, 「한국 교회를 섬겨 온 장로열전 1」 (서울: 쿤란출판사, 2014), 14-5.

(3) 사회 윤리의 기준을 제시한 교회

한국 개신교가 전파된 시기는 구한말과 일제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과 유교적인 봉건시대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였다. 이때 한국 전통 교회는 극심한 혼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모호한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해 주었다. 특히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은 그 시대 군중들에게 ‘삶의 회개’를 촉구했고, 교인들이 과거의 부정직과 나태함을 청산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했다. 특히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은 술과 아편, 공창제도를 통하여 한국민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에 저항하여 금주 운동과 순결 운동 등의 절제 운동을 펼쳤고, 기독교 언론을 중심으로 금주와 금연 운동을 벌이며 사회 윤리의 확립과 실천에 앞장섰다.¹¹⁸ 특히 한국에 복음을 전파한 초창기 미국 선교사들은 대체로 복음주의 계열이었는데, 그들은 교회 회중들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윤리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했다.¹¹⁹

(4) 전통 교회의 역사의식

한국의 전통 교회는 일본제국주의의 아래에서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꿈꾸는 희망을 제시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자유를 꿈꾸며 저항하는 독립운동은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었고, 교회는 1919년 3월 1일, 삼일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삼일운동의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증명한다.¹²⁰ 삼일운동은 한국 교회가 어두운 한국 역사 속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준 사건이었다. 또한, 한국의 전통 교회는 선교 초창기에는 선교사들의 후원을 통해서 학교와 병원을 짓고 교육과 의료 선교를 감당하며 사회에 기여했고,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는 해외 교회의 원조를 받아서 다양한 사회복지와 구제 사업을 감당했다. 아직 한국 정부의 복지 정책이 미비했던 시기에 한국 교회는 사회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다.¹²¹

또한, 한국의 전통 교회는 봉건제도에서 식민지로, 다시 군사독재 시대를 거쳐 민주주의 체제로

118) 박용규, 「한국 기독교 교회사 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255.

119) 민경배, 「한국 기독교 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48.

120) 박용규, 「한국 기독교 교회사 2」, 121-2.

121) 정무성, “한국 복지 정책 진단과 교회의 과제”, 「목회와 신학」, (2013년 11월), 214.

넘어가는 과도기에 근대 민주주의의 체계를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하며, 세상에 민주주의를 소개했다. 이처럼 한국의 전통 교회는 암울한 역사 속에서 백성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적인 용기와 힘을 주는 역할을 했다.

(5) 교회 성장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탁월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1885년 개신교가 이 나라에 전파된 후 2005년 대한민국 통계청 발표로 개신교 인구는 약 862만 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18.3%를 차지했고, 가톨릭까지 합하면 29.2%로 세계 선교 역사상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다.¹²² 성장 주의와 기복주의 등 비판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한국 기독교가 이 사회의 중심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전통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땀과 눈물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의 전통 교회는 교회 성장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교육과 계몽 운동, 그리고 빈민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재를 길러내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고, 기독교 윤리를 제시하며 사회를 이끌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국민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이유이고, 이것이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설령 현재 전통 교회에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정신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전통 교회의 공로는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3) 전통 교회의 한계

한국의 전통 교회가 위에 기술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 교회에는 구조적인 경직성과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새로운 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122) 대한민국 통계청,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서울: 통계청, 2006), 2005년 11월 1일 한국의 총인구는 4,728만 명인데, 개신교 인구는 18.3%를 차지했다. (불교 22.8%, 개신교 18.3%, 카톨릭 10.9%).

(1) 경직된 조직과 목회자 중심

흔히 ‘교권주의’라 하면 교단이나 개 교회에서 권력을 독점하며 이기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패권주의’를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제자훈련 전문 사역자로 활동 중인 빌 헐은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만이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을 ‘교권주의’라고 지적한다.¹²³ 한국의 전통 교회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교권주의’이다. 전통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모든 사역을 전부 감당해야 하는 만능인이 되어 버렸다. 설교하고, 목양과 심방을 감당하며,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고, 심지어 재정과 행정까지 담당하는 경영자로서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회자 중심의 사역 구조야말로 시급하게 극복해야 하는 전통 교회의 문제이다.

전통 교회가 초대 교회의 운영 원리를 잃어버리고, 제도화되고 계급화된 중세 교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목회자와 평신도의 이원론적인 사역 구조를 가진 상황이 지속되면, 평신도는 목회자와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때 교회는 평신도들이 그들의 은사와 역량을 발휘하여 함께 교회를 섬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전통 교회에서는 이런 이원론적인 계급 구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¹²⁴ 교회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역이 담임 목회자의 독단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결정되고, 교인들은 단순히 목회자를 따르는 군중으로만 남는다면 그들에게서 주체적인 선택이나 사역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¹²⁵ 이제는 평신도를 군중이 아니라 사역자로 동참시키고 그들의 은사와 능력을 이끌어내서 함께 사역할 필요가 요구되는 시대이다.¹²⁶ 교회는 목회자만의 것이 아니고, 목회자만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다.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부름을 받은 일꾼이며,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사역자이다. 이에 대해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신약 성경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이중 구조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과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123) Bill Hull,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박경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43.

124) 김경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1989, 10), 27.

125) 김삼성, 「셀 교회에서 G-12 교회로」 (서울: 서로사랑, 2003), 38.

126)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31.

말한다”¹²⁷고 주장하며 평신도의 사역 참여가 성경적인 원리임을 역설한다.

(2) 건물과 대그룹 중심

벌코프는 개혁 교회에 대해 “참된 교회의 표지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 선포와 성례전과 권징의 시행’이라는 세 가지”라고 말했다.¹²⁸ 그런데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는 지나치게 건물 중심이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공간으로서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했다. 그러나 신약의 초대교회부터는 공간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¹²⁹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였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참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있지, 공간적 장소인 건물에 있지 않다.

전통 교회가 건물 중심에 치중되는 것은 ‘대그룹 중심’의 예배에 그 원인이 있다.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는 대부분 대그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빌 백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 세기에 이루어진 교회의 성장은 대규모 군중 집회에 의한 대그룹 예배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¹³⁰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실 때 ‘두 날개’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한다. 한쪽 날개는 대그룹 예배의 날개이고, 다른 한쪽의 날개는 소그룹 공동체의 날개를 말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소그룹이라는 한쪽 날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점점 약해졌고, 결국 이 시대에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¹³¹ 이 말은 대그룹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전통 교회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행 2:46).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대그룹으로 교회당에서 만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대그룹 중심의 교회에서는 초대 교회와 같은 풍성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가 불가능하다. 한쪽 날개인 대그룹 예배만으로도 교회는 유지될

127) Howard A.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123.

128) Louis Berkhof, 「조직신학-하」,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834.

129)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패러다임」, 임원주 역 (서울: NCD, 2001), 22.

130) William A. Beckham, 「자연적 부흥」, 이병현, 박경은 역 (서울: NCD, 2001), 41.

131) William A. Beckham, 「제 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0), 32.

수 있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이 운행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¹³² 이제 전통적인 교회는 건물 중심과 대그룹 중심에서 비롯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그룹 예배라는 날개를 통해서 주님의 초월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 공동체라는 날개를 통해서 주님의 친밀한 내재성도 경험해야 한다.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대그룹 예배의 영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형제자매라는 지체 의식을 회복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알고 관심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인간 소외와 개인주의의 시대 속에서 외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평신도들도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며 사역할 수 있는 목양 구조가 될 때 교회는 다시 새로운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도의 한계 및 수평 이동 중심의 성장

이 시대 전통 교회에 나타난 문제 중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인의 ‘수평 이동’ 현상이다. 한국교회 성장 연구소는 2003년에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9개 대도시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수평 이동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76.5%의 교인들이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³ 이 조사에서 특이할 점은 교회를 옮기는 수평 이동이 대부분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로 인해 작은 교회는 성도를 잃고 더 작아지고, 큰 교회는 더욱 커지는 교인 수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중대형교회와 초대교회 교회로 옮겨간 비율이 가장 높았다.¹³⁴ 또한, 이 조사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옮긴 원인으로는 직장 문제(23.1%), 이사 문제(16.7%)와 같이 불가피한 이유도 있지만, 목회자 문제(22.8%), 봉사 문제(8.6%), 인간관계의 갈등(6.7%), 예배 문제(6.0%)와 같은 현재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이유였던 비율이 더 높다. 이것은 교인들이 설교가 탁월하고 잘 알려진 목회자, 더 영적인 안정감과 만족을 주는 교회를 향해 수평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32) Ibid., 89-90.

133) 교회성장연구소, 「교회 선택의 조건- 한국교회 교인 수평 이동에 대한 연구」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35

134) 교회성장연구소는 이 조사에서 중대형교회를 교인 수 1천명 이상, 대형교회는 3천명 이상, 초대형 교회는 1만명 이상으로 구분했다.

한때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보여주었던 한국의 전통 교회는 이제 쇠퇴기에 들어섰다. 교인들은 헌신과 희생보다는 유명하고 편안한 교회를 찾고 있고, 교회는 수평 이동 신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회적 방법을 찾고 있으며, 또 작은 교회들은 기존 교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더 이상 불신자를 전도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있다.¹³⁵

지금까지 한국 전통 교회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전통 교회는 첫째, 경직된 조직과 목회자 중심의 문제를 안고 있고, 둘째, 건물 중심과 대그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셋째, 불신자 전도에 한계를 노출하고, 교인들이 수평 이동 하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시 전통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먼저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을 그들의 은사대로 사역하게 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건물 중심과 대그룹 중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친밀한 인격적 교제와 돌봄의 장을 만들어 주고, 삶 속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공동체 교회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불신자 전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4) 전통적 교회의 소그룹인 구역 제도

다음으로는 전통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서 ‘소그룹의 활성화’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통적인 교회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구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적 교회에도 ‘구역’이라는 이름의 소그룹이 있었는데, ‘구역’은 교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심방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나누어 놓은 제도였다.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고, 장로교회에서는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했고 구역으로 조직되었으며,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는

135) 김명혁, 「한국 교회의 쟁점 진단」 (서울: 규장, 1998), 94

데 크게 기여했다.¹³⁶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는 에베소서 4 장 11-12 절을 근거로 평신도들을 은사에 따라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게 했고, 사도행전 2 장 46-47 절을 근거로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구역’제도를 체계화시켰는데, 구역에 대한 조용기의 책은¹³⁷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를 비롯한 많은 소그룹 전문가들이 현대적인 셀 이론을 연구하는 기초가 되었고, 한국 교회에 구역 제도를 보편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1) 구역의 특징

일반적으로 전통 교회에서의 구역은 주중에 구역원들이 가정에서 모이며, 1 부에는 구역장의 인도에 따라서 가정 예배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2 부에는 식사나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전통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역은 교인들의 집을 기준으로 지역과 거리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구역을 편성하는 이유는 모임과 관리에 용이하기 때문인데, 전통 교회에서 구역 제도가 생겨나고 활발히 진행되던 1970-1990 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했다. 그런데 구역원들의 거주지가 멀리 분산되어 있으면 서로 모임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구역을 편성했다.

둘째, 전통 교회에서 구역을 편성할 때 구역원은 목회자가 그들의 거리와 형편에 따라 임의로 지정하고, 편성했다. 그래서 구역 안에는 각기 다른 연령대의 교인들이 함께했고,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일방적인 편성 때문에 함께 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구역은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세상의 동호회 모임보다 자발성이 부족하고, 결속력이 약한 경우도 나타났다.

셋째, 구역을 이끄는 평신도 리더를 ‘구역장’이라고 불렀는데, 대체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연령이 높은 사람이 구역장으로 임명되었다. 신앙의 연륜에 따라 성경 지식과 목양의 자질이 잘 갖추어진 구역장은 구역을 잘 이끌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성경적으로 구역을 인도하기보다 세속적인 경험과 관심사로 구역을 이끌기도 했고, 교회와 목회자의 의도와 다르게 구역원을 사당화시키거나,

136) 황성철, “전통적 구역 제도의 기여와 한계”, 『목회와 신학』 (1996년 5월), 52.

137) Paul Yonggi Cho, 『Successful Home Cell Group』 (NJ: Bridge Publishing Inc. 1981), 16.

또는 구역원과 마찰을 일으켜서 그들이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2) 구역의 긍정적 가치

한국의 전통적인 구역은 그동안 한국 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구역이 전통적인 교회에 기여한 공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구역장으로 헌신하게 했다. 구역은 관리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안의 작은 모임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한국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는데, 그 중심에는 구역장이 있다. 전통 교회의 목회자들은 구역의 리더인 구역장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데 열정적이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들이 증가했고, 많은 수의 성도들을 목회자가 돌볼 수 없을 때 전통 교회는 평신도 중에서 구역장을 세워서 함께 목양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 특히 구역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아주 좋은 훈련의 장이 되었다. 평신도가 구역이라는 장을 통해서 리더십과 교인 관리, 성경 공부와 목양, 섬김과 봉사 등 여러 가지를 훈련받을 수 있었다.¹³⁸ 이처럼 구역은 평신도가 자기의 은사를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주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만인제사장 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구역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가족 공동체의 역할을 했다. 임석중은 이에 대해 “새로 교회에 나온 새댁의 입덧을 걱정하면서 친정어머니의 마음으로 입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 오는 곳”¹³⁹이라고 전통 교회의 구역을 평가했다. 이처럼 구역은 섬김과 기도가 실행되는 현상이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의 문제를 위해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의 역할을 해 왔다.

셋째, 전통 교회의 구역은 새 신자 정착에 기여했다. 불신자나 수평 이동 신자가 교회에 오게 되면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 전통 교회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구역이다. 구역장이 새 신자를 안내하고 관리하며, 구역원들이 구역 모임 후에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새 신자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영한다. 이렇게 친밀한 공동체를 통하여 새 신자는 자연스럽게

138) 임석중,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28.

139) 임석중, “소그룹을 살리자”, 「월간목회」, (2017년 3월), 21.

교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게 된다.

넷째, 구역은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는 공간이 되었다. 대그룹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다(롬 10:17). 그러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은 신앙 성장에 한계가 있다. 구역은 대그룹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듣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토의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적용점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장점이 있다. 이처럼 대그룹 예배에서 들은 설교 말씀을 구체적인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삶 가운데 경험하는 고민과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3) 구역의 문제점

한국 전통 교회의 구역 제도는 많은 장점과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교회 성장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역이 태동하고 기틀을 갖춘 1970-1980 년대의 시대 상황보다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다. 구역 제도는 농경 사회, 대가족시대에는 유용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고도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고, 부부가 함께 직장을 다니며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이다.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구역 제도의 내용과 형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¹⁴⁰ 이에 더 나은 소그룹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방적인 지역 중심의 구역 편성. 전통 교회는 대체로 교인들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교인들을 중심으로 구역을 편성했다. 즉 구역은 교인들이 사는 지역과 거리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구역 편성에 대해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교인들이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주거지의 위치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모이는 일에 대한 열정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오히려 다원화된 이 시대에는 교인들이 자기들의 욕구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구역장을 선택하고 싶어 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구역원들과 함께하기 원한다.

140) 정근두, “오늘의 구역제도, 왜 문제인가”, 『목회와 신학』, (1996년 5월), 47.

둘째, 행정적인 관리 중심의 구역 운영. 전통 교회에서 구역은 대체로 교인들의 출결석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를 대동하여 교우 집을 방문하고 심방하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목회자가 교인들을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을 최소화하고, 교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적인 역할을 통하여 교회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관리형의 구역 운영의 단점은 전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믿음을 가진 기존 신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에는 충실하지만, 그 모임에 새로운 사람을 초청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배타적인 경우가 있다. 구역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매년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얼굴이 없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모임. 구역 모임이 시작되면 그 형식은 항상 동일하다. 1부 예배 시간에는 구역장이 구역 공과나 주일 설교를 요약한 내용을 전하고, 2부 찬교 시간에는 다과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이런 구역 예배는 구역장에 의한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머무를 뿐이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서로의 삶에 적용하고, 나누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나치게 일방적이며, 지시적이고, 형식적인 모임은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 구역이라는 형식이나 제도 보다 구역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에 한 사람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역 모임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구역장은 소속된 구성원들의 특성, 생각, 동기 등을 구역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¹⁴¹

2. 소그룹 활성화와 ‘셀 교회(Cell Church)’

1) 전통 교회의 갱신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소그룹 활성화’의 필요성

침체와 쇠퇴 일로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를 갱신하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추구할 때, 먼저 ‘교회 성장’이라는 말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는 “교회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영적 교제를 갖게 만들고,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며,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141) 정형권, “구역장 교육, 다시 시작이다. ②구역 모임 달라져야 한다”, 「기독신문」, (2015년 2월 23일).

것이다”라고 교회 성장에 대해서 정의했다.¹⁴² 즉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성장은 외형적으로 크고 거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며, 그렇게 교회로 인도된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이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 성장’에 대한 개념 역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관련이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적으로 성숙해 가고,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과 선교의 역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건강한 교회 성장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외형적 성장보다 내면적 영적 성숙을 추구하며,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가기 위해 회복해야 하는 사역으로 피터 와그너는 ‘소그룹’에 대해서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인들이 축제와 같은 대그룹 예배와 함께 세포 조직과 같은 소그룹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그 소그룹의 예로는 교회학교의 분반 공부, 찬양대, 취미 모임 등이 있다.”¹⁴³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요소로 ‘소그룹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피터 와그너 뿐만이 아니다.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윌로우크릭 교회는 처음에는 대그룹 집회인 구도자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유명해졌지만, 1991년 큰 위기에 봉착했다. 빌 도나휴(Bill Donahue)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었고, 소그룹 부서가 있었지만 10-15%의 교인만 참여하고 있었으며, 교회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했다. 이후 우리 교회는 ‘아무도 결코 홀로 있지 않은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교회 내에 다양한 소그룹 사역을 도입했다.”¹⁴⁴

소그룹과 교회 성장에 대해서 클라이드 레이드(Clride Reid)는 “그룹에는 역동성이 이미 존재하며, 그룹을 하나로 묶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만일 그 그룹의 역동성이 긍정적인 것이면 구성원들은 즐겁고 생산적이며 어떤 상황에도 역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¹⁴⁵고 강조한다. 즉 그의 주장에 따르면

142) Charles Peter Wagner,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San Francisco: Harper, 1981), 75.

143) Charles Peter Wagner, 「교회 성장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9), 147.

144) Bill Donahue &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1-2.

145) Clride H. Reid,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콤팩출판사, 1996), 58-9.

소그룹의 능력을 잘 활용하면 어떤 상황이나, 어디에 있는 교회이든지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고 역동적으로 부흥되며, 엄청난 힘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¹⁴⁶ 이에 보다 구체적으로 전통 교회를 새롭게 하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소그룹’ 사역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새 신자를 효과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하다

처음 교회에 나온 새 신자가 올바른 양육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교육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새 신자는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간다. 그런데 미국의 게리 쿠네(Gary W. Kuhne)는 그의 책, ‘새 신자 양육의 원동력’에서 “새 신자들 가운데 양육을 경험한 사람은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¹⁴⁷ 이것은 전통 교회의 새 신자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준다. 새 신자를 위한 양육 사역이 목회자만의 사역이 될 때는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새 신자에게는 교회에 와서 자신과 공감해 주고, 돌봄과 안내의 역할을 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양육의 가장 좋은 공간은 소그룹이다. 대그룹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양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소그룹이야말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¹⁴⁸

존 멜리슨(John Mallison)은 말하기를 소그룹은 예수님께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이며, 그곳에서의 가르침은 살아 있는 강의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¹⁴⁹ 사도행전 시대의 초대교회도 성전에서 자주 모였지만 실제적인 교제와 양육은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에서 이루어졌다(행 2:42-46). 이처럼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그룹은 학습 효과가 높고, 지식과 삶을 가르치는데 이상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소그룹이 양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으로 편안하며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그곳은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새로운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146) Ibid., 17.

147) Gary W. Kuhne,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1), 15.

148) Bill Donahue, 「빌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 1997), 28.

149) John Mallison, 「생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신재구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5), 24.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소그룹이 구성원들 상호 간에 인격적인 교제와 애정을 갖고, 서로를 향한 동질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영육의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치유를 체험한다(마 18:20). 이처럼 소그룹이 새 신자들을 양육하는 기능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2)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제자훈련을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하다

평신도 지도자에 대해서 먼저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도록 돕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¹⁵⁰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안에 첫발을 내디딘 새 신자가 소그룹이라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고 점점 성장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돕고 인도하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개인의 성장이 일어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만일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양육과 돌봄을 기대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 교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계발하며 그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로 성장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

그런데 평신도를 지도자로 훈련시켜서 사역자가 되게 하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소그룹이다.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그 소그룹을 통해서 새 신자가 양육과 돌봄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제자훈련 전문가인 옥한흠은 “소그룹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훈련시키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¹⁵¹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소그룹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며 지도자로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그룹의 활성화는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150) Bill Donahue, 「월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28.

151)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3), 193.

(3) 성도 간의 인격적인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하다

신약 성경에 소개된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는”(행 2:44-45)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랑의 교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였는데, 오늘날 전통 교회의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 오늘날 전통 교회는 대그룹 중심 교회로 변하면서 같은 교회의 교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청중으로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흩어지는 현실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방법도 놓치고 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영적인 코이노니아, 정신적인 소외와 외로움의 문제를 서로 나누며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 정신적인 코이노니아,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섬기고 나누어주는 물질적인 코이노니아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교회이다. 이런 성도들의 인격적인 코이노니아는 대그룹 속에서 청중으로 있는 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 오직 소그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족과 같은 인격적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¹⁵² 소그룹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¹⁵³ 이처럼 소그룹은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격려와 지혜, 그리고 상호 책임과 용납을 경험하며,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4) 새로운 시대에 맞는 관계 전도를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큰 소원인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는데,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152) Ralph W. Neighbour,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176.

153) 채이석, 이상화 공저,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 하우스, 2005), 64.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전도’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지상교회가 반드시 준행해야 하는 사명이다. 그런데 전통 교회의 전도는 한계에 부딪혔다.

지금까지의 전도 전략은 주로 노방 전도와 대그룹 초청 집회에 초청하는 형식의 전도였는데, 2천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퇴보의 시기를 지나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는 고전적인 형태의 전도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으며, 현대 시대에 새로운 전도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시행하던 밀어붙이는 방식의 노방 전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전도이다.¹⁵⁴

소그룹에는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전도의 효율성이 담겨 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성도들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 방안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모임에 기존 신자만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친구나 이웃을 초청하여 그들의 의문에 답해주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다. 이처럼 소그룹에 친구나 이웃을 초청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 전도’는 대그룹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처럼 소그룹을 통한 관계 전도는 전도되어 오는 사람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도 전략이면서 동시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다.

대그룹 중심의 전도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섬기며, 교회로 초청한 후에도 지속해서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소그룹 중심의 전도는 전도를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며,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을 함께 섬기고, 이후의 정착과 양육과정에도 소그룹에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진다. 그래서 소그룹의 관계 전도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전도에 대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쉽게 전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그룹 자체가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154)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NCD, 2005), 157.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전도 현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전도를 위해서도 소그룹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2) 소그룹 활성화와 건강한 교회 성장

세계적인 교회 성장 연구 기관인 NCD의 슈바르츠는 ‘교회 성장’에 대해 말하면서 “네모난 네 개의 바퀴가 달린 수레에 동그란 바퀴를 가득 싣고서 두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앞뒤에서 끌고 또 밀고 가고 있는 모습”¹⁵⁵을 말한다. 이것은 더는 억지로 끌고 또 민다고 해서 교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슈바르츠는 32개국의 1천여 교회에서 제출한 420만 개의 설문을 토대로 교회의 성장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경적인 원리대로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할 때 교회 성장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성장하는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보다 특별한 8가지 질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전인적인 소그룹’이다. 소그룹 공동체가 전인적으로 활성화되고, 계속 번식할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¹⁵⁶ 이러한 슈바르츠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지도력

슈바르츠는 건강한 교회의 질적인 특성 중에서 첫 번째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말하는데, 소그룹은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공간이 된다.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를 불러서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했고, 그들이 제자의 길을 가며,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가게 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예수님의 소그룹이 사역자를 세우는 소그룹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소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헌신하는 장이 될 수 있다.¹⁵⁷ 실제로 소그룹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은 구성원들의 수준과 성향과 여러

155)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6.

156) Ibid., 32.

157)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253.

가지 기질을 살피면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소그룹에서 지식적인 성경 공부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면서 교인들이 성숙한 사역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그룹을 통해서 열두 명의 제자를 사역자로 길러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소그룹은 교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현장이 된다.

(2) 은사에 따라 사역하는 교회

대부분의 전통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교인들이 가진 은사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교인들 스스로 자신이 가진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목회자가 자기가 목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평신도들이 그 소그룹에서 인격적인 교제와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파악하고 계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소그룹은 전통적인 구역처럼 일방적이고 지시적이며 수동적인 모임이 아니다. 소그룹에 속한 모든 이들을 잠재적인 가능성과 가치를 지닌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에 따라 사역하도록 도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¹⁵⁸

(3) 열정적인 영성 훈련

슈바르츠는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순수한 교리만으로는 교회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없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며, 또한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배울 때 그 교회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¹⁵⁹ 이런 열정적인 영성은 익명의 다수가 모인 대그룹 예배보다 소수의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모여서, 서로의 삶과 문제를 자세히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소그룹에서 훨씬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158)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61.

159)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27.

(4) 생명력 있고 기능적인 조직

전통적인 교회에서 조직은 사역 자체를 위한 굳어진 형태를 띠고 있다. 일을 위해서 조직을 세우고 그 사역을 완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역을 완수하는 것보다 양육과 교제와 전도가 살아 있는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 그 소그룹을 통해서 지도자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낼 수 있고, 그들이 조직의 부서를 맡아서 일할 때 조직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소그룹 안에서의 토론을 통한 목적의 점검과 상호 격려는 사역자들이 더욱더 열정적이고 건강한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5) 영감 넘치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곧 예배자이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다(요 4:23-24). 이런 예배자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¹⁶⁰ 그런데 그 훈련은 소그룹에서 훈련받는 것이 대그룹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대그룹에서의 웅장한 예배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그 감격은 금세 잊힐 수 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 서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에 대한 느낌을 나눌 때 그 의미가 개인적으로 깊이 내면화된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서로 점검하고 격려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영적 예배자’(롬 12:1)로 성장해 갈 수 있다.

(6) 전인격적인 소그룹

슈바르츠에 의하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살아 있는 교회이다.¹⁶¹ 특히 전인격적인 소그룹은 단순히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구성원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160) 이상만, 「교회를 살리는 10 가지 전도습관」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3), 241.

161)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32.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이다. 이러한 소그룹은 점점 확장되고 번식하며, 교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7) 필요 중심적인 관계 전도

소그룹에서는 다양한 전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실제로 전도를 하는 것이며, 그때 교회 성장은 이루어진다.¹⁶² 전통적인 교회에서 실시해왔던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노방 전도는 효과가 매우 적지만, 전도 대상자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관계를 통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관계 전도야말로 이 시대 가장 효율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¹⁶³ 그런데 이 전도 전략은 대그룹보다 소그룹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에서 ‘가정’이라는 뜻의 ‘오이코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더욱더 확장되어 ‘확장된 가족’이나 ‘친분을 가진 집단’을 뜻하기도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오이코스, 즉 확장된 영적인 가족으로 보고 그들을 소그룹으로 인도하는 전도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이코스 전도’는 친분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관계 중심의 생활 전도를 의미한다.¹⁶⁴ 오이코스를 대그룹인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그들을 가정에서 모이는 확장된 가족인 소그룹에 데리고 와서 함께 친교를 나누고 자기가 만난 복음을 나눌 때 전도와 양육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처럼 소그룹은 관계 전도를 위한 최상의 장이 될 수 있다.

(8) 사랑의 관계

슈바르츠는 “진실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로 오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며,

162)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NCD, 2005), 157.

163) Ralph W. Neighbour,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375.

164)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63.

입으로 전하는 어떤 전도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¹⁶⁵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은 목회자가 자기 교회 평신도들의 문제와 아픔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교인들이 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지, 교회의 ‘사랑 지수’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대그룹에서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교회의 사랑 지수는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 다르다. 적은 숫자가 함께 모이는 소그룹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곳에서 개인적인 문제와 아픔, 상처를 나눔으로써 성도들은 진실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소그룹에서 친밀한 가족 관계관 경험할 때 교회는 확장된 가족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교회는 이 사회의 고독과 소외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또다시 찾고 싶은 안식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슈바르츠는 전 세계 1천여 교회를 조사한 후 “성장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랑 지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¹⁶⁶

지금까지 슈바르츠의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이론을 근거로 전인적인 소그룹이 활성화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전인적인 소그룹을 회복할 때, 첫째 평신도들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킬 수 있다. 둘째 성도들을 각자의 은사에 따라 사역하게 한다. 셋째 모인 곳에서 열정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나누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영성 훈련의 장이 펼쳐진다. 넷째 살아 있고 유기적인 조직이 만들어진다. 다섯째 영감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세워낸다. 여섯째 전인적인 소그룹을 통해서 번식이 일어난다. 일곱째 이 시대의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 관계 전도가 활발해진다. 여덟째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된다.

이처럼 교회의 목적을 양적 성장보다 성경적인 원리에 두고, 소그룹 공동체를 회복할 때 교회 안에는 훈련된 소그룹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고,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며, 교회는 더욱더 역동적이고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다.¹⁶⁷

165)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36.

166) Ibid., 36.

167)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 하우스, 2005), 100.

3) 셀 교회(Cell Church)의 다섯 가지 요소

전통 교회에서도 소그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역 또는 소그룹이 존재했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가장 활성화된 소그룹의 모델 중에서 셀 교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대 많은 소그룹 사역 전문가들은 소그룹을 일컬어서 ‘셀(Cell)’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셀이 인체의 기초 단위를 이루는 유기체적인 존재이며,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번식하기 때문이다.

데이빗 핀넬(David Finnell)은 셀을 일컬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섬김과 전도의 목적을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의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했다.¹⁶⁸ 그리고 최상태는 가정 교회의 셀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예배와 가르침과 나눔을 갖고, 전도했던 사역을 교회의 형태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¹⁶⁹

초대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셀 공동체가 이미 그 자체로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을 이미 본 논문의 제 2 장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셀은 일반적으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12 명 이내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정기적인 모임이다. 그리고 셀은 그 안에서 예배와 가르침과 나눔과 전도와 같은 요소가 실행되는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셀 모임은 이미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이에 대해서 싱가포르 신앙공동체 침례교회(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를 이끄는 로렌스 쿵(Lawrence Khong)은 “셀은 이미 교회이다”라고 표현했다.¹⁷⁰

셀은 전통 교회에서 교인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던 조직이 아니다. 셀은 생명력 있는 유기체적이고, 단순한 교제를 위한 모임이 아니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셀 소그룹 안에는 필수적인 다섯 가지의 요소가 존재했다. 셀 교회를 일컬어서 ‘제 2의 종교개혁’이라고 칭했던 빌 백햄 선교사는

168) David Finnell, 「셀 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경기도: NCD, 2009), 28.

169)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66.

170) Lawrence Khong, 「신사도적 셀 교회」,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출판부, 2000), 70.

이것을 손가락에 비유해서 공동체, 전도, 리더십, 책임, 새 가족 양육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설명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동체(Community)이다.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가족이며 신앙 공동체이다(엡 2:19).

둘째는, 전도(Evangelism)이다. 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공동체의 확장된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셀 모임 시간마다 그 영혼을 위해 빈 방석이나 의자를 놓고, 거기에 함께 할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그들을 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창의적인 방법들을 논의하고, 협력한다. 이처럼 외부로 향한 복음 전파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한 채 내부 구성원끼리의 교제만 강조한다면, 그 셀은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셋째는, 리더십(Leadership)이다. 모든 셀 교회에는 건강한 리더가 있다. 전통 교회에 생명력 있는 소그룹이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도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리더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셀에는 또 예비 리더가 있고, 그는 셀 안에서 리더십을 훈련받으면서, 셀이 확대 재생산할 때 새로운 리더로 사역한다.

넷째는, 책임(Accountability)이다. 셀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감당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서로’, ‘피차’라는 개념을 말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골 3:13).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서로 돌보고, 용납하며, 책임지는 것이다.

다섯째는, 양육(Equipment)이다. 셀 교회에서는 새로운 신자가 양육되고, 영적으로 훈련받으며, 리더로 성장해간다. 셀 교회는 확장된 가족의 개념으로, 가정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어른으로 성장해 가듯, 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영적 아비인

새로운 리더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야 한다.¹⁷¹

이처럼 공동체, 전도, 리더십, 책임, 양육이라는 셀의 다섯 가지 요소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케 하고, 분열되고 갈라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남인 사람들이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고, 공동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셀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누며, 서로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고,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성장해가고 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한다. 이처럼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명력 있게 성장하고 번식하는 교회를 셀 교회(Cell Church)라고 부른다.

4) 셀 교회(Cell Church)의 특징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모습대로 회복된 교회 전체를 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각의 활성화된 소그룹 자체를 셀 교회라고 할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몸의 각 지체로 연결된 유기적인 공동체, 즉 셀 교회의 모습을 신약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5-16). 이처럼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유기체적인 코이노니아가 활성화된 교회가 셀 교회이다.

대부분의 전통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예배에 청중으로 참여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각자 흩어져서 독립적으로 생활한다. 이러한

171) 류영모 외, 「셀 리더십으로 살아나는 교회」 (서울: 도서출판 NCD, 2007), 34-8.

대그룹 중심의 교회에서는 결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없고, 교인들이 한 몸으로서의 상호의존과 상호 책임을 경험할 수 없다. 오직 교회 안의 각각의 소그룹이 몸의 셀처럼 제 역할을 감당하고 활성화될 때에 성도들은 그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나눔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를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사역 초점이 소그룹 중심으로 바뀌는 ‘셀 교회’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소그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앞다투어 소그룹 사역을 도입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소그룹 사역이 있는 것과 소그룹이 교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셀 교회’가 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데이빗 핀넬은 “교회들이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소그룹을 가졌다 하더라도 셀 중심 교회와는 다르다”라고 말했다.¹⁷² 이 시대 전통적인 교회가 초대 교회와 같은 공동체성과 역동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가 소그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그룹이 진정으로 활성화된 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건강한 ‘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1) 셀 교회는 소그룹이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된다.

오늘날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체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서로 분리된 채 개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교회 안에 단순히 소그룹 사역을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추가한다고 해서 소그룹의 역동성이 일어날 수는 없다. 교회의 본질로 소그룹을 이해하지 않고, 성장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여긴다면, 그 소그룹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인격적인 나눔과 섬김도 경험할 수 없다. 셀(Cell) 교회는 소그룹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활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을 교회의 본질로 이해하는 교회이다.

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교회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소그룹을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모임에 참여할 때 이전에

172) David Finnell, *Life in His Body* (Touch Publications Inc, 1995), 13.

대그룹 중심으로 신앙 생활하던 때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공동체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소모임을 갖고,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면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용납을 배우며, 상호 책임과 상호 의존을 체험한다. 또한, 함께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간다.

(2) 셀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펼쳐진다

이제까지 전통 교회에서는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은 모두 전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었고, 모든 사역이 진행되었으며, 평신도들은 구경꾼이 되어서 사역을 보조하고 따라가는 정도에 만족했다. 예를 들면 교인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심방 사역도 목회자의 전유물이었고, 평신도들은 목회자를 수행하는 보조 역할을 할 뿐이었다. 이처럼 전통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의 운영과 사역이 목회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셀 교회로 전환되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셀 교회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능동적으로 교회의 사역에 참여한다. 그들이 주체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심방을 담당하고, 목양 사역을 한다. 이때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이 맡은 사역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보조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역이 목회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 사역하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3) 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사역한다

전통적인 교회는 건물 중심이다. 심한 경우에 그들은 교회당 건물만을 교회라고 여기고, 그 공간 안에서만 모든 교회의 사역이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통 교회는 예배와 전도의 개념을 교회당 건물에 오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회당 건물에 와서 대그룹으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했고, 불신자를 교회당으로 초청해서 대그룹 집회에 오게 하는 것만 전도인 것처럼

생각했다.

셀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성도들이 거주하고 모이는 모든 지역을 통해 교회가 존재한다. 즉 교회의 사역이 교회당 건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공동체의 예배와 나눔, 그리고 섬김과 전도와 양육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예배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예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요 4:20).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진정한 가치는 ‘장소’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셨다. 각 지역과 가정에 흩어져서 모이는 소그룹에서도 진정한 예배가 드러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셀 교회는 전통 교회의 ‘오는 교회’라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여 ‘찾아가는 전도’를 지향한다. 성도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불신자들과 만나고, 꼭 대그룹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셀 모임으로 그들을 초청한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소그룹 모임에서도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다. 집과 다양한 공간에서 소그룹 구성원들이 새 가족을 섬기고 돌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도울 수 있다. 셀 교회에서는 예배와 전도와 양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셀 교회는 성도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된다

대그룹 중심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소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들은 주일에 행해지는 대그룹 예배에 참여해서 관람자로 머물다가 돌아간다. 또한, 전통적인 소그룹 모임인 구역은 성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식적인 성경 공부를 행하고, 알림 사항을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위임을 받은 셀 리더와 모든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각자가 맡은 사역을 감당한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과 소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한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

대그룹 예배에 참여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만 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전통적인 교회의 상황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역동적인 교제와 사역의 경험이다. 이렇게 셀 교회는 모든 성도가 교회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역의 주체인 생산자가 되어서 맡은 함께 사역을 감당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교인이 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가 되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마 28:18-20)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성경적인 본질을 찾아가는 일이다.

3. 소그룹 사역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의 사례

이 장에서는 전통 교회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소그룹’을 교회 사역의 중심 원리로 놓고,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한국 교계에서 평가받는 교회 4 개를 선정하고, 각 교회의 소그룹 사역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다음에 소개하는 네 교회의 소그룹 사역은 연구자가 직접 각 교회의 소그룹(셀)을 소개하는 콘퍼런스에 참여하고, 소그룹 현장을 탐방하며 이론과 실체를 분석한 내용이다.

1) 가정 교회 - 일산 화평교회

가정 교회 사역은 미국 휴스턴 서울침례교회를 목회하는 최영기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는 이 교회에 1993년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성경적인 참된 교회 모습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된 교회의 한계를 느끼면서 성경적인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초대 교회를 통해서 평신도 중심의 ‘가정 교회’를 시작했다.¹⁷³ 최영기는 성경적인 세 가지 원리를 가정 교회 사역의 기본 축으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19-20 절의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는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곳이며 그 일을 못하면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제자 삼는 일’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3-15 절의 ‘보고 배우게 하는 가르침’이다. 제자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정 교회 모임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173) 최영기, 「가정 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46-58.

삶을 나누는 데에 초점을 둔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1-12 절의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다. 가정 교회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사역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 집중하며, 교회의 모든 활동 전도와 심방은 평신도들이 담당한다.¹⁷⁴

최영기와 미국 휴스턴 서울 교회의 성공적인 가정교회 사역은 ‘가정교회 사역원’을 통하여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각 대륙에 소개되고, 각 지역에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 콘퍼런스를 열면서 가정 교회 사역을 확산시키고 있다.¹⁷⁵

(1) 일산 화평교회의 가정 교회 전환

일산 화평 교회의 최상태 목사는 1988년에 교회를 설립하고, 당시 유행했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그는 1998년부터 휴스턴 서울 교회의 최영기 목사가 체계화한 ‘가정 교회’ 이론을 기본으로 랄프 네이버, 윌리엄 벡햄의 교회론을 접목하여 ‘가정 교회’ 사역을 시작했다. 전통 교회에서 가정 교회로 전환하면서 3개월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가정 교회에 대한 설교를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예비 지도자 선정, 특별기도회와 지도자 수련회 등을 통하여 ‘가정교회’를 편성하고 시작했다.¹⁷⁶

(2) 가정교회와 구역의 차이

최상태는 전통적인 교회의 구역과 가정 교회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전통 교회의 소그룹 조직인 구역은 거리와 지역에 따라 편성되며, 리더 중심이다. 그리고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주된 내용이고,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와 재편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가정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 가정 교회는 지역이 아니라 관계를 중심으로 편성되며, 리더 중심이 아니라 회원 중심이다. 또한,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사역과 전도와 심방은 평신도들이 분담해서 담당한다. 무엇보다 가정 교회에는 분가와 재생산이 있다.¹⁷⁷

174) Ibid., 48.

175) 가정교회 사역원, [온라인자료] <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 2020년 2월 25일 접속.

176)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64-6.

177) 최상태, “가정교회 소그룹의 특성”, 「목회와 신학」, (2017년 3월), 77.

(3) 가정 교회의 조직

가정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하는데, 목장은 초대 교회처럼 집에서 모여, 12명 이하의 인원으로 조직되고, 그 이상이 되면 지도자인 ‘목자’를 세워 분가시킨다.¹⁷⁸ 또한, 목장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첫째로 섬기는 사람(막 10:44), 둘째 본을 보이는 사람(벧전 5:3), 셋째 기도하는 사람(삼상 12:23)을 기준으로 임명하며, 교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자를 선택한다. 이때 목자는 평신도들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목장 구성원들은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욱 애정을 갖고 목장에 참여한다.¹⁷⁹

(4) 가정 교회의 모임과 진행

가정 교회의 모임을 ‘목장’이라고 하는데 목장 모임은 일반적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열며, 목장원들이 모이면 대부분 함께 식사를 한다. 식사 후에는 찬양을 하고, 다음에는 성경 공부를 20분 정도 하는데, 이때 성경 공부는 목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임명받은 교사가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가정 교회의 특징은 진솔하게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눔 후에는 15분 정도 중보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선교 도전’이라 이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¹⁸⁰

(5) 가정 교회의 효과

일산 화평교회를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소그룹 중심 교회로 운영하는 최상태는 가정 교회 소그룹 사역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⁸¹ 첫째, 모방을 통한 학습이다. 소그룹에서는 지도자의 삶과 인격을 보고 배우며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지도자가 예비된다. 둘째, 치유와 회복이다. 가정 교회 소그룹에서는 내면의 아픔을 말할 수 있는 수용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의

178)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90.

179) 박종국, “제 123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울산 다운공동체교회」, (2014년 10월), 11-2.

180) 최영기, 「가정 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75-80.

181) 최상태, “왜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을 지향하는가”, 「목회와 신학」, (2017년 7월), 106.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다. 셋째,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된다. 소그룹 안에서 각자가 찬양, 친교, 기도의 역할을 맡고 사역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 넷째, 전도의 역동성이다. 가족 같은 소그룹은 새로운 영혼을 집으로 초청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새 가족이 적응하기에 적합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전도에 효과적이다.

(6) 가정 교회 소그룹에 대한 평가

최상태는 지난 20년 가까이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화평교회가 얻은 유익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¹⁸² 첫째, 평신도들이 사역을 통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역량 있는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 둘째, 모든 교인의 사역자화가 이루어졌다. 소그룹에서 지도자 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지닌 은사대로 사역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경꾼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 셋째, 서로 돕고 섬기는 친밀한 가족 의식이 형성되었다. 넷째, 대그룹과 소그룹이 서로 독립적이면서 보완하는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다섯째, 전도가 활성화되었다. 대그룹보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훨씬 많을 정도로 관계 전도가 활성화되었으며, 각 가정교회마다 선교지가 연결되어서 선교에 대한 열정도 고취되었다. 여섯째, 행복한 교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실제로 화평교회에서 등록된 지 1년 미만의 평신도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94%가 교회 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¹⁸³ 일곱째, 균형 잡힌 공동체로 성장했다. 전통 교회가 대부분 여성 중심으로 사역하는 데 비해서 가정교회는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역하게 되었고, 남성 성도들의 출석도 증가했다.

이처럼 가정 교회 소그룹을 통하여 교회가 얻는 긍정적인 유익들은 크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 가정 교회 유형이 쉽게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부부가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가정 교회는 부부가 함께 모이고, 남녀가 함께 모이는데, 유교적인 영향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부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아픔과 속 사정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또 부부가 함께 참여하지 못한 채 홀로 참여하는 성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182) 최상태, “가정 교회 소그룹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언”, 「목회와 신학」, (2017년 8월), 116.

183) Ibid., 117.

2) 안산 동산교회의 ‘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안산동산교회’는 1979년에 김인중 목사가 7명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매 주일 장년과 교회학교 학생이 약 1만 5천 명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다. 김인중의 안산동산교회 목회는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1기는 1979년-1989년까지로, 사영리 전도와 다락방 목회라는 전통적인 방식의 목회였다.¹⁸⁴ 2기는 1990년-2001년까지로, 제자 훈련 중심의 목회였다. 그리고 3기는 2002년-2009년까지인데, 이전까지의 목회 방향을 ‘셀 목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것은 공동체성과 성령의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제자 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었고, 새로운 목회에 대한 대안이었다.¹⁸⁵ 김인중은 셀 전환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회가 커지면서 말씀의 실천이 부족하고, 다락방이나 순과 같은 소그룹에서의 돌봄을 향해 교회가 나아가지 못하며, 적은 숫자의 오래된 교인들만 참여하는 현상이 생겼다. 이런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목회의 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셀 목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셀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새로운 목회 철학이자 틀이었다.”¹⁸⁶

(1) 셀의 8 가지 핵심가치

안산동산교회의 셀은 8 개의 핵심가치를 가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⁸⁷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복음으로 새 신자를 낳고 그들을 돌보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하며, 또한, 성도들은 셀 소그룹인 다락방에서 가족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셀 교회의 가장 우선시되는 핵심가치인 것이다.

“둘째,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섬김은 셀의 핵심이고,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다. 셀 교회에서 종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¹⁸⁸ “셋째, 우리는 동등한 인격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 장 21 절-6 장 9 절에 근거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

184) 박용규,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경기: 큰숲, 2009), 317.

185) 안산동산교회, “셀 컨퍼런스 큰숲 비전 축제”, 「기독신문」, 2005년 11월 24일.

186)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08), 13-4.

187)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 자료집」 (경기: 안산동산교회 미래목회연구소, 2009).

188)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61.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난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고백이다. “넷째,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각자에게는 주어진 사역이 있는데, 지체들이 고유의 기능을 잘 감당하면 온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영혼에 관심을 쏟고,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하며, 한 영혼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야 한다. “여섯째, 우리는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김인중은 그의 책에서 “교회는 복음을 따라서 만민을 향한 열정을 품어야 한다”¹⁸⁹ 고 말하며,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곱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셀 교회는 목마른 자, 약한 자, 눌린 자를 자유를 얻게 하며 복음으로 섬겨야 한다. “여덟째,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2) 셀의 정의와 특징

안산동산교회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셀’에 대해서 밝히는데, “셀이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처소이며, 또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 공동체”로 소개한다. 또한, “셀(cell)은 모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 아래에서 서로의 덕을 세우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¹⁹⁰

또한 동산교회는 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동산 교회의 셀은 첫 번째, 셀의 본질을 추구하고, 두 번째, 나눔을 통한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세 번째 셀 교회의 비전이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평신도에게 흘러가고, 마지막으로 ‘큰 숲’ 운동을 통하여 셀 정신을 모든 지역 교회로 흘러보내는 것이다.¹⁹¹

189) Ibid.,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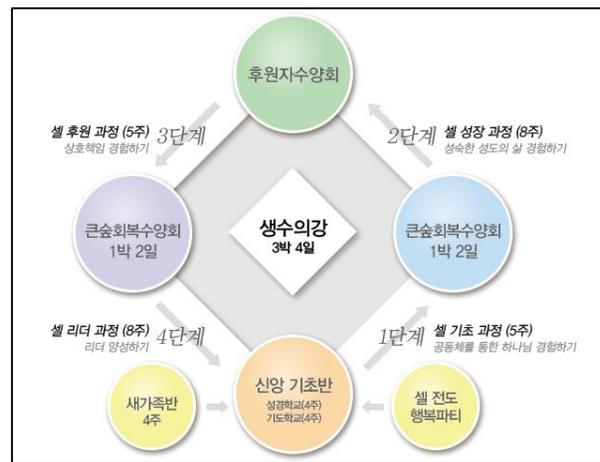
190) 안산동산교회, [온라인자료] http://www.d21.org/02cell_training/cell_intro.aspx, 2020년 2월 25일 접속.

191)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 자료집」 (경기: 안산동산교회 미래목회연구소, 2009).

(3) 셀 양육 과정

안산동산교회는 셀 양육 과정은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만인 제사장 신학에 기초한 양육 체계이다. 1 단계로 셀 기초과정, 2 단계로 셀 성장 과정, 3 단계로 셀 후원 과정, 4 단계로 셀 리더 과정이 있으며, 각 단계 사이에는 함께 함축하며 진행되는 수양회가 있는데, 그것을 ‘큰 숲 양육 과정’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¹⁹²

<그림 1> 안산동산교회 큰 숲 양육 과정



이러한 양육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개인적인 회심을 지나서 영적 아이로 거듭나고 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나아가 셀 공동체의 돌봄 가운데 영적 아이는 청년으로 성장하고, 영적 청년에서 영적 아버지로 성장하여 나중에는 셀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 영적 아이는 자연적인 전도를 통해서 공동체로 들어온 새 가족을 말하며, 그들은 1 단계 셀 기초 과정의 교육을 받고, 내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죄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며 온전한 제자, 즉 영적 청년으로 자라게 된다. 그리고 3 단계 셀 전도 과정과 수양회를 통해서 관계 전도를 배우고, 4 단계 셀 리더 과정을 통해서 셀을 이끄는 리더인 영적 아버지로 준비된다.¹⁹³ 즉 동산 교회의 셀은 불신자를 전도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도록 돕고, 나아가 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리더로

192) 안산동산교회, [온라인자료] http://www.d21.org/02cell_training/celltraining_intro.aspx, 2020년 2월 25일 접속.

193)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 자료집」 (경기: 안산동산교회 미래목회연구소, 2009).

성장하게 하는 양육 구조를 지니고 있다.

(4) 셀 모임과 4W

안산동산교회의 셀 모임은 주로 금요일에 이루어지며, 성도들의 집에서 모임을 한다. 낮에 모이는 셀은 주로 가정주부들이 많고, 밤에 모이는 셀은 직장인들이 많다. 또 부부 셀, 개척 셀, 특별 셀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런데 안산동산교회가 시행하는 셀은 전통 교회의 구역과는 다르다. 구역이 인도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면서 진행된다면 셀의 핵심은 ‘함께 셀을 경험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안산동산교회의 셀은 4W 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것은 **Welcome**(환영과 소개), **Worship**(찬양과 경배), **Word**(말씀), **Work**(사역-기도)의 네 가지를 말한다.¹⁹⁴

(5) 동산교회의 셀에 대한 평가

안산 동산교회의 셀은 ‘교제’ 중심의 소그룹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산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자훈련 중심의 교회로, 또다시 친교와 교제를 강조한 셀 교회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형식적인 소그룹을 나눔과 친교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셀로 바꾸어 냈다. 동산교회는 역동적인 셀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유익을 얻었다. 동산교회가 전통적인 형식을 셀로 전환해서 성공했다는 점은 나름의 긴 역사가 있는 전통적인 교회들도 셀 사역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무엇보다 안산 동산교회는 ‘큰 숲’ 운동을 통하여 다른 지역 교회들이 셀을 시도하고, 셀 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셀 경험 세미나’와 ‘셀 콘퍼런스’, ‘생수의 강’ 같은 공개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셀 사역에 대한 이론과 실제 방법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여 셀 목회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고, 셀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부교역자들의 강의를 통하여 셀 전환의 방법들을 습득한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셀 전환을 통해서 자기 교회가 얻은 유익을 다른 교회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동산 교회의 정신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4) 송창근, 「셀 교회로 교회 영성을 회복하라」 (서울: 두란노, 2009), 132-3.

3) 대전 제자들교회의 '전도 소그룹'

제자들교회는 김동현 목사에 의해 1995년 설립되었는데, 설립 초기에는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사역했고, 2000년 1월부터 가정 교회를 도입했으며, 2002년부터는 전도 소그룹으로 전환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이에 제자들교회의 성장을 견인해 온 전도 소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자들교회의 핵심가치

제자들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사명 선언을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7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이다. 둘째는, 주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이다. 셋째는, 구원받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제자훈련이다. 넷째는, 지역 사회와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봉사이다. 다섯째는, 목장에서 나누는 사랑의 교제이다. 여섯째는,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돕는 가정 사역이다. 일곱째는, 성도들이 온 세상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선교사 파송이다.¹⁹⁵

(2) 전도 소그룹의 배경

제자들교회는 초창기부터 제자훈련과 가정 교회를 시행하여 많은 열매가 있었다. 그러나 가정교회를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이 하나둘 발견되었다. 부부가 함께 모이는 특성상 내면적인 깊은 나눔을 하지 못하고, 번식이 느리다는 것이었다. 특히 전도 행사를 하면 약 20% 정도의 교인들만 참여하며, 전도대 또한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 2002년에 한국 NCD의 전도 소그룹 세미나에 참여하고, 전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도는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고정 관념이다. 사람들은 가까운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이웃에게 집중해야 한다. 둘째, 전도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다. 사람들은 사랑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195) 제자들교회, [온라인자료] http://www.jejas.or.kr/?page_id=468, 2020년 2월 25일 접속.

그릇된 편견이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많이 알수록 그만큼 빨리 신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럿이 함께 불신자들을 만나야 한다. 김동현은 위와 같은 잘못된 전도에 대한 세 가지 편견을 깨닫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 안의 소그룹을 2002년부터 전도 소그룹으로 전환하게 된다.¹⁹⁶ 제자들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원인은 이전에 축적된 제자훈련과 가정교회의 역량도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전도 소그룹’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전도 소그룹의 내용과 실제

제자들교회가 밝히는 전도 소그룹의 5 단계는 다음과 같다.¹⁹⁷

<그림 2> 제자들교회 전도 소그룹 5 단계



첫째, 기도하는 단계이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전도 소그룹은 첫 주간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7명의 전도대상자를 작성하고, 소그룹 안에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기도해야 한다. 이때 특별새벽기도회나 저녁 예배, 목장 예배에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섬김의 단계이다. 전도 대상자 중에서 한두 명을 만나서 일대일 관계를 만들고 두 가지를 실천한다. 하나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때 전도 대상자와 영화나 연극 관람을 하기도 하고, 가족과 만남을 갖기도 한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섬기는 것인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배려하는 것이다.

셋째, 전체 소그룹에서 함께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관계를 맺는

196) 김동현, 「제자들교회 전도 소그룹 이야기」 (서울: NCD, 2005), 8.

197) 제자들교회, [온라인자료] <http://www.jejas.or.kr/>, 2020년 2월 25일 접속.

과정이다. 두 번째 섬김의 단계가 일대일의 관계였다면, 세 번째 관계는 공통점을 가진 여러 사람이 함께 관계를 맺고 섬기는 것이다.

넷째, 초청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정중하게 초청한다. 그리고 초청잔치에서 간증할 간증자를 선정하고, 기도한다. 간증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말해야 한다.

다섯째, 목장 초청이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교회의 대그룹 집회에 나오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고, 섬김을 통해 친밀해진 소그룹 목장으로 초청해서 작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소그룹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이자 은혜가 넘치는 곳임을 보여주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 초청 잔치를 위해서는 정성껏 실내 장식과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식사 후에는 마음 열기와 환영 노래가 진행되고, 이어서 간증자의 간증, 그리고 리더의 기도로 마무리된다.

(4) 제자들교회의 전도 소그룹에 대한 평가

제자들교회는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 전도 소그룹을 시행하기 전인 2001년에 등록한 새 신자는 185명이었는데, 전도 소그룹을 시행한 후 새 신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591명의 새 신자가 등록했으며, 새 신자의 정착률도 이전에 30% 미만이던 것이 전도 소그룹 이후에는 7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래서 전체 출석 교인의 수도 2001년에는 263명이었는데, 2006년에는 900명으로 3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소그룹 목장의 숫자도 시작할 당시의 20 개에서 2006년에는 68 개로 증가하였다. 제자들교회는 이처럼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했지만,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질적으로도 성숙해졌는데, 한국 NCD 가 2003년에 실시한 ‘건강한 교회 설문 조사’에서 8 가지 항목의 평균 점수가 98 점에 달할 정도로 교회의 건강성을 평가받았다.¹⁹⁸ 제자들교회가 기존의 가정교회 소그룹을 전도 소그룹으로 전환하고 이처럼 많은 열매와 교회 성장을

198) 김동현, 「제자들교회 전도 소그룹 이야기」, 8.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역과 행사를 전도 소그룹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고, 전도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담임 목회자가 목회의 전 일정을 전도 소그룹에 집중했기 때문에 전도 소그룹의 성공이 가능했다.

둘째, 전도 소그룹의 성공은 리더에게 달려 있다. 제자들교회는 리더인 목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도 소그룹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목자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과정을 14 주 동안 진행했다. 이처럼 먼저 소그룹 지도자들에게 목회자의 철학과 전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전도 소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과 이해를 심어주었을 때 그들이 역동적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었다. 특히 제자들교회는 평신도들을 철저히 훈련시킨 후에 목장의 목자로 임명할 때, 마치 선교사 파송식과 같은 파송식을 주일 예배 시간에 갖는데, 이것을 통해 목자는 목양에 참여하는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임명된 소그룹 리더들이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전도 소그룹은 성공할 수 있었다.

셋째,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전도의 열매 부분인 초청에 집중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도 소그룹은 열매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1-4 단계의 전체 과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불신자에 대한 충분한 기도와 사랑의 관계 형성, 섬김을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불신자를 목장에 초청할 수 있고, 나중에 교회에 정착하는 일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제자들교회가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양적인 성장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서 내적인 성숙을 함께 이루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자칫 ‘불신자 전도’에 치중하다 보면 소그룹 안에서 기존 교인들이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코이노니아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하며, 그 안에서 친밀한 가족 의식을 경험하면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전인적인 소그룹’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4) 부산 풍성한교회의 ‘셀 교회’

부산 풍성한교회(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91)는 김성곤 목사에 의해 1994년에 설립되었다. 그는 1년에 5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한국 전통 교회의 현실 앞에서 ‘성경적인 건강한 셀 교회’를 이루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셀 교회를 시작했다.¹⁹⁹ 처음에는 장년 20여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로 시작되었지만 ‘셀’ 사역을 통하여 불신자 전도와 양육에 집중했고, 큰 열매와 성장을 거두었다. 이러한 풍성한교회의 ‘셀 교회 사역’은 교회 설립 초기에는 ‘D12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지만, 현재에는 ‘두 날개 프로세스’로 바뀌었다. 풍성한교회의 셀 사역 경험과 방법을 소개하는 ‘두 날개 사역 콘퍼런스’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매년 50여 개국에서 참가자들이 오고,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로 동시통역이 진행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1만 6천여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참가했다.²⁰⁰ 또한, 풍성한교회는 일 년 동안 여섯 번의 집중 훈련을 개최하는데, 이 집중 훈련에 참여하여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배우고,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 교회가 5,500여 교회에 이른다. 한국 교회의 수를 약 5만 개로 추산할 때 10% 이상의 교회들이 풍성한교회의 ‘셀 사역’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²⁰¹

(1) 사명 선언

김성곤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2천 2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명 선언문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²⁰² 여기서 ‘2만’은 셀 모임의 영적 아비인 리더 2만 명을 세운다는 의미이고, ‘2천’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2천 명의 선교사를 의미한다. 풍성한교회는 이처럼 불신자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고,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은 전 세계 선교지에 보내는 것을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199)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NCD, 2009), 21-33.

200) 두 날개선교회, [온라인자료] http://two.or.kr/?page_id=10939, 2020년 2월 24일 접속.

201)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경기: 소그룹하우스, 2010), 169.

202) 풍성한교회, [온라인자료] http://new.psh.or.kr/?page_id=516, 2020년 2월 26일 접속.

(2) 풍성한교회의 8 가지 핵심 가치

풍성한교회는 교회는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8 가지의 핵심 가치를 제시한다.²⁰³ 첫째, 필요 중심적 전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 방법을 말한다. 특히 지역 속에서 복음의 행복을 전하는 행복 모임은 이 전도 전략의 핵심이다. 둘째, 영감이 넘치는 예배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 되는 교제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합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갖는 교제를 의미한다. 넷째, 전인적인 셀 가족 모임이다. 풍성한교회는 셀을 일컬어서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셀 가족들이 주중에 함께 만나서 사랑과 돌봄을 나누며,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모임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셀 가족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다섯째, 열정적인 영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말씀에 헌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성을 말한다(막 12:30-31). 여섯째, 2 만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이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행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곱째, 은사 중심적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기쁨으로 사역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은사 발견세미나를 실행하고, 은사 배치 부서를 두어서 성도들이 은사와 적성에 따라 사역하도록 돕는다. 여덟째, 세계 비전 2 천 선교이다. 풍성한교회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핵심 선교지 12 전선을 선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3) 풍성한교회의 ‘셀(Cell)’

풍성한교회의 목회와 사역을 관통하는 ‘셀(Cell)’의 개념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ur)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이다. 랄프 네이버는 그의 책 ‘교회는 어디로 가야

203)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9-23.

하는가?’에서 셀 교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⁰⁴ 첫째는 전통적인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서서히 시들어 가고 있고, 둘째는 세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맞추어 그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 ‘배가 증식’의 전도를 하는 교회가 필요한데 전통적인 교회의 구조와 목회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목회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셀 교회’라는 새로운 목회 모델을 제시했다. 말하자면 셀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다.²⁰⁵

김성곤은 랄프 네이버의 셀 이론과 벡헴의 두 날개 이론, 슈바르츠의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을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셀 교회’를 만들었다. 풍성한교회의 셀(Cell)은 전인적인 소그룹을 지향하는데, 김성곤은 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체험하는 공간이며, 전도와 정착, 양육과 훈련, 번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족 모임”이라고 정의한다.²⁰⁶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육신의 가족이라면, 셀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영적인 가족이다. 김성곤은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인다.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은 서로를 책임진다. 가족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눈다”라고 셀 가족의 지향점을 설명한다.²⁰⁷

풍성한교회의 사역 초창기에는 20여 명의 성도를 행복 모임(open cell)이라는 소그룹으로 편성했는데, 이 소그룹에서 양육과 교제와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또 다른 셀로 번식되면서 교회가 성장했다. 교인이 많아지면서 1997년부터 순 모임을 조직하고, 행복 모임과 순 모임을 묶어서 본격적인 셀 그룹 체제를 만들었는데, 셀 안에서 전도와 정착, 양육과 훈련, 그리고 재생산과 번식이 일어나는 전인적인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4) 두 날개 프로세스

풍성한교회는 주중에 성도들이 셀 별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204) Ralph W. Neighbour,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31-7.

205) 김한옥, 「셀 목회의 유형과 핵심」 (경기: 실천신학연구소, 2006), 18.

206)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28.

207) Ibid., 129.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는데, 풍성한교회 교인들은 셀 가족 모임을 인도하는 사역자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는데, 김성곤은 이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탁월한 사역자로 태어나며, 그들을 통해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한다.²⁰⁸ 풍성한교회의 셀 리더를 세우는 프로그램인 ‘두 날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풍성한교회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²⁰⁹



전도 - 셀 교회의 전도 방법은 불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이다.²¹⁰ 풍성한교회는 전도를 위한 ‘행복 모임²¹¹’이라는 전도 소그룹을 운영하는데, 친분이 있는 불신자를 초청하여 12 주 동안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한다. 행복 모임의 특징은 팀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에 은사가 없고 소극적인 사람들까지 쉽게 전도에 참여할 수 있다.

새 가족 -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잘 정착해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새 가족 섬김이를 배치한다. 새 가족 섬김이는 1 명의 새 가족을 3 주 동안 만나서 그가 잘 정착하도록 책임지고 양육하고 돕는다. 그리고 4 주째는 새 가족이 담임목사와 만나서 목회 철학과 비전을 듣게 된다.

208) 김성곤, 「D12 비전」 (부산: 도서출판 두 날개, 2007), 12-3.

209) 풍성한교회, [온라인자료] http://new.psh.or.kr/?page_id=6046, 2020년 2월 26일 접속.

210)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34-5.

211) 이전에는 ‘열린모임(open cell)’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행복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양육 - 새 가족 과정을 마친 성도가 1 일의 ‘회복캠프’²¹²를 통해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14 주 과정의 ‘양육반’에서 영적인 성장을 위한 돌봄을 받게 된다. 양육반은 소그룹으로 진행되는데,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과 같은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부터 시작해서 목상과 전도, 셀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령 충만한 셀 사역자가 되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²¹³

제자 - 제자학교’²¹⁴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제자로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과정이며, 전도를 위한 소그룹인 행복 모임의 리더를 세우는 과정이다. ‘제자의 삶’²¹⁵이라는 교재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셀그룹’을 배우고, 나아가 백지 전도법과 행복 모임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재생산 -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다”는 구호를 가지고 있다. 재생산 과정은 제자 대학 1 학기와 2 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1 학기는 셀 리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훈련하는 과정이고, 2 학기는 셀 리더가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셀 리더로 세우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²¹⁶

(5) 풍성한교회의 ‘셀 교회’ 사역과 ‘두 날개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풍성한교회는 셀 모임에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또 다른 셀 그룹을 인도하도록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인 ‘두 날개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서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돕고, 셀 리더로 사역할 수 있게 한 것은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그룹을 통하여 전도와 양육에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만드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풍성한교회의 두 날개 사역의 긍정적인 요소와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도 상존한다. 이광수는 두 날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가 ‘재생산’에만 그쳐서

212) 이전에는 ‘전인적 치유 수양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213) 김성곤, 「양육의 기쁨」 (부산: 도서출판 두 날개, 2003), 5.

214) 이전에는 ‘제자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215) 김성곤, 「제자의 삶」 (부산: 도서출판 두 날개, 2003).

216) 김성곤, 「재생산의 삶」 (부산: 도서출판 두 날개, 2007).

양적인 성장은 가져올 수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섬김과 봉사와 선교라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도외시한 경향이 있다”²¹⁷고 평가한다. 채이석도 풍성한교회의 두 날개 프로세스가 끼친 전통 교회의 갱신과 셀 사역의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영적 재생산이 없는 교인은 교회에 암세포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도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한다.²¹⁸

4. 소 결론

3 장의 연구를 통하여 전통적 교회의 긍정적인 부분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전통 교회는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이어온 이 땅에 사회, 문화적으로 큰 공헌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도화되면서 목회자 중심의 사역, 대그룹 중심의 사역, 수평 이동 중심의 성장과 전도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통 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그룹의 활성화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면 새 신자 양육, 평신도 제자훈련, 성도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관계 전도를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슈바르츠의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에 비추어서 소그룹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자연적이고 건강한 교회 성장이 뒤따라온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이어서 소그룹이 활성화된 ‘셀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셀 교회는 소그룹이 교회의 가장 중점적인 사역이 되고,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펼쳐지며, 건물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역이 진행되고, 성도들이 청중이 아니라 사역하는 자, 곧 생산자로 변화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의 한계 상황 속에서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네 교회의 사례를 찾아보았다. 첫 번째로 미국의 한인 교회에서 시작된 셀 교회 운동인 '가정 교회'를 도입한 일산 화평교회를 살펴보았는데, 화평교회는 가정 교회를 통하여 역량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데 성공했고, 또한 가정이 회복되고 남성 성도들이 증가했으며,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전통 교회가 대체로 남녀가 구별된 모임을 하는 것에

217)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 140.

218)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경기: 소그룹하우스, 2010), 178.

비해서 가정 교회는 부부, 남녀가 함께 모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영향력이 남아 있는 전통 교회의 상황이라면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안산 동산교회의 ‘셀’을 살펴보았다. 동산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말씀의 실천이 부족하고, 인격적 돌봄과 공동체성이 부족한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셀 교회’를 시작했고, ‘큰 숲 양육 과정’을 만들어서 성도를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리더로 사역하게 했다. 특히 동산교회의 ‘셀’은 ‘친밀한 교제’를 가장 강조하는데, 셀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강화되고, 전도의 동력을 얻어서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 번째로 대전 제자들교회의 ‘전도 소그룹’은 전통 교회의 대그룹 전도, 노방 전도가 한계에 부딪힌 현실을 극복하고자 시도한 소그룹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회의 ‘전도 소그룹’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전도가 가능하고, 교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전통 교회들에 큰 동기 부여가 된다. 그러나 전도에만 집중한 소그룹의 목적과 방향성 때문에 기존 교인들의 내면을 어루만지고,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코이노니아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네 번째 부산 풍성한교회의 ‘셀 교회’를 살펴보았다. 한국 교회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을 ‘셀’ 사역으로 돌파하고자 설립된 교회로서, ‘두 날개 프로세스’라는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평신도를 셀 사역자로 세우고, 소그룹 관계 전도를 통해 역동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 풍성한교회의 셀 사역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회 성장의 모델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전도를 강조하고, 번식이 일어나지 않는 셀을 배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셀 사역이 양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성경적인 교회론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위에 소개한 4 교회의 공통점은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전통적인 교회의 한계와 현실을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특히 전도가 한계에 부딪히고, 형식적인 교제만 진행되는 전통 교회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셀 사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역동적인 교제와 나눔을 회복했고, 전도의 재활성화를 이루었으며, 교회 성장이 멈춘 시대 상황 속에서 건강한 교회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은 이 시대의 전통 교회에 좋은 대안과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가 이들 4 교회의 사역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점은 각 교회의 셀 사역이 추구하고, 집중하는 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화평교회의 ‘가정’, 안산동산교회의 ‘교제’, 제자들 교회의 ‘전도’, 풍성한교회의 ‘제자훈련과 번식’이 그러한 점이다. 각 교회의 고유한 상황이 다르고, 교인들의 배경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도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각 교회의 셀 유형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또한, 위에서 지적했듯이 각 셀 유형의 장단점도 발견된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와 사역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의 4 개 교회의 셀 유형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상황과 형편에 맞게 받아들이고, 탁월한 강점을 수용하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적용한다면 셀 사역의 활성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4 장

설문 조사와 분석

1. 설문 조사

1) 설문의 목적

이 설문 조사의 목적은 본 연구자가 2013년 1월에 본 교회에 부임하여 2020년 현재까지 담임 목사로 사역 중인 포항성동교회의 소그룹 사역을 점검하고, 소그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목회적 방안들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 설문 조사를 통해서 평신도들의 교회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개선점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그룹 사역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소그룹과 평신도 훈련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교회의 건강한 지도력 개발과 소그룹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설문 참가자

본 설문 연구는 본 연구자는 현재 시무하고 있는, 약 350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포항성동교회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에 대상자라고 고려된 포항성동교회에 출석하는 20세~80세까지의 성인 교인 중 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여 80명을 연령층 별로 선정하였다. 그중에서 설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26명을 제외하고, 최종 54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3) 설문 조사 방법

설문 조사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리버티 대학교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를 통하여 승인을 받은 설문동의서(Consent Form)와 인쇄된 설문지를 제공하고, 본 설문 조사의 취지와 목적인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응답을 해야 함을 설명한 후, 교회의 각 시설에서 참여자 자신이 설문지에 직접 기재하는 자기 기입식으로 진행되었고, 소요 시간은 약 40분 정도였다.

4) 설문 내용과 구성

본 설문지에 담긴 질문은 총 30 문항으로 되어 있고, 27 문항은 객관식이며, 3 문항은 주관식이다.

<표 1> 설문지의 문항 구성

순번	구분	세부 내역	문항 수	문항 번호	비고
1	일반적 현황	성별, 연령	2	1-2	
		신앙 연수	2	3-4	
		만족도	1	5	
		교회의 장단점	5	6-10	
2	소그룹	소그룹 참여 여부	4	11-14	
		소그룹 유형	1	15	
		참여 이유와 유익	2	16-17	
		소그룹 개선 방안	1	18	
		리더에게 필요한 것	1	19	
		원하는 소그룹	1	20	
3	평신도 훈련	훈련 참여 여부	1	21	
		훈련의 유익	1	22	
		훈련의 필요성	1	23	
		훈련의 유형과 참여	2	24-25	
		소그룹 리더 용의	2	26-27	
4	소그룹 활성화	소그룹과 영적 성장	1	28	
		소그룹 활성화 방안	2	29-30	

본 설문지의 내용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교회 생활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조사했다. 두 번째는 소그룹 참여 여부와 참여하는 이유와 유익, 리더에 대한 기대, 앞으로 개설되기 원하는 소그룹 유형을 조사했다. 세 번째는 평신도 훈련에 관한 부분이며, 훈련에 대한 참여 여부와 유익, 필요성, 리더로 사역할 의향 등을 조사했다. 네 번째는 교회와 개인의 성장과 소그룹의 상관관계,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이 담겨 있다.

2. 설문 결과와 분석

본 연구는 설문 데이터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5.0 Version 으로 분석했고, 설문 결과는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빈도 분석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X^2 (카이스퀘어)를 이용한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1)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교회 생활에 관한 질문

<표 2> 인구 사회학적 영역

사례 수		빈도수	백분율(%)
		54	100%
성별	남성	20	37.0
	여성	34	63.0
	소계	54	100.0%
연령별	20 대	9	16.7
	30 대	9	16.7
	40 대	9	16.7
	50 대	12	22.2
	60 대	12	22.2
	70 대	3	5.6
	소계	54	100.0%
신앙 생활을 한 기간	3 년이내	1	1.9
	3 년-5 년	1	1.9
	5 년-10 년	5	9.3
	10 년이상	6	11.1
	20 년이상	41	75.9
	소계	54	100.0%
본 교회에 출석한 기간	3 년이내	4	7.4
	3 년-5 년	2	3.7
	5 년-10 년	13	24.1
	10 년 이상	10	18.5
	20 년 이상	25	46.3
	소계	54	100.0%

응답자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많으며, 50 대 이상과 이하가 비슷했고, 신앙생활 횟수에서는 20 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 온 응답자가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또한, 본 교회에 출석한 기간도 5 년 이상이 24.1%, 10 년 이상이 18.5%, 20 년 이상이 46.3%, 합이 88.9%였고, 출석 기간이 5 년 이하는 11.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새 가족이 적고,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된 교인이 많으며, 불신자 전도가 잘 진행되지 못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 본 교회의 장점 (복수 응답)

본 교회의 장점	빈도수	백분율(%)
		54
예배	39	73.6
교회학교 교육	1	1.9
성경 공부	3	5.7
선교	18	34
소그룹 공동체	2	3.8
기타	3	5.7

포항성동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본 교회의 장점, 즉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객관식 응답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응답자들은 포항성동교회가 ‘예배’(73.6%)와 ‘선교’(34%)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본 교회의 장점이 ‘소그룹 공동체’라고 응답한 사람은 3.8%, 성경 공부는 5.7%로 나타났고, ‘교회학교 교육’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가장 낮은 비율인 1.9%에 불과했다.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3 명이었는데, 그 내용은 ‘오랜 전통’, ‘봉사’, ‘가족 같은 친밀함’이다.

이 조사를 통해서 포항성동교회가 ‘예배’와 ‘선교’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 공부, 소그룹, 교회학교 교육은 부족한 부분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4>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

본 교회의 개선할 점	빈도수	백분율(%)
		50
예배	2	4.0
교회학교	12	24.0
국내 선교	4	8.0
해외 선교	1	2.0
소그룹 공동체	24	48.0
건물	6	12.0
기타	1	2.0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영역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48%의 교인들이 ‘소그룹 공동체’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24%는 ‘교회학교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건물’은 12%, 국내 선교는 8%, 예배는 4%였다. 즉 교회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소그룹 공동체’, ‘다음 세대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5> 포항성동교회의 지상 명령 실천 정도

교회의 지상 명령 실천 정도	빈도수	백분율(%)
		53
매우 잘하고 있다	3	5.7%
잘하고 있다	21	39.6%
보통이다	22	41.5%
못하고 있다	7	13.2%
매우 못하고 있다	0	0.0%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마 28:19-20)인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역’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는 5.7%, ‘잘하고 있다’는 39.6%였다. 조사에 따르면 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5.3%였고, ‘보통’은 41.5%, ‘못하고 있다’는 13.2%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통해서 본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앞으로 그 사역을 더 잘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교회가 더 추가해야 할 사역이나 노력해야 할 점 (주관식)

본 교회에 더 추가되기 원하는 사역 및 노력	빈도수
<p>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더 많은 목장이 준비되기 원함, 목장 모임에서 사랑의 교제, 리더 훈련 체계화, 전 교인의 목장 참여율을 높이는 교육 필요</p>	10 명
<p>더 다양한 성경 공부 개설 제자 훈련을 통한 사역자 양성 큐티와 나눔을 통한 영적 성장 기회 기존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상담 기술 교육, 리더의 자세와 자질 함양</p>	6 명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앞으로 더 추가하기를 원하는 사역에 대해서 응답자가 설문지에 주관식으로 직접 기술하도록 했는데, 총 16 명이 응답을 했다. 교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 중 하나는 ‘소그룹’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성경 공부’에 대한 요구였다.

10 명의 응답자가 ‘소그룹’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기를 원했다. 이 응답을 한 사람들은 소그룹 목장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목장 개설, 리더 훈련의 체계와 교인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은 교회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집중해야 사역이 ‘소그룹 사역’임을 밝히고,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한 교회의 지원과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요구는 성경 공부(제자훈련)에 대한 요구였는데, 6 명의 응답자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리더 교육, 리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종합해 보면 교인들은 교회에 더 추가해야 할 사역이나 노력으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성경 공부 훈련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원했다.

2)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유와 유익에 관한 질문

<표 7> 본 교회 소그룹 참여 여부

연령대	소그룹 참여 여부		전체
	예	아니오	
20 대	8	1	9
	88.9%	11.1%	100.0%
30 대	5	4	9
	55.6%	44.4%	100.0%
40 대	5	4	9
	55.6%	44.4%	100.0%
50 대	10	2	12
	83.3%	16.7%	100.0%
60 대	11	1	12
	91.7%	8.3%	100.0%
70 대	3	0	3
	100.0%	0.0%	100.0%

70 대 100%, 60 대 91.7%, 20 대 88.9% 순으로 소그룹 참여율이 높았다(전체 평균 77.8%). 이를 통해서 노년층과 청년부 셀이 가장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회 전체적으로 소그룹 참여율이 높은 편이지만, <표 4>에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개선점’으로 ‘소그룹’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48%였던 것을 보면, ‘소그룹’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소그룹에 불참하는 이유

연령대	시간이 없어서	유익이 없어서	리더와의 갈등	기타	전체
20 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30 대	1	1	0	1	3
	33.3%	33.3%	0.0%	33.3%	100.0%
40 대	2	0	0	2	4
	50.0%	0.0%	0.0%	50.0%	100.0%
50 대	0	0	1	1	2
	0.0%	0.0%	50.0%	50.0%	100.0%
60 대	0	0	0	1	1
	0.0%	0.0%	0.0%	100.0%	100.0%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1 명이 응답했는데, ‘시간이 없어서’(4 명), ‘유익이 없어서’(1 명), ‘리더와의 갈등 때문에’(1 명)라고 답했고, ‘기타 이유’는 5 명이였다. ‘기타’는 구체적으로 구성원과의 갈등(2 명), 관심 부족(2 명), 가족의 반대(1)였다.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20 대 1 명, 40 대 2 명이였다. 그 외에 30 대 1 명은 유익이 없어서, 50 대 1 명은 리더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소그룹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이 없는’ 교인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과 ‘리더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소그룹에 무관심한 교인들에게 소그룹의 필요성을 알리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문제가 해결될 경우 소그룹에 참여할 의사

연령대	문제가 해결될 경우 소그룹에 참여할 의사		전체
	예	아니오	
30 대	4	0	4
	100.0%	0.0%	100.0%
40 대	3	1	4
	75.0%	25.0%	100.0%
50 대	2	0	2
	100.0%	0.0%	100.0%
60 대	1	0	1
	100.0%	0.0%	100.0%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인 ‘시간이 없어서’, ‘유익이 없어서’, ‘리더와의 갈등’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그룹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 명 외에는 모두 소그룹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교회가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해서 소그룹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면, 소그룹 참여율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도들이 소그룹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개선되면 앞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설문을 통해서 전통 교회의 소그룹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표 10> 소그룹 활동 참여도

소그룹 참여 여부	빈도수	백분율(%)
		54
적극적(매주 참여)	22	40.7
보통(한 달에 1번 정도)	17	31.5
가끔(2-3 달에 1번 정도)	3	5.6
불참	12	22.2

소그룹 활동 참여도는 응답자의 40.7%가 '매주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31.5%는 '한 달에 한번 참여', 가끔은 5.6%에 불과했으며, 불참은 22.2%였다. 응답자의 72.2%가 한달에 1번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소그룹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11> 참여해 본 소그룹 유형 (복수 선택)

소그룹 유형 (복수 응답)	빈도수	백분율(%)
		51
여성 목장 모임	22	43.1
연령별 모임 (신도회)	32	62.7
사역 활동 부서	20	39.2
양육 훈련(성경 공부, 새 가족부)	8	15.7

교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해 본 소그룹의 유형을 묻는 질문인데, 52 명의 응답자에게서 82 개의 빈도가 나왔으므로 두 가지 이상의 소그룹을 경험해 본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인들이 참여해 본 소그룹으로는 '연령별 모임'(신도회)이 62.7%로 가장 많았고, '여성 목장'이 43.1%였으며, 사역 부서가 39.2%였다.

<표 12>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유 (복수 선택)

소그룹 참여 이유 (복수 선택)	빈도수	백분율(%)
		41
따뜻한 교제	36	87.8
중보기도	7	17.1
성경 공부	4	9.8
기타	5	12.2

<표 13>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유 - 연령별 (복수 선택)

연령대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유				전체
	따뜻한 교제	중보기도	성경 공부	기타	
20 대	5	0	1	2	8
	62.5%	0.0%	12.5%	25.0%	100%
30 대	4	2	1	1	5
	80.0%	40.0%	20.0%	20.0%	100%
40 대	5	2	2	0	5
	100.0%	40.0%	40.0%	0.0%	100%
50 대	9	2	0	0	9
	100.0%	22.2%	0.0%	0.0%	100%
60 대	10	1	0	2	11
	90.9%	9.1%	0.0%	18.2%	100%
70 대	3	0	0	0	3
	100.0%	0.0%	0.0%	0.0%	100%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에 참여한 모든 연령대가 ‘따뜻한 교제’를 가장 높은 비율로 답했는데, 응답자 41명 중에서 36명, 즉 87.8%였다. 따뜻한 교제를 선택한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70대는 100%, 60대는 90.9%, 50대는 100%, 40대 100%, 30대 62.5%, 20대 62.5%였다. 이 조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뜻한 교제’이며, 이것은 모든 연령대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중보기도’가 소그룹 참여의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30 대와 40 대가 높았는데, 각각 40%였고, 50 대는 22.2%였다. 다음으로 ‘성경 공부’는 40 대가 40.0%, 30 대가 20.0%, 20 대가 12.5%였다.

<표 14> 소그룹 참여의 유익 (복수 선택)

소그룹에 참여해서 얻는 유익	빈도수	백분율(%)
		51
따뜻한 교제	39	76.5
중보 기도	13	25.5
성경 공부	4	7.8
기타	7	13.7

과거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소그룹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묻는 질문으로 두 가지 이상 복수 선택을 허용했다. 응답자의 76.5%가 ‘따뜻한 교제’라고 대답했고, 다음은 중보기도가 25.5%, 성경 공부는 7.8%였다. 이 조사를 통해서 교인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기대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성도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어 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5>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복수 선택)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빈도수	백분율(%)
		49
따뜻한 교제	26	53.1
중보기도	11	22.4
성경 공부	7	14.3
지도자 훈련	14	28.6
기타	2	4.1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응답자의 53.1%가 ‘따뜻한 교제’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전 질문에서 ‘따뜻한 교제’는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유’의 87.8%, ‘소그룹 참여의 유익’의 76.5%였다.

다음으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지도자 훈련’이 28.6%로 뒤를 이었고, 이어서 ‘중보 기도’가 22.4%, ‘성경 공부’가 14.3%였다.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따뜻한 교제’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1%인 것을 볼 때, 성도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소그룹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교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코이노니아가 더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6> 소그룹 리더에게 필요한 부분 (복수 선택)

필요 부분	빈도수	백분율(%)
	53	%
성경 지식	9	17.0
기도 생활	29	54.7
봉사 정신	17	32.1
상담적 노력	10	18.9
기타	4	7.5

소그룹 리더에게 필요한 부분으로는 ‘기도 생활’이 5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봉사 정신’이 32.1%였다. 이어서 ‘상담적 노력’이 18.9%, ‘성경 지식’이 17%였다.

이 조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소그룹 리더에게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은 기도하는 리더,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리더를 가장 많이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앞으로 교회에 조직되기 원하는 소그룹 (주관식)

조직되기 원하는 소그룹 (30 명)	빈도수
운동모임: 골프, 산악회, 등산, 족구, 축구	8 명
성장기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학부모 모임	8 명
부부가 함께하는 소그룹	7 명
큐티(QT) 나눔	3 명
악기 연주	2 명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 소그룹	2 명

소그룹 참여율을 더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교인들에게 어떤 소그룹이 더 조직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응답자들은 골프나 등산, 축구와 같은 ‘운동 소그룹’이 만들어지기를 원했고(8 명),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학부모’ 소그룹이 생기기를 원했다(8 명). ‘부부가 함께 하는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고(7 명), 그 외에도 큐티, 악기 소그룹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전통 교회의 소그룹(구역)은 대체로 여성 모임에 국한되어 있는데, 각 세대의 기호나 요구 사항이 반영된 다양한 소그룹이 만들어진다면, 교인들의 소그룹 참여율은 더 높아지고, 더욱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평신도 훈련에 관한 질문

제 3 부는 평신도 훈련에 대한 조사인데, 평신도 제자 훈련과 소그룹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소그룹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조사이다.

<표 18> 평신도 제자훈련 참여 경험 여부

제자 훈련에 참여해 본 경험	빈도수	백분율(%)
		53
있다	39	73.6
없다	14	26.4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실시한 평신도 제자 훈련(성경 공부)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에 과반수가 훨씬 넘는 73.6%의 응답자가 평신도 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6.4%가 제자 훈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전통 교회 교인들이 제자 훈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평신도 훈련의 유익

평신도 훈련에 참여해서 얻은 유익	빈도수	백분율(%)
		39
영적 성장	26	66.7
위로와 격려	10	25.6
교회에 대한 소속감 증대	12	30.8
기타	2	5.1

평신도 훈련을 통한 유익으로는 응답자의 66.7%가 ‘영적 성장’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소속감 증대(30.8%), 위로와 격려(25.6%)라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서 제자 훈련의 가장 큰 유익은 참여자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0> 평신도 훈련의 필요성에 동의 여부

교회와 소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평신도 훈련이 필요한가?	빈도수	백분율(%)
	53	100%
매우 그렇다	22	41.5
그렇다	26	49.1
잘 모르겠다	5	9.4
아니다	0	0.0
기타	0	0.0

교회와 소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평신도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가 41.5%, ‘그렇다’가 49.1%였다. 이를 합하면 긍정적인 답변은 90.6%였다.

이 답변을 위의 <표 19>에서 제자 훈련의 유익이 자신의 영적 성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였던 것과 연계해서 볼 때, 평신도 제자 훈련은 참여자 각 개인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그 사람이 소그룹 리더로 사역하는 소그룹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21> 리더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평신도 훈련 (복수 선택)

훈련 교육	빈도수	백분율(%)
	53	%
기도 훈련	20	37.7
성경 공부	24	45.3
리더십과 상담 훈련	23	43.4
소그룹 운영기술	17	32.1
기타	0	0.0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성경 공부’가 45.3%, ‘리더십과 상담’이 43.4%, ‘기도 훈련’이 37.7%, ‘소그룹 운영 기술’이 32.1%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은 대체로 비슷했는데, 이는 소그룹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지적, 정적, 의지적인 모든 부분이 함께 계발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준비할 때는 모든 영역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2> 소그룹 리더로 사역할 의사가 ‘없는’ 이유

이유	빈도수	백분율(%)
		4
나이	0	0.0
건강	0	0.0
시간이 없어서 (직장 관계)	2	50.0
영적인 부족함	2	50.0

소그룹 리더로 사역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4 명이 응답했는데, ‘직장 관계로 시간이 없어서’(2명), ‘영적인 부족함’(2명)이라고 답변했다.

이 조사를 통해서 교인들의 성장을 돕고, 소그룹 공동체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훈련과 사역에 참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그룹 활성화에 관한 질문

<표 23> 소그룹의 필요성

소그룹의 필요성	빈도수	백분율(%)
		53
매우 그렇다	29	54.7
그렇다	21	39.6
보통이다	3	5.7
필요 없다	0	0.0

소그룹이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5%가 ‘매우 필요하다’, 39.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합하면 소그룹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94.1%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였다. 이 조사를 통해서 교인들의 대부분이 소그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복수 선택)

연령대	필요 요소					전체
	담임목사 철학	리더의 노력	다양한 소그룹	성도들의 참여	기타	
20대	1	1	0	7	0	9
	11.1%	11.1%	0.0%	77.8%	0.0%	
30대	1	2	2	5	1	8
	12.5%	25.0%	25.0%	62.5%	12.5%	
40대	2	3	1	7	0	9
	22.2%	33.3%	11.1%	77.8%	0.0%	
50대	1	6	1	4	0	12
	8.3%	50.0%	8.3%	33.3%	0.0%	
60대	3	5	1	8	0	11
	27.3%	45.5%	9.1%	72.7%	0.0%	
70대	2	1	0	1	0	3
	66.7%	33.3%	0.0%	33.3%	0.0%	

교회에서 소그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며 복수 선택을 허용했다. ‘성도들의 참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 대 77.8%, 30 대 62.5%, 40 대 77.8%, 60 대 72.7%였다.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를 전체 연령대의 평균으로 보면 제 1 순위가 ‘성도들의 참여’(61.5%), 제 2 순위는 ‘리더의 열정과 노력’(34.6%), 제 3 순위는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관심’(19.2%)이었다.

그러나 전체 연령대의 시각과는 달리 50 대는 ‘성도들의 참여’(33.3%)보다 ‘리더의 열정과 노력’(50.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0 대는 66.7%가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5) 교차 분석의 결과

(1) 연령별 교회 신앙생활 만족도

<표 25> 연령대에 따른 본 교회 신앙생활 만족도

연령대	만족도				전체	x ² (p-value)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20대	2	5	2	0	9	
	22.2%	55.6%	22.2%	0.0%	100.0%	
30대	1	6	2	0	9	
	11.1%	66.7%	22.2%	0.0%	100.0%	
40대	2	5	2	0	9	
	22.2%	55.6%	22.2%	0.0%	100.0%	
50대	0	10	2	0	12	
	0.0%	83.3%	16.7%	0.0%	100.0%	
60대	3	7	2	0	12	
	25.0%	58.3%	16.7%	0.0%	100.0%	
70대	1	0	2	0	3	
	33.3%	0.0%	66.7%	0.0%	100.0%	

연령에 따른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 여부를 상관관계로 분석했는데, ‘매우 만족’과 ‘만족’, 두 의견을 합쳐서 볼 때 50대와 60대의 만족도가 83.3%로 가장 높았다. 20대에서 40대는 77.7%~77.8%로 비슷했으며, 70대가 33.3%로 가장 낮았다. ‘불만족’ 항목에 응답한 사람은 없었고, ‘보통’은 70대가 가장 높았고(66.7%), 20대부터 40대까지는 나란히 22.2%였으며, 50대와 60대는 16.7%로 가장 적었다.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x²(카이스퀘어) 분석 결과 유의 수준인 p 값이 0.490으로 0.05보다 높게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교회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0대와 60

대가 가장 높고, 70 대가 가장 낮으며, 20대에서 40대까지는 중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추정으로는 50대와 60대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그들이 현재의 교회를 이루기까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세대이며, 지금도 중추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그 다음 세대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출석 기간에 따른 교회 신앙생활 만족도

<표 26> 출석 횟수에 따른 본 교회 신앙생활 만족도

출석 횟수	만족도				전체	x ² (p-value)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3년 이내	1	3	0	0	4	6.197 (0.625)
	25.0%	75.0%	0.0%	0.0%	100.0%	
3년-5년	0	2	0	0	2	
	0.0%	100.0%	0.0%	0.0%	100.0%	
5년-10년	2	10	1	0	13	
	15.4%	76.9%	7.7%	0.0%	100.0%	
10년 이상	2	5	3	0	10	
	20.0%	50.0%	30.0%	0.0%	100.0%	
20년 이상	4	13	8	0	25	
	16.0%	52.0%	32.0%	0.0%	100.0%	

출석 횟수에 따른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 여부를 상관관계로 살펴볼 때,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비율은 출석한 지 3년 이내와 3년~5년까지의 응답자들이 100%로 가장 높았고, 5년에서 10년까지가 92.3%, 10년~20년까지는 70%, 20년 이상은 68%였다.

'불만족'은 없었으며,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년 이상 32%, 10년~20년은 30%, 5년-10년은 7.7% 순이었다.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χ^2 (카이스퀘어) 분석 결과 유의 수준인 p 값이 0.625로 0.05 보다 높게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신앙생활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 비율은 출석한 햇수가 짧을수록 높고, ‘보통’은 출석 햇수가 많을수록 높았다.

이 조사를 통해서 교회에 출석한 기간이 짧은 교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출석한 기간이 오래된 교인들의 ‘보통’을 ‘만족’과 ‘매우 만족’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령대에 따른 리더 양성을 위한 평신도 훈련 참여 용의

<표 27> 연령대에 따른 리더 양성을 위한 평신도 훈련 참여 용의

연령대	참여 용의				전체	χ^2 (p-value)
	매우 그렇다	그렇다	기회가 되면 참여	없다		
20대	0	2	5	2	9	24.439 (0.058)
	0.0%	22.2%	55.6%	22.2%	100.0%	
30대	1	5	3	0	9	
	11.1%	55.6%	33.3%	0.0%	100.0%	
40대	3	4	2	0	9	
	33.3%	44.4%	22.2%	0.0%	100.0%	
50대	6	5	0	1	12	
	50.0%	41.7%	0.0%	8.3%	100.0%	
60대	3	5	3	0	11	
	27.3%	45.5%	27.3%	0.0%	100.00%	
70대	0	0	2	0	2	
	0.0%	0.0%	100.0%	0.0%	100.0%	

연령에 따른 교인들의 ‘소그룹 리더 훈련에 참여할 의사’를 상관관계로 분석할 때, ‘훈련 참여 의사’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해서 50대가 91.7%로 가장 높고, 40대는 77.7%, 60대는 72.8%, 30대는 66.7%이며, 20대는 22.2%, 70대는 0%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χ^2 (카이스퀘어) 분석 결과 유의 수준인 p 값이 0.058 로 0.05 보다 높게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제자 훈련 참여 의사’는 50 대, 40 대, 60 대 순으로 높고, 20 대와 70 대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20 대(55.6%), 70 대(100%), 30 대(33.3%) 순으로 높았다.

이 조사를 통해서 훈련 참여 의사가 높은 연령층인 50 대, 40 대, 60 대를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행할 방안을 준비하고, ‘기회가 되면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20 대, 70 대, 30 대를 대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연령대에 따른 소그룹 리더로 사역할 의향

<표 28> 연령대에 따른 소그룹 리더로 사역할 의향

연령대	참여용의				전체	χ^2 (p-value)
	매우 그렇다	그렇다	기회가 되면 참여	없다		
20대	0	3	3	3	9	27.688 (0.024)
	0.0%	33.3%	33.3%	33.3%	100.0%	
30대	0	6	2	0	8	
	0.0%	75.0%	25.0%	0.0%	100.0%	
40대	0	4	5	0	9	
	0.0%	44.4%	55.6%	0.0%	100.0%	
50대	4	7	0	1	12	
	33.3%	58.3%	0.0%	8.3%	100.0%	
60대	2	5	4	0	11	
	18.2%	45.5%	36.4%	0.0%	100.0%	
70대	0	1	2	0	3	
	0.0%	33.3%	66.7%	0.0%	100.0%	

연령에 따른 교인들의 ‘소그룹 리더로 사역할 의향’을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친 포괄적인 긍정 답변은 50 대가 91.6%로 가장 높았고, 30 대는 75.0%, 60 대는 63.7%, 40 대는 44.4%였으며, 20 대와 70 대는 33.3%였다.

χ^2 (카이스퀘어) 분석 결과 유의 수준인 p 값이 유의 확률이 0.024 로 유의수준 0.05 보다 작았으며

로 연령대에 따른 소그룹 리더 사역 참여 의향 조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소그룹 리더로 사역할 의향의 정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리더로 사역할 의향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 대(91.6%), 30 대(75%), 60 대(63.7%) 순이었으며, 40 대와 20 대는 리더로 사역하겠다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회가 되면 참여’는 40 대가 55.6%, 20 대가 33.3%로 응답했는데, 이들도 여건이 된다면 소그룹 리더로 사역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사를 통해서 소그룹 리더로 사역할 의향이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비교적 젊은 세대인 40 대와 20 대를 차세대 리더로 세우기 위해 여건과 기회를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소결론

성동 교회 교인들의 설문지를 분석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갖게 되었다.

첫 번째, ‘동 연구는 새 신자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지상 명령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정체된 전통 교회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 사회학적 영역’의 조사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 이상이 된 성도가 75.9%, 10년-20년까지가 11.1%에 달하며, 5년 미만의 성도는 3.8%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소그룹’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평신도들의 소그룹 참여 현황과 소그룹 활성화 방안을 알 수 있었다. 포항성동교회의 교인들은 77.8%가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특히 20대의 청년층은 88.9%, 노년층인 70대 100%, 60대 91.7%가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연구자의 추정으로는 청년부의 셀, 노년층의 실버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한 응답이 ‘따뜻한 교제’였는데, 40대, 50대, 70대가 100%, 60대 90.9%, 30대 80.5%, 20대 62.5%가 ‘따뜻한 교제’를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유로 응답했다. 이것은 연령을 초월하여 가족 같은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55%(30명)이 다양한 소그룹이 조직되기를 원했는데, 이를 통해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령과 취미, 문화에 맞는 소그룹이 조직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동 연구는 소그룹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따뜻한 교제'라는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령과 문화에 맞는 소그룹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동 연구는 소그룹 활성화와 제자훈련의 밀접한 연관성을 확인했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으로 영적 성장(6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리고 소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평신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90.6%가 동의했으며, 훈련 내용으로는 성경 공부(45.3%), 리더십과 상담(43.4%), 기도(37.7%), 소그룹 운영 기술(32.1%)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리더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교인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고, 소그룹이 더욱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숙한 리더를 세워내는 양육 훈련 체계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일이 꼭 필요한 과제임을 확인한 것이다.

네 번째, 교인들에게 '소그룹 리더로 사역할 의사가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서 50대의 91.6%, 30대의 75.0%, 60대의 63.7%, 40대의 44.4%가 사역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것은 전통 교회의 평신도들이 사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기회와 사역의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평신도를 효과적으로 훈련시키고, 영혼 구원과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함을 알게 해 준다. 또한, 많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의지가 있다는 점은 전통 교회에서 역동적인 소그룹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초대 교회와 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희망적인 부분이다.

제 5 장

소그룹 활성화와 셀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

앞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시무하고 있는 포항성동교회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그룹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전통 교회에서 소그룹이 왜 필요하고, 평신도들은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제시하는 생생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참여자의 90% 이상이 소그룹이 필요하며, 유익하다고 답했다. 또한, 참여자의 90% 이상이 앞으로 소그룹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성도들의 참여(61.5%), 리더의 역할(34.6%), 담임목사의 역할(20%)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 조사의 결과에서 보듯 성도들은 소그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소그룹이 활성화된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이제 본 장에서는 전통적 교회인 포항성동교회에서 역동적이고 건강한 셀이 살아 있는 ‘소그룹 활성화’를 이루고,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이루며,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셀의 운영 지침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적인 ‘구역’과는 다른 ‘셀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그 운영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셀의 비전과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 셀의 비전인 예배와 교제, 전도와 양육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리더십을 공유해야 한다. 리더는 모든 참여자가 주인 의식을 갖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분담해야 한다. 특별히 예비 리더에게도 역할과 권한을 적절히 위임해 주고, 훈련의 기회를 주어서 후에 리더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느 한 사람이 나눔을 독점하지 않도록 발언의 기회를 골고루 주어야 한다. 넷째, 셀 분위기를 밝게

해야 한다. 셀 모임 시에는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보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하고,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셀은 인간의 모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도우심이야말로 성공적인 셀 교회의 원동력이다. 셀 모임에 성령이 개입하시도록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할 때 셀 교회는 풍성해진다.²¹⁹

1) 셀 교회의 리더십

셀 교회에서 셀 리더들이 공동체 사역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갈 때 발휘하는 능력이 리더십인데, 그것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세상의 조직에서는 부하가 리더를 섬긴다. 지도자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고 군림하며, 대접을 받는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완전히 정반대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27). 예수께서는 만유의 왕이지만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리더십’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즉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며,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회의 최상위 리더인 담임목사와 당회가 먼저 종이 되어 섬겨야 하고, 그 섬김의 리더십이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흘러가야 한다. 이에 대해 최영기는 이렇게 말한다. “휴스턴 서울 교회에서는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교인들의 신뢰가 절대적이다.”²²⁰ 이처럼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사역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목양 사역을 펼쳐갈 평신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체득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담임목사의 권한을 위임받고 동일한 목회 철학을 펼치는 소그룹 리더들을 존중한다. 그런데 어떤 리더보다 자기들을 위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리더를 신뢰하고 따라갈 것이다. 이때 소그룹 활성화는 가능해지고, 셀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 교회를

219)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171

220)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 86-7.

소그룹 중심 교회로 전환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가지는 바로 종의 리더십을 가진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내는 일이다. 담임목사를 통해서 종의 자세를 보고 배운 사람들이 또다시 섬김의 리더로 세워져서 소그룹 사역을 감당해 갈 때 그 교회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셀 리더의 자격

셀 교회의 소그룹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리더가 되어 이끌어간다. 리더는 “그 모임을 주관하고, 영향을 끼치는 자”²²¹이며,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른길로 안내하는 자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전담 목회자만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셀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가 리더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소그룹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며,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12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처럼 소그룹을 활성화하고, 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리더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리더의 영향력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다. “리더십은 추종자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다. 리더는 무엇을 하든지 처음에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결국 영향을 받는다.”²²² 예수님도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마 15:14).

소그룹 중심 교회에서 리더의 영향력은 너무나 지대하다. 리더 한 사람에 따라서 그 소그룹 전체가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셀 교회의 성패는 올바른 리더를 세우는 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소그룹(셀)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초대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울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행

221) Maxwell, J,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강준민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7), 16.

222) Ibid., 21.

6:3). 이 본문에서 초대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리더로 세웠다. 여기에 리더의 자질 세 가지가 나온다. 첫째는 지혜이다. 소그룹의 지체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셀 리더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 곧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다. 둘째는 성령의 사람이다. 리더는 소그룹의 모든 사역과 구성원들을 성령께 맡기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다 보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소그룹은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셋째로, 초대 교회의 리더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것의 헬라어 원어는 ‘마르튀레오’인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또는 ‘증명된 사람’을 의미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은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현대 셀 사역 전문가인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는 이렇게 말했다.

“셀 리더는 탁월한 성경 교사나 상담자가 될 필요는 없을지라도 반드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²²³ 셀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오스왈드 샌더스(John Oswald Sanders)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영적 지도력은 지적인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큰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기꺼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²²⁴ 셀 리더로 세워지기 위한 조건은 지식이나 재능을 얼마나 갖추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평신도가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나 조건, 능력이 아니라,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기꺼이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충분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223) Ralph W. Neighbour, 「셀리더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17-8.

224) J. Oswald Sanders, 「영적 지도력」, 24.

(2) 셀 리더의 역할

소그룹 리더의 목표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²²⁵ 리더가 이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

둘째, 리더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먼저 리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딤후 2:1).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이다. 또한, 리더는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로부터 목양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리더 자신의 철학과 사적인 감정으로 소그룹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 자신이 맡은 소그룹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이며, 일부분인 것을 기억하고,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순종하면서, 대그룹과 소그룹 구성원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²²⁶ 참된 코치는 자신이 담당한 사람의 아픔을 경청해주고, 위로하며, 다시 목표를 향해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한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을 품어주며, 위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고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리더는 모델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배우게 하셨다. 그것이 제자 훈련의 방법이였다.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도록 하셨다. 제자는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²²⁷ 그런 의미에서 리더는 자신이 모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225) Joel Comisky, 「셀 그룹 폭발을 위한 코칭」, NCD 편집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7), 12-3.

226) Gary R. Collins, 「기독교와 상담 윤리」, 오윤선 역 (서울: 두란노, 2003), 21.

227) 최영기, 「가정 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53-4.

다섯째, 리더는 비전 부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리더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재확인 시켜 주어야 한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탄 채 방치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리더로 자원했다. 그가 리더로 부임한 후, 한 일은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비전과 열정을 부여하는 일이었다. 그의 동기부여 때문에 수십 년간 포기하고 있었던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26일마다 비전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리더는 끊임없이 소그룹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공동체가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셀 모임이 항상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때로는 지나친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지쳐서 탈진하고,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해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을 제시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²²⁸

2) 셀 모임 진행하기(4W)

셀이 가장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가정교회’에서는 먼저 식사한 후에 다음 순서를 진행한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했고(행 2:42-47), 먹고 마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한 전도서 2장 24 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식사 교제를 나눈다. 최상태는 “셀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가족 의식과 친밀감이 생기게 하여 가정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한다.²²⁹ 식사 후에는 아이스 브레이크(Ice Break)를 하는데, 서먹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바꾸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그리고 찬양을 3-4 곡 함께 부르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준비한다. 그다음으로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에 대해 기도하거나, 혹은 큰 공동체(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한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나눈다. 이때 리더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독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다음으로 성경 공부가 이어지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파송의 기도로 마무리한다. 특히

228) 제이 파이어보우 · 김진기, 「교회 성장의 엑셀레이터」 (서울: 미니스트리 디렉, 2011), 140.

229) 최상태, “가정교회 모임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목회와 신학」, (2017년 4월), 87.

가정 교회에서는 모임의 원칙이 있다.²³⁰ 셀 모임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성경 공부 중심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일을 강조하고, 셀의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소그룹 활성화와 셀 교회(Cell Church) 전환을 위한 전략

본 논문의 주제는 전통 교회에서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서 성경적인 셀 교회를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전통 교회에서 어떻게 소그룹 활성화를 이루고, 셀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 과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1) 패러다임의 전환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목회 방식은 대그룹 중심 사역과 프로그램 중심 사역이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와 심방을 중심으로 한 목회였다. 여기서 평신도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고,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서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셀이 활성화된 셀 교회로 바꾼다는 것은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고, 따라서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엄청난 변화를 요구한다. 그래서 대그룹 중심의 교회를 셀 교회로 전환한다는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져왔던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²³¹ 목회자 주도의 사역을 전환하여 평신도들도 주체로 참여하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실현하고, 소그룹의 공동체성과 역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바뀌어야 하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 그리고 사역과 사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230) Ibid., 89.

231) 박영철, “한 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 78.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로 정의한다.²³² 사람들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람과 사건을 해석하고,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한다.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쿤(Thomas Kuhn)은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소개하면서, 전통적인 사고방식과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²³³ 교회도 마찬가지로 것이다. 이 시대 많은 전통 교회가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소그룹 사역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은 바로 목회 철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 소그룹 사역을 여러 프로그램 중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교회를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인 셀 교회로 전환하고, 셀 사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에 묶여 있던 고정 관념들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2) 담임목사의 리더십

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고, 셀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회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전통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 ‘영적 지도력’의 저자인 오스왈드 샌더스(J. Oswald Sanders)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리더십이란 한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며, 교회는 영적이며 희생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한다.”²³⁴

전통 교회의 구조와 체계를 소그룹 중심으로 전환해서 셀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담임목사의 리더십이 분명히 서 있어야 가능하다. 담임목사는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그룹 사역을 활성화해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담임목사가 전통 교회 갱신에 대한 분명한 목회 철학과 확신을 가지고,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때 그의 리더십은 온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232) 표준국어대사전.

233) Thomas S. Kuhn, 「과학 혁명의 구조」, 김명자 역 (서울: 동아출판사, 1994), 165.

234) J. Oswald Sanders, 「영적 지도력」, 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18), 23-4.

신뢰를 바탕으로 교회는 성공적인 사역 전환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3) 비전 제시

셀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대의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그룹 리더들이 동역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전통 교회에서 셀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셀 교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평신도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목표’는 어떤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전’은 그 목표를 성취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와 연관되어 있다. 조지 바나(Gorge Barna)는 비전에 대해서 “앞으로 될 수 있거나 되어야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그림”으로 정의했다.²³⁵ 비전은 지금 당장 현실의 것이 아니며, 미래의 일이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자신이 구상하는 교회의 미래 모습을 비전으로 구체화해서 평신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교회를 셀 교회로 전환하는 것은 목회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교회의 모든 성도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동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셀이 살아있는 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목회자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비전을 성도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대한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목회자가 성경적인 교회론에 입각해서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사역에 대한 목회 철학을 확실히 정립할 때 그것을 평신도들에게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다”라고 고백했다.²³⁶ 목회자가 먼저 성경적이고 유기적인 공동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왜 반드시 소그룹 중심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되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셀 교회로 가야 하는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셀 교회의 전환을 위해 평신도들은 어떤 참여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235) Gorge Barna, *The Power of Vision*, (Ventura, Ca: Regal books, 1992), 54.

236) Howard A. Snyder, *Signs of the Spirit: How God Reshapes the Church*, (Eugene: Wipf and Stocks Pub, 1997), 288.

셀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와 함께 현실적인 것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소그룹이 활성화된 셀 교회가 된다면 평신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영적 유익은 무엇이며, 교회 전체가 거두게 될 사역의 열매는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도 분명히 제시해야만 한다. 그래서 ‘셀’에 대한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평신도들이 이해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공유하며, ‘셀 교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온 교회가 함께 갖고 공감할 때 비로소 전통을 바꿀 수 있는 내적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전통이 절대 선이나 진리가 아니며, 주님의 뜻이라면 그 제도와 체계를 새롭게 갱신하고 개혁할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실제적인 구조와 제도적인 변화도 뒤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1) 전체 교회를 향한 비전 제시 - 설교, 사경회, 부흥회

소그룹을 활성화해서 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제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장 대중적으로 전체 교회와 교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이다. 목회자가 셀 교회를 향한 분명한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설교를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소그룹 사역이 성경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온 뜻이라면 목사는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선포해야 한다. 의외로 많은 성도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다. 이런 성도들에게 소그룹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년 초, 한 달 정도는 교회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활성화했거나 셀 교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교회의 목회자나 셀 리더를 초청하고, 사경회나 부흥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성경적인 소그룹의 필요성과 원리를 설명하고, 또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셀 사역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바꾸는 문제이다. 그래서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나 사경회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그 지체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목회자의 비전 제시는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알려주고, 모든 성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며, 새로운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셀이 살아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당회 - 소그룹 사역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셀 워크숍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모든 행정과 체계를 결정하는 일차적이고 핵심적인 의결기구는 당회이다. 그래서 전통 교회를 셀 교회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제시하고, 당회와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만일 장로가 없는 교회라면 모르겠지만, 당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행정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현실이라면, 당회의 정책 심의와 결정은 너무나 중요하다. 당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비전은 장애물에 막혀서 시행해 보기도 전에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로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활성화의 필요성과 셀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설명하는 일, 즉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나 평신도 지도자(장로)들이 한 번의 설명회를 통해서 소그룹 사역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지속적인 토의와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셀 사역의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전통 교회에서 핵심 리더들과의 충분한 토의와 공감 과정이 없이 셀 사역을 시도하기는 매우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신도들이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소그룹의 중요성을 공감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셀 사역을 잘하는 외부 교회나 기관의 소그룹 사역 콘퍼런스나 셀 경험 세미나에 당회원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들이 셀이 활성화된 교회에 방문해서 셀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셀 리더들의 경험을 듣게 하는 것도 소그룹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데 좋은 방법이다. 추천할 만한 것으로는 가정 교회 사역원의 '가정교회 콘퍼런스', 풍성한교회의 '두 날개 콘퍼런스', 호산나 교회의 '목양 장로 사역 세미나' 등이 있다.

(3) 향존직(핵심 멤버) 세미나

제 4 장에서 포항성동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 온 응답자가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또한, 본 교회에 출석한 기간도 5년 이상이 24.1%, 10년 이상이 18.5%, 20년 이상이 46.3%였고, 출석 기간이 5년 이하는 11.1%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통 교회는 대체로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해 온 성도들이 많고, 그들이 교회의 핵심 멤버를 이루면서 교회를 섬긴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교회와 함께해 온 사람들이며, 전통 교회의 중심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다. 그들을 소그룹 사역을 위한 핵심 멤버로 일으키고, 협력을 얻는 일은 전통 교회에서의 소그룹 활성화에 꼭 필요한 과제이다.

향존직 성도들의 셀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고, 그들을 교회의 소그룹 사역을 위한 동역자가 되게 하려면 그들을 대상으로 ‘향존직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앙의 수준과 단계가 천차만별인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나 교육보다는 향존직분자들만을 구별하여 강의할 때 깊이 있는 ‘교회론’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고, 교회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목회자의 철학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을 구별하면 참여자들에게 자부심과 함께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해 줄 수 있다.

(4) 부서장, 구역장 - 셀 사역 준비 위원회

당회와 향존직을 대상으로 비전 제시를 하고,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마쳤다면, 그 이후에는 ‘셀 사역 준비 위원회’와 같은 보다 실제적이면서 확대된 모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선 대상으로는 그동안 전통적인 구역을 담당했던 리더들을 포함해야 한다. 셀 사역이 전통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새롭게 활성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역을 셀로 전환하는 과정에 구역 리더(인도자)를 포함해서 협력자가 되게 해야 한다. 또한, 교회 각 기관과 분야에서 부서장이나 리더로 헌신하고 있는 평신도들을 보다 폭넓게 참여시킬 필요도 있다. 이처럼 향존직보다 확대된 ‘셀 사역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에게 성경적인 소그룹 사역에 대한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교육하면서,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구역과 셀 사역의 차이점, 그리고 셀 사역의 유익과 열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맞는 셀 사역을 실행할 것인지를 함께 연구하고, 이 준비

위원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새로운 셀 리더로 성장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5) 토양 작업

전통 교회를 셀 교회로 전환해 가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즉 평신도들에게 소그룹 활성화와 셀 교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고, 그들을 리더로 세워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토양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토양 작업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갈아엎고, 거친 돌을 골라내며, 거름을 주어서 기름진 토양으로 만들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의미한다. 전통 교회라는 단단한 토양을 기경해서 ‘셀 교회’라는 새로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도 토양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전통 교회를 셀이 살아 있는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역에 대한 저항감과 반대를 기경해야 하고, 또한, 셀 사역에 협조적인 ‘거름’의 역할을 해 줄 동역자들을 세워내야 한다.

토양 작업의 기간에 대해서 화평 교회의 최상대는 3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밝힌다. 화평 교회가 이처럼 빠른 시간에 소그룹 중심 교회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회자 자신이 분명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역 리더들과 소그룹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²³⁷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통의 연수와 교인의 숫자, 그리고 영적 상태를 진단한 후에 1년에서 길게는 2~3년까지의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 향존직, 그리고 구역을 비롯한 각 부서의 리더들, 나아가 전 교인들에게 소그룹 활성화를 향한 비전이 제시되고, 성경적인 셀 사역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시켜 가는 ‘토양 작업’은 어쩌면 실제로 새로운 소그룹 사역들을 실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²³⁸ 이렇게 전 교인이 ‘건강한 셀 교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셀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 건강한 셀 교회와 영적 성장이라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237) 최상대,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18.

238) 본 연구자는 2008년, 부산 풍성한교회의 ‘두 날개 프로세스’ 목회자 과정을 수료하고 셀 사역을 시도했지만, 중도에 셀 사역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 그 이유는 비전 제시를 통한 전 교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셀 사역을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시행착오를 피하고, 셀 사역의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셀 사역에 대한 ‘비전 제시’와 토양 작업이 먼저 진행되고, 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셀 사역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그룹 활성화와 훈련 체계

소그룹 셀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가 이끌어간다.²³⁹ 즉 평신도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가정에서 모이는 셀을 인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평신도들이 책임 있는 리더로 세워져서 성실하게 목양을 감당할 때 소그룹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셀 교회가 실현될 수 있다. 최영기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전통 교회의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이 해야 할 사역의 기회를 빼앗고, 모든 목양의 사역을 자신들이 독점했다”고 비판한다.²⁴⁰ 이제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이 목양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성숙한 사역자로 세워주어야 한다. 건강한 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셀 리더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여러 종류의 양육과 훈련 과정들이 필요하다.²⁴¹ 이러한 양육 훈련은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처음 믿은 신자는 양육이라는 필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자 만드는 훈련은 주님의 명령이며,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셀 리더를 세워내야 한다. 셀 리더를 통하여 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1) 양육과 훈련 체계의 중요성

전통 교회에서 소그룹을 활성화해서 소그룹 중심의 셀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리더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셀 리더는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수행하는 동역자이다. 그래서 셀 리더를 어떻게 육성하고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셀 전환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 성공적인 소그룹 사역을 실행하고 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239) 최영기, 「가정 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39.

240)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 (서울: 두란노서원, 2017), 39.

241)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 2006), 235.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리더들이 잘 세워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리더를 육성하는 훈련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셀 교회로의 전환은 어렵다.

그리스도께 인도된 한 사람이 성장해서 소그룹의 리더로 자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성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리더로서의 인격과 사역적인 준비 과정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역의 필요성 때문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셀 리더로 임명한다면 이후에 더 큰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릭 워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교회의 사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은 리더에 의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직책을 만들어 놓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²⁴² 리더를 세우는 일은 셀 사역의 성패가 달린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교회에서 리더를 세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관성이 있는 양육과 훈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셀 교회의 목회 철학에 기반한 훈련 과정을 충실하게 수료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은사 발견 프로그램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은사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사람마다 은사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리더의 은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사역하는 것이 좋은지 점검해야 한다. 셋째, 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신이 소그룹의 일원으로서 충실하게 참여한 소그룹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키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안산동산교회는 소그룹 콘퍼런스에 먼저 목회자들이 참여해서 소그룹 모임을 경험하게 하고, 각 지역의 목회자들끼리 지속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본 후에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키게 한다.²⁴³ 이처럼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소그룹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예비 리더로서 리더를 보조하면서 셀 리더로서 지체들을 섬기는 자세와 태도를 보고 배우면서 리더의 역할을 미리 경험해 보아야 한다. 넷째, 충분히 준비된 사람을 셀 리더로 임명할 때는 대그룹 공동체 앞에서 파송식을 통해서 임명하는 것이 좋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리더로 임명받으면서 헌신을 서약하고, 또 많은 사람의 인정과 격려를 받으며 리더로서 자부심과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42)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교회」,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2009), 384.

243)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 자료집」, 17.

2) 양육 훈련의 체계와 내용

전통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많은 양육 훈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많은 목회자는 절망하고 훈련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 공부가 지식적인 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셀 그룹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닐 앤더슨 (Neil T. Anderson)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Victory Over The Darkness)라는 책에서 제자훈련의 단계를 골로새서 2 장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것은 “첫째는 신분 인식의 단계이며, 둘째는 영적 성숙의 단계이고, 셋째는 온전히 실천하는 단계”였다.²⁴⁴ 이를 참조하고, 일반적인 셀 교회의 리더 육성 과정을 참조하여 전반적인 평신도 양육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새 가족 기초 단계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기초 양육 과정의 핵심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적인 신분(Identity)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 많은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을 펼친다. 그것은 회심한 사울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다가서지 않을 때 바나바가 다가가서 그를 안내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도왔던 것을 근거로 한 사역이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행 9:27). 이처럼 교회에 찾아온 새 가족이 교인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안내하고 섬기는 바나바와 같은 양육자가 필요한 것이다.

(2) 중급 양육 단계

이 과정은 영적 성숙을 돕는 단계이다. 새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이

244) Neil T. Anderson,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유희자 역 (서울: 죠이선교회, 1993), 228-9.

과정을 선교 단체에서는 ‘확신반’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심어주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중급 과정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적 치유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치유 수양회’와 같은 집중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 수양회를 통하여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과거의 죄를 고백하며, 죄 사함의 확신을 경험하게 하고, 또 새 가족 섬김이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성도는 양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데, 리로이 아임스(Leroy Eims)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설명했다. “첫째는 구원의 과정, 둘째는 제자가 되는 과정, 셋째는 사역자가 되는 과정, 넷째는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다.²⁴⁵ 또 신약성경도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었도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었도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요일 2:12-14).

성경이 말하는 각 성장의 단계는 죄 사함을 받은 자녀의 단계, 아버지를 알게 된 아이의 단계,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단계, 그리고 아비의 단계이다. 불신자가 전도를 받고 새 신자가 되고, 새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진 성숙한 신자가 되고, 신자가 훈련을 통하여 다른 영혼들을 돕고 인도하는 아비와 같은 사역자로 성장해가는 것이다.

²⁴⁵ Leroy Eims, *Lost Art of Disciple Mak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8), 183.

(3) 제자 훈련 단계

제자 훈련은 기초 양육과 중급 성장 과정을 거친 성도들이 이제 영적 성숙을 경험하고, 리더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셀 리더를 육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소그룹 형태로 진행된다. 목회자를 리더로 하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경 지식뿐 아니라 목회 철학을 이해하게 되고, 무엇보다 인격적인 나눔을 통해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²⁴⁶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옥한흠은 소그룹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한, 소그룹 환경에서의 훈련은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삶의 문제를 솔직히 나누며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 그리고 성경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²⁴⁷ 제자훈련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각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말씀 묵상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제자도와 헌신, 성령 충만, 성결한 삶, 기도의 능력, 전도와 선교,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로의 부르심으로 구성된다.

(4) 사역 훈련 단계

사역 훈련은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들을 평신도 사역자, 즉 셀 리더로 세우기 위한 실천 과정이다. 이 훈련을 마치면 셀 그룹의 리더로 임명받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일하게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역자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 즉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을 신약성경 에베소서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엡 2:10). 그래서 락 워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하라고 명령받았으며(마 20:26-28), 사역을 위해

246) Waylon B. Moore,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5), 41.

247)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99.

준비되어야 하고(엡 4:11-12), 사역할 책임이 있으며, 자기가 한 사역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골 3:23-24).”²⁴⁸ 이처럼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일은 셀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다. 사역 훈련은 무엇보다 셀 리더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훈련의 내용은 교회론, 소그룹 인도법, 상담 기법, 리더십에 집중되어 있다.

4. 포항성동교회의 소그룹 활성화 방안

1) 포항성동교회 소개

본 연구자가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성동 교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로 20-2에 있으며, 1952년 12월 25일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상도 교회’였으나 1978년 5월에 현재의 명칭인 포항성동교회로 개명했다. 제 1대 편은범 목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명의 담임 목회자가 있었으며, 본 연구자는 2013년 2월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시무하고 있다. 현재 6명의 시무장로가 담임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이끌고 있다.

본 연구자는 성동 교회에 부임하여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근거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것은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고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도록 도우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하자는 비전이다.

2) 포항성동교회 핵심가치

포항성동교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핵심 가치를 제시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핵심가치에 근거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 핵심가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⁴⁹

248) Rick Warren, 「새들백 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5), 408-409.

249) 포항성동교회, [온라인자료] <http://www.sungdong.org/>, 2020년 3월 5일 접속.

(1) 예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으며(요 4:23),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고 하셨다. 성동 교회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예배의 본질에 충실하되 경건의 전통과 시대에 맞는 현대적 감각이 잘 조화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자 한다.

(2) 교육

두 번째 핵심가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 과정을 준비하고, 다양한 영적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숙한 신앙인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해서 1년 동안 ‘태신자(전도대상자)’를 작성하고 섬기는 관계 전도를 펼치고, 매년 말에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에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화율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낮고, 타 종교의 비율이 높은 영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도의 목표를 수평 이동을 통한 양적 성장이 아닌,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두고 있다.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농어촌 지역 봉사를 정기적으로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단체와 선교사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특히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네팔에 각각 교회를 세웠고, 매년 성도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여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²⁵⁰

250) 제 4 장의 설문조사에서 성동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의 장점(잘하고 있는 사역, 복수 선택)을 물었을 때 교인들은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서 ‘예배(73.6%)’, ‘선교(34%)’ 순으로 만족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4) 섬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성동 교회는 직접적인 복음 전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이제 섬김의 사역자가 되어 서로를 섬기고, 나아가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 내에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농촌 봉사 활동과 단기 선교를 시행하고 있다.

(5) 사랑의 교제: 셀 공동체(Cell)

성동 교회의 목장 소그룹은 7-12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자와 예비 목자, 목장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특히 목장에서의 교제와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며, 목장을 통해서 양육과 성장을 체험하고 또 다른 영혼을 잉태하고 재생산하는 태신자 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목장마다 해외 선교지를 연결해서 물질과 기도로 해외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3) 포항성동교회의 양육 훈련 체계

성동 교회의 장년 성도들을 위한 양육과 제자 훈련의 목적은 ‘새 신자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나아가 영적 아버지로써 셀을 이끄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내는 것’이며, 훈련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29> 포항성동교회 양육 훈련 체계

단계	양육대상	양육 훈련
1 새 가족반	새 신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2 양육 과정	새 가족부 수료자	양육의 기쁨 (김성곤, 도서출판 두 날개)
3 성장 과정	양육반을 수료한 자	QT 학교, 중보 기도 학교(각 5주) 성경 대학(통 성경, 성경 통독)
4 제자 훈련	셀 리더 준비 과정	제자 훈련 (옥한흠, 국제제자훈련원)
5 사역 훈련	셀 리더 사역 과정	사역 훈련 (옥한흠, 국제제자훈련원)
6 리더 훈련	리더 모임 (매주)	셀 리더 재교육 및 사역 나눔

(1) 1 단계 새 가족 사역: 바나바 사역과 행복 모임

성동 교회는 처음 나온 새 가족을 새 가족부 중심의 바나바 사역과 목회자가 인도하는 행복 모임을 병행하여 돌보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바나바 사역은 교회에 처음 나온 새 신자를 위해서 일대일로 바나바를 배치하여, 5 주 동안 안내하고 섬기는 사역이다. 특히 새 가족의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여 바나바를 배치하는데, 그들은 주중에 1 회 이상 전화 또는 직접 만남, 토요일에 전화, 그리고 주일에 교회당에 들어올 때부터 예배 시간, 점심 식사, 행복 모임까지 동행하고, 귀가할 때 배웅하게 된다. 이런 섬김을 통하여 새 가족은 교회에 쉽게 정착하게 되며, 후에는 셀 목장으로 인계된다.

행복 모임은 주일 예배 후에 편안한 분위기의 새 가족실에서 다과와 함께 진행되는데, 담임목사와 부교역자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5 주 동안 나누어서 강의한다. 이 새 가족 교재의 저자 옥한흠은 서문에서 새 가족 모임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과 타 교회에서 옮긴 이를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며, 교회를 왜 다니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배워야 한다.”²⁵¹ 이 교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교회의 중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 신자는 이 행복 모임을 수료하고, 대그룹 예배에서 환영식을 거쳐서 정식 교인으로 등록이 된다. 성동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새 가족 사역을 통하여 1 년에 30 명~50 명의 새 신자를 정착시키며, 평균 정착률은 70%이다.

(2) 양육 과정

양육반은 새 가족 행복 모임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풍성한교회의 ‘양육의 기쁨’을 사용하여 12 주 동안 진행한다. 교재의 내용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과 같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심어준다. 또한, 백지 전도법과 열린 모임을 안내하여 영혼 구원의 열정을 심어주고, 마지막으로 셀 교회에 대한 목회 철학을 가르친다. 양육반은 목회자뿐 아니라 훈련을 수료한 사모나 소그룹 리더도 강사로 섬기는데, 12 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진행하고, 그 안에서 나눔과 교제, 말씀

251) 옥한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8), 4.

묵상, 중보기도와 같은 셀 교회 모습을 경험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새 신자는 소그룹이 일원으로 정착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 성장하게 된다.

(3) 성장 과정: 큐티와 중보기도

3 단계 과정인 성장반은 양육반을 수료한 자, 교회학교 교사나 셀의 예비 리더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성경을 날마다 스스로 묵상할 수 있도록 묵상 훈련(Quiet Time)을 진행하는데, 교재는 묵상집 ‘날마다 솟는 샘물’(국제제자훈련원)을 사용하고, 매일 묵상한 내용을 주 1 회 ‘큐티방’이라는 이름으로 성장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나눔을 갖게 된다. 이 큐티방을 마친 사람은 또 다른 큐티방의 예비 리더로 섬길 수 있고, 그 후에는 큐티방의 리더로 사역할 수 있다.

성장 과정에는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훈련하는 ‘중보 기도 학교’가 함께 포함된다. 봄과 가을에 진행하며, 5 주에 걸쳐서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자의 바른 자세, 효과적인 기도 사역에 대해서 이론과 실재를 배우게 된다. 성장 과정은 이처럼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4)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양육반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옥한흠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소수 정예화의 전략이며, 그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동력화시키는 전략이고, 소그룹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²⁵² 이처럼 제자 훈련은 양육의 과정을 밟아 온 소수를 대상으로 소그룹 환경에서 진행하면서 셀 리더를 세우는 훈련인데, 본 연구자는 옥한흠 목사가 인도하는 제자 훈련 세미나를 수료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사역 훈련 컨설팅을 통해서 소그룹 인도법을 익히면서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제자 훈련 과정은 제 1 단계로 ‘터 다지기’를 6 주 동안 배우면서 말씀과 기도를 다루고, 제 2 단계로 ‘나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4 주 동안 죄와 구원의 문제, 기독교의 은혜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배우며, 마지막 3 단계는 12 주 동안 영적 성장과 성숙, 신앙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배운다. 이렇게

252) 옥한흠, 「제자 훈련의 터 다지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9), 6-7.

총 3 단계의 내용을 약 1 년에 걸쳐서 담임 목회자와 함께 진행하면서 성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소그룹 인도법을 배우게 된다.

(5) 사역 훈련

제자 훈련을 수료하고, 셀에서 예비 리더로 섬기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 과정을 마친 후에는 새로운 셀을 분가하여 리더로 파송한다. 사역 훈련은 옥한흠의 교재를 사용했는데, 2019 년부터는 권성수가 쓴 ‘사역 훈련’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권성수는 새로운 교재를 발간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제자 훈련을 하셨고, 성령의 충만으로 훈련을 했으며,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셨다”²⁵³ 고 밝혔다. 즉 새로운 교재는 성령 충만과 영적 전쟁, 그리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되어 있다. 이 과정은 총 33 주 동안 진행된다.

사역 훈련은 주 1 회, 정해진 시간에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한번 모임 때 2 시간~3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큐티와 교재 연습, 생활 실천과 같은 선행 학습이 철저히 요구된다. 참여자는 담임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교회의 원형 셀에서 목회자의 철학을 공유하며, 셀의 역동적인 치유와 친밀함을 경험하고, 수료 후에 셀의 리더로 섬기게 된다.

담임목사의 입장에서 이처럼 양육 체계를 세우고, 제자훈련과 사역 훈련을 직접 인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목회자는 대단히 바쁘다.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주중에 여러 번의 설교와 사역을 해야 하며, 또 심방 사역을 소홀히 할 수도 없다. 또한, 노회나 외부 활동도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한 영혼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평신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로 성장시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담임목사는 바쁘고 분주한 사역 중심의 목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때 교인들의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건강한 사역 리더가 세워질 수 있다.

253) 권성수, 「생명사역 사역훈련」 (대구: 생명사역훈련원, 2018), 5.

4) 포항성동교회의 소그룹 사역

(1) 포항성동교회 소그룹 사역 현황 분석

제 4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항성동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56 명 중에서 77.8%가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은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대답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90.9%였다. 포항성동교회의 소그룹 참여율이 대단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지난 2013 년 1 월에 포항성동교회에 부임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소그룹 사역의 성경적 당위성을 말했고,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을 이루는 ‘두 날개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적인 소그룹인 구역의 리더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사역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교제와 나눔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했다.

포항성동교회의 교인들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에 관해서 묻는 설문 조사에서, 69.2%가 ‘따뜻한 교제’, 13.5%가 ‘중보 기도’를 그 이유라고 대답했다. 또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얻는 실제적인 유익에 관한 질문에도 역시 따뜻한 교제와 중보기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소그룹 사역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모임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역동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교인들은 소그룹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에 ‘따뜻한 교제’(53.1%)를 들었다. 이것은 전통 교회의 교인들이 소그룹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전통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소그룹에 관심이 없고, 대그룹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교회 생활의 전부라고 여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의 설문 결과를 보면 그것은 하나의 편견이며 막연한 고정 관념임을 알 수 있다. 설문 응답에서 보듯 개별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성도들은 따뜻한 공동체를 원하고 있다. 교회를 통해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고 함께 위로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갈망하고 있다. 현재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도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고, 적당한 소그룹이 마련되면 소그룹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를 세우기 위한 양육과 훈련’에 대한 의향에 관한 질문에 50 대의 91.7%, 40 대의 77.7%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리더로 사역할 의향’에 관한 질문에 50 대의 91.6%, 30 대의 75%, 60 대의 63.7%가 사역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 교인들의 소그룹에 대한 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시대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실한 사랑과 따뜻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코이노니아의 공간이 마련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포항 제철’로 표현되는 산업 도시에 거주하며,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성과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포항’이라는 도시에 거주하는 성도들의 소그룹에 대한 의식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은 이 땅의 현대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타인과의 진정한 교제나 사랑의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그룹 활성화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성도 양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역 리더로 사역해 가면서 교회의 역동성이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2) 포항성동교회 소그룹 사역의 실제(4W)

포항성동교회의 소그룹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동교회에는 현재 20 개의 여성 셀 목장이 있으며, 이들은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다. 또한, 연령대에 맞추어 구성된 4 개의 남성 신도회(다윗, 여호수아, 기타)과 6 개의 여성 신도회(한나, 마리아, 루디아, 기타), 그리고 젊은 세대로 구성된 1 개의 혼성 셀이 있고, 각 소그룹에 따라 매주 또는 격주로 모임을 한다.

여성 목장 모임은 가장 활성화된 소그룹인데, 주중 목요일~토요일 사이에 주 1 회,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이들로 편성된 목장은 주로 낮에 모이고, 직장에 다니는 이들은 밤에 모임을 한다. 그리고 여성 목장 모임을 위해서 리더들은 리더 비전 모임 시간에 담임 목사로부터 소그룹에서 나눌 4W 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각 소그룹에서 모임을 인도하기

때문에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전체 교회의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게 셀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여성 목장 모임은 4W 형태로 진행되는데, 마음 열기부터 말씀 나눔까지 진행한 후에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중보 기도를 요청한 지체를 그룹의 한 가운데에 앉히고, 그 지체의 어깨나 등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후에는 전도 대상자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셀이 담당하고 있는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일하심과 소그룹의 역동성을 경험한다.

이에 비해 같은 연령대로 묶인 신도회 소그룹은 상대적으로 모임 시간이 느슨하다. 형편에 따라 매주 또는 격주로 모임을 하고, 4W 없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친교 모임 형태로 진행된다. 모임과 나눔 외에도, 때로는 식사도 하고 등산이나 근교 여행을 하기도 한다. 연령별 신도회의 장점은 따뜻한 교제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이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 소그룹의 단점은 말씀과 기도 중심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성령 공동체라기보다는 친밀한 사람들끼리의 교제에 머무는 친목 중심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그룹에서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힘들고, 새로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재생산과 번식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신도회 소그룹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셀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3) 소그룹 사역 활성화를 위한 ‘비전 모임’

포항성동교회는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전 모임’을 신설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며, 셀 리더, 소그룹 교구를 담당하는 장로, 그리고 향존직까지 참여한다. 여성 리더에서 향존직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갖고, 전 교회적인 셀 사역 비전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비전 모임의 진행은 4W 형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마음 열기가 진행되는데, 3~5 개의 셀 목장이 묶인 교구별로 진행된다. 교구별로 같은 테이블에 앉고, 담당 장로가 그 테이블의 리더가 되어 마음 열기를 인도한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강의를 듣는다. 강의 시간에는 담임목사가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인 이론과 인도법을 간단히 강의하고, 이어서 영상 강의가

이어진다. 이때는 소그룹이 활성화된 휴스턴 서울교회, 부산 풍성한교회와 같은 셀 교회에서 만든 소그룹 사역 영상이나 셀 리더의 간증 영상을 시청한다. 그리고 본 교회에서 사역하는 소그룹 리더의 간증과 발표를 통해서 각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소그룹의 형편과 성도들의 삶을 이해 한다. 그다음으로 워크숍 시간을 갖는데, 테이블 별로 느낀 점과 소그룹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담임목사가 전체 의견을 정리한 후에 합심 기도로 마무리한다.

이 비전 모임의 유익은 담임목사의 소그룹 목회 철학이 중직자들에게 제시되고, 소그룹 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소그룹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함께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5) 포항성동교회의 소그룹 모임: 4W 소개

포항성동교회의 셀 모임은 **Welcome(환영), Worship(찬양), Word(말씀), Work(사역과 기도)**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안산 동산교회의 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본 교회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풍성한교회 셀 양육 집중훈련, 가정교회 콘퍼런스, 동산교회의 셀 콘퍼런스에 각각 참여하여 셀에 대한 내용을 연구한 후, 최종적으로 동산교회에서 사용하는 셀 모임 체계인 4W 를 교회에 적용했다. 이를 위해서 동산교회의 셀 소그룹을 탐방하여 4W 가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했고, 동산 교회의 '큰 숲 양육 네트워크'에 소속된 지역 목회자들과 1년 동안 매주 1 회씩 만나서 '목회자 셀 모임'에 참여했다. 그 결과 본 교회의 현장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교제와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4W 라고 판단하고, 2015년부터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 Welcome(환영하기)

환영하기는 모임을 시작할 때 10분 이내로 진행하는 마음 열기인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에 해당하는 말로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넓습니다. 용기를 줍니다.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친절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를 소개합니다 -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뻐던 일을 한 가지만 말해 봅시다.²⁵⁴

환영하기는 자기소개,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 게임으로 구성되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게 한다. 이 시간에는 무거운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것은 기도 시간에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²⁵⁵

(2) Worship(찬양하기)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적인 에너지를 복돋는 시간이다. 환영 시간에 마음이 열렸다 할지라도 곧 닫힐 수 있는데, 찬양은 셀 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준다. 무엇보다 찬양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다.²⁵⁶

(3) Word(말씀)

주일 예배에서 들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삶 속에서 적용한 것을 함께 나눌 때 은혜는 더욱 풍성해진다. 리더는 말씀 나눔이 이론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각자의 삶에 연결되도록 적용과 실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4) Work(기도와 사역)

이 시간은 기도로 사역하는 시간이다. 먼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는 자, 연약한 자 아픈 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이 기도의 기경은 점차 확장되어서 대그룹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 방식' 기도를 드리는 데 이것은 '전도 대상자' 위한 기도이다. 아직은 이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254) 포항성동교회 2019 년도 4W 셀 모임 순서지.

255) Ralph W. Neighbour, 「셀리더 지침서」, 15.

256) Joel Comiskey,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NCD 편집부 역 (서울: NCD, 2010), 34.

6) 4W의 실제

다음은 포항성동교회에서 사용하는 목장 순서의 샘플이다. 매주 이와 같은 순서지를 발행해서 리더 모임 시간에 실제로 리더들이 실행해 본 후에 각 소그룹 목장에서 성도들을 인도하게 된다.

<표 30> 포항성동교회 소그룹 4W 순서지

1. 환영(Welcome)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2. 찬양(Worship)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3. 말씀(Word) 불가능을 넘어서는 믿음. 마가복음 9:22-29.
제자들은 지금 매우 난처한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데 고쳐줄 수 없어서 제자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변화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들린 아이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 9:28-29).

함께 나누기: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점, 결단할 점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4. 사역(Work)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하는 시간
 - 1)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특별히 이 시간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위해서: 태신자의 영혼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합니다.
 - 3)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 4) 우리 목장이 품고 있는 선교지의 소식을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표 31> 포항성동교회 셀 리더 교육(4W 인도법)

주제 성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1. 셀그룹은 4W로 인도한다. 먼저 환영을 살펴보자.

- 1) 환영은 서로가 긴장을 풀고 친숙해지기 위한 과정이다.
- 2) 환영은 셀 가족들이 (공통된 관심) 가지고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다.
- 3) 모든 멤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 (긴장을) 풀어 주는 역할을 한다.
- 4)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나)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다.
- 5) 친숙해지기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찬양과 경배는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 영광을 노래한다.

감사와 사랑의 표현한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하라.

3. 말씀과 기도는 서로를 세워주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로 응답을 체험한다.

4. 사역(Work)은 서로를 향한 섬김과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 1) 셀은 가족 모임이며, 서로를 책임진다.
- 2) 돌봄과 기도는 결실로 이어지게 된다.
- 3) 셀 가족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라 -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문제를 놓고 기도, 치유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해, 축복 기도.

5.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다.

셀 가족들이 불신자와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다.

- 1) 자신의 오이코스를 나눠보자
- 2) 빈 의자(빈 방식) 두고 기도하자.

*찬양하며 축복기도 한 뒤 주기도문으로 셀 가족 모임을 마치고,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

(1) 4W의 장점

4W 방식은 전통적인 교회의 구역 모임 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전통 교회의 구역 소그룹은 성경 공부 중심이며, 일방적인 전달식이다. 그러나 4W 셀 나눔은 관계 중심이며, 상호 나눔식이다. 또한, 말씀을 나눌 때는 각자가 받은 은혜와 함께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적용한 것을 나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자기 생각과 삶을 나누고, 용납과 격려를 받으며,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성도는 4W 모임에 다시 오고 싶어 하며 또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한다.

또 전통 교회의 구역이 친한 사람들끼리의 친목 모임으로 정체되고 있는 반면에, 4W 는 모임이 끝나기 전에 빈 방석을 놓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 이것은 영혼 구원과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전도와 초청으로 이어진다. 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모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고 역동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내면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새로운 양육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4W 의 장점이다.

(2) 4W 의 단점

4W 는 활성화된 셀 교회인 안산 동산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검증된 셀 모임 방법이지만, 전통적인 구역 모임에 비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전통 교회의 구역 소그룹은 인도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만, 4W 는 소그룹 구성원 전체가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면의 문제와 아픔까지 구체적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구역 모임이 친밀한 사람들끼리의 친교 중심으로 마무리되지만, 4W 는 모임 때마다 전도 대상자에 관한 관심과 새로운 영혼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4W 가 교제가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끼리의 구역 모임보다 어렵지만, 이를 극복할 때 소그룹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성경적인 소그룹의 목적을 끊임없이 설교하고, 특히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하고, 리더는 상담적 기술과 소그룹 인도법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고, 재교육에 참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제 6 장

결론

1. 연구 요약

여기까지 연구한 논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현재의 전통 교회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점을 기술했고, 그 대안으로 성경적인 소그룹을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관해서 설명했다. 현재 전통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대그룹 중심, 건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며, 그 구조 안에서 역동적인 공동체의 교체와 영적 성숙, 그리고 전도와 번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은 사랑의 교제를 통한 친밀감과 공동체성이 있으며, 양육과 나눔을 통한 영적 성숙과 성장이 있고, 전도와 선교의 요소가 살아 있다. 그래서 역동적인 소그룹, 생명력 있는 소그룹으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소그룹’을 회복하면 전통 교회는 더 새로워질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소그룹 활성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 2 장에서는 소그룹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인 성경적 근거, 교회 역사적인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래서 소그룹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도구나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성경적이고 신학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찰했다. 또한, 소그룹이 초대 교회부터 시작되어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마다 존재하면서, 그 특유의 역동성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소그룹은 그 안에 예배와 코이노니아(교제), 봉사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가 이미 작은 교회로서 기능하며, 구성원들에게 영적 성숙의 유익을 주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능을 감당한다는 것을 살폈다. 이처럼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교회에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반드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필수 요소이다.

제 3 장의 전반부에서는 현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전통 교회의 공헌과 교회 성장에 기여한 점을 살펴보고, 또한, 한계와 문제점도 살펴보았다. 한국 전통 교회는 어느새 초창기 교회가 가졌던 열정과 역동성을 잃어버린 채 지나친

목회자 중심, 대그룹 중심으로 운영되고, 교회의 주체가 되어 사역해야 할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었다. 만일 교인들이 콘서트에 온 관중처럼 객체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들은 교회에서 인격적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고,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으로 사역하면서 누리는 기쁨도 알지 못하며, 신앙적인 성장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본 장의 후반부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전통 교회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소그룹의 활성화 모델을 제시했다. 물론 전통 교회에도 과거 한국 교회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구역’의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구역 제도는 도시화한 현대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데 실패한 채 형식적인 관리 조직으로 존재하며, 번식과 성장에 실패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대 교회의 활성화된 소그룹인 ‘셀’은 끊임없이 새로운 영혼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으며, 대그룹 예배에서 들은 말씀과 은혜를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실천하고, 점검하면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연결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아는 대그룹과는 달리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인격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체적인 교제와 나눔을 가지면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소그룹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영혼을 초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번식과 성장이 일어난다.

특히 본 장에서는 소그룹 활성화의 모델로 셀 사역을 통해서 역동적인 교제와 전도와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되는 한국 교회 안의 네 개의 소그룹 유형을 선정하고 분석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 사역으로 전환한 교회인 화평 교회와 동산 교회, 그리고 설립 초창기부터 소그룹 사역을 염두에 두고 셀 사역을 진행한 제자들교회와 풍성한교회가 바로 네 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교회들이다. 이들 교회의 소그룹 사역을 분석하면서 교회마다 어떻게 소그룹 중심 사역을 교회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각 소그룹 유형의 특징과 내용, 양육 체계는 어떠한지를 분석했고 전통 교회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제 4 장에서는 포항성동교회의 성도들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 먼저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인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5.3%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서 성동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그룹에 관한 질문에서는 40.7%가 매주 참여한다고 대답했는데,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87.8%가 ‘따뜻한 교제’ 때문이라고 답했고, 소그룹에 참여해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는 76.5%가 ‘따뜻한 교제’라고 대답했다. 이를 볼 때 성동교회 교인들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와 유익은 ‘따뜻한 교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소그룹의 가장 큰 기능이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와 나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 민감하지 못한 소그룹은 익숙하고 잘 아는 사람들과 진행되는 닫힌 공동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을 참여시키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그룹이 더욱 성경적인 목적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성동교회 교인들은 소그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1순위가 ‘성도들의 참여’(61.5%), 제2순위는 ‘리더의 열정과 노력’(34.6%), 제3순위는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관심’(19.2%)이라고 답했다. 여기에는 소그룹 활성화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다.

제5장에서는 소그룹 활성화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하여 소그룹 활성화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리더를 교육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어떻게 그 과제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성도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토양 작업을 소그룹 사역에 대한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야 함을 밝혔다. 목회자가 아무리 소그룹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교인으로부터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 향존직, 핵심 멤버를 대상으로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설교와 사경회, 프레젠테이션과 세미나, 그리고 셀 사역을 총괄해서 논의하고 진행해 나갈 사역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혔다. 즉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그 소그룹이라는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 받을 기경하는 토양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리더 훈련’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설문 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는 만큼, 소그룹 리더를 세우기 위한 양육 훈련 체계를 소개했다. 셀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평신도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셀의 성공과 실패는 셀 리더에 달려 있다. 그래서 평신도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영적으로 성숙한 리더로 세우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역하도록 돕는 일은 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다음으로 훈련을 통하여 임명된 소그룹 리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는데,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용하는 4W의 장점, 특히 전통 교회의 구역 모임보다 탁월한 상호 나눔과 역동성을 지니고 있는 4W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동교회에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4W의 소그룹 모임의 샘플을 소개했다.

2. 소그룹 사역 활성화를 위한 제안

전통 교회의 소그룹을 활성화해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이루고, 성경적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한다.

교회에 들어온 성도를 군중에서 신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은 ‘제자를 삼는 일’(making disciples)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설문 참여자 중에서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5년 미만은 3.8%였고, 5년~10년은 9.3%였으며, 87%는 10년 이상 된 신앙인이었다. 이것은 최근 10년간 그만큼 불신자 전도가 약해졌다는 의미이다. 또한, 본 교회의 지상 명령 수행에 대한 응답은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하고 있다’를 합한 비율이 45.3%로 과반을 넘지 못했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41.5%, ‘못하고 있다’는 13.2%였다.

설문 결과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확인했고, 다시 목회의 우선순위를 지상명령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설정하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 목적과 사명에 대한 고찰 없이 ‘소그룹 활성화’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비본질적인 성장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소그룹 활성화’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 그리고 믿는 자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방향성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소그룹의 성경적인 당위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성경적인 소그룹에 대한 비전과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소그룹의 성경적인 가치를 모르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그룹은 활성화될 수 없다. 교인들이 대그룹 중심으로 교회에 다니고, 주중에는 흩어져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소그룹 공동체에 참가해서 코이노니아와 섬김과 봉사와 전도를 실천할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에 관한 질문에 ‘성도들의 참여’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았다. 교인들이 소그룹의 성경적인 당위성을 알고, 소그룹의 필요성에 공감할 때 소그룹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장로, 향존 직분자와 같은 핵심 멤버를 대상으로 한 소그룹 설명회가 필요하고, 전 교회 적으로도 설교와 사경회를 통해서 소그룹의 성경적인 가치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기구를 구성하고, 교인들과 함께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때 소그룹 참여율은 높아질 것이다. 참고로 성동 교회 성도들의 소그룹 참여율은 77.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3) 새로운 시대와 문화에 맞게 다양한 소그룹을 준비한다.

설문 조사에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비율은 70 대(100%)와 60 대(91.7%)가 가장 높았고, 20 대도 88.9%로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다. 연구자의 추정으로는 노년층의 실버 소그룹과 청년부의 셀 그룹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연령과 세대의 문화에 맞는 소그룹이 준비된다면 소그룹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문 조사에서 ‘앞으로 조직되기 원하는 소그룹’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 30 명이 다양한 소그룹이 조직되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는데, 거기에는 ‘운동과 취미’ 모임(8 명),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 모임'(8명), '부부가 함께하는 소그룹'(7명) 등이 있었다. 현대 사회의 생활 패턴과 기호, 관심사는 과거와 다르다. 전통 교회의 소그룹은 대체로 여성 구역, 또는 연령별 모임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런 응답 결과는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성경적인 본질에 충실하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다음 세대들의 문화와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소그룹이 개발된다면, 교인들의 소그룹 참여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소그룹이 성경적인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지향점과 목적, 즉 소그룹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철저한 제자 훈련을 통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셀 리더를 세워내고, 그 리더가 가진 다양한 은사에 맞게 여러 유형의 소그룹을 개설한다면 성경적인 본질에 충실한 소그룹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평신도 양육 체계를 잘 준비하고, 리더 육성 훈련을 실행한다.

전통 교회에서 셀 사역을 시행하다가 실패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리더의 문제이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리더의 직책을 맡기면 그 소그룹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며, 사람들은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

설문조사에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평신도 훈련이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응답이 90.6%였다. 이 응답은 훈련받은 성숙한 리더를 통해서 셀이 살아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제자훈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해서 50대가 91.7%, 40대는 77.7%, 60대는 72.8%, 30대는 66.7%였다. 이것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교회는 교인들을 성숙한 평신도 리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교인들이 성숙한 소그룹 사역자로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와 복음 전파가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바로 건강한 교회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통적인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전통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나쁘게 생각하고, 부정할 필요는 없다. 전통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면서 미래의 새것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다시 말해서 전통 교회의 제도나 사역 체계를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배척하거나 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 교회를 존재하게 한 역동적인 운동으로 가치 있게 평가하고, 존중해야 한다.²⁵⁷

설문 조사에서 소그룹 참여율은 높았지만, 교회가 더 좋아지기 위한 여러 개선점 중에서 ‘소그룹’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6%였다. 즉 교인들은 소그룹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지금까지의 소그룹 사역 체계를 존중하고, 그 성과와 공헌을 인정하면서, 또한 성경적인 본질에 맞게 재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전통 교회에서의 구역 소그룹이 교인 관리를 위한 형식적 모임, 또는 영혼 구원을 향한 목적성이 없는 친교 모임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소그룹의 성경적 본질과 방향성을 설교와 비전 제시를 통해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리더 교육을 통해서 전통적인 방식과 구별되는 성경적이고 역동적인 소그룹 인도법을 계속 교육해야 한다.

6) 차세대를 준비하는 소그룹 사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설문 조사에서 ‘소그룹 리더로 사역할 의향’에 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친 긍정 비율은 50대가 91.6%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75.0%, 60대가 63.7%, 40대 44.4%였다. 20대와 70대는 33.3%였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오늘날 전통 교회가 존재하고 자리매김하기까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세대인데, 그들의 사역을 계승할 새로운 차세대를 세워내는 일은 전통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비교적 젊은 층인 30 대의 75%가 앞으로 소그룹 리더로 사역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은 매우 희망적인 부분이다. 그들을 위한 체계적인 영적 성장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소그룹 사역에 참여시키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257) 한재동, “예배 갱신의 내포적 의미와 그 실현범위”, 29-30.

또한 20대의 젊은 층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20대의 소그룹 사역에 대한 ‘참여’ 의향은 33.3%였고, ‘기회가 되면 참여’라는 응답은 33.3%였다. 또 20대 젊은이들은 ‘평신도 제자훈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도 22.2%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젊은 세대를 영적으로 깨우고,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전통 교회의 세대 계승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 차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와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로 세워내는 일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3. 연구 한계성과 추가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중심으로 연구의 한계성과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와 관련 있는 연구를 진행할 때 이 연구의 한계성을 보완해서 더 훌륭한 연구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첫째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평신도 훈련 방법에 있어서 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성동 교회 성도들은 소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평신도 리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90.6%가 동의했고,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에 관한 질문에는 성경 공부(45.3%), 리더십과 상담(43.4%), 기도(37.7%), 소그룹 운영 기술(32.1%)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아비의 마음으로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성숙한 사역자로 세워내기 위한 평신도 훈련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본 연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소그룹 사역 리더를 세워내는 평신도 훈련에 대해서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 전통 교회에서의 소그룹 활성화에 관한 이 연구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지방 산업 도시인 포항시에 위치한 성동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한국 교회 전체와 다양한 지역에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교단과 교파의 전통과 교리에 따라서 해결 방안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가 모든 전통 교회에서의 소그룹 활성화 방안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각 지역과 교회 상황에 맞는 소그룹 활성화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한국 전통 교회의 정체와 쇠퇴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그 해결

방안으로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질적 성장에 집중했다. 즉 이 연구에서의 ‘교회 성장’의 의미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숙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격한 교회 성장이나, 사역의 열매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가 전통 교회 교인들의 영적 성숙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어 가는 데 도움이 되고, 전통 교회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일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PPENDIX A 부록 A

설문동의서(한글)

전통적 교회에서의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교회 성장 연구

박민용

리버티대학교, 신학대학원

귀하를 연구자의 연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귀하는 포항성동교회 교인인으로서 소그룹 활성화와 평신도 훈련을 통한 전통 교회의 성장을 위한 연구(포항성동교회를 중심으로)에 초대되었습니다. 귀하는 포항성동교회 교인으로서 소그룹과 평신도 훈련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또한 그 해결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본 동의 문서를 잘 읽으시고 문의 사항이 생기면 질문을 해 주세요.

리버티대학교의 신학대학원에 소속된 박사 과정 중에 있는 박민용은 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경 설명: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의 영적 성숙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소그룹의 활성화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전통 교회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의 침체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입니다. 또한, 포항성동교회의 공동체성을 높이고 영적 성숙과 교회 성장을 돕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연구 진행 과정: 만일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다음의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나는 1 시간의 시간과 무기명 설문 조사를 당신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위험요소: 본 연구를 통해 발생할 위험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발생할 위험요소는 극히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문 참여자가 매일 겪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위험요소와 같은 정도입니다.

혜택: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직접적인 혜택들은 없을 것입니다.

보상: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비밀 유지: 본 연구의 기록들은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제가 게시할 수 있는 보고서의 어떤 종류에서, 저는 그것이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기록들은 안전하게 저장되며, 단지 연구자만 기록들에 접근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의 어떠한 형태의 출판으로도 귀하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료들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컴퓨터에 보관될 것이며 향후 연구발표 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자료들은 삼 년 후에 삭제될 것입니다. 설문 참여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그룹 밖의 사람들과 그룹 안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해의 충돌 고지(告知): 해당 사항 없음

자발성에 입각한 연구: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의 가부가 귀하의 현재와 미래의 리버티 대학교, 포항성동교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신 뒤에도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참여 중단이 위의 관계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참여를 중단하는 방법: 귀하가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실 경우 귀하의 설문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연구자에게 연구 참여를 중단할 의사를 밝히세요. 귀하의 응답들은 기록되거나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자 연락처, 질문: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박민용입니다. 지금 바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지체 말고 (+82-10-3309-9341, nehem@hanmail.net)으로 연락하십시오. 본 연구자의 지도 교수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정 교수: 82-01-2031-9985
yjlee@liberty.edu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이나 염려가 있고 연구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은 경우 지체 없이 International Review Board 로 연락을 하십시오: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APPENDIX B**부록 B**

설문동의서(영문)

CONSENT FORM

A Study on Church Growth through Vitalization of Small Groups in Traditional Churches

Minyong Park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You are invited to be in a research study on the conflict resolution in church. You were selected as a possible participant because you are 20 years of age or older and you are a member of Pohang Sungdong church. Please read this form and ask any questions you may have before agreeing to be in the study.

MINYONG PARK, a doctoral candidate in the School of Divinity at Liberty University, is conducting this study.

Background Information: The purpose of my research is to diagnose the stagnation of growth in traditional churches and the reality of spirituality being depressed, and thereby, suggest a plan for restoration and growth.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restore the community spirit and to promote spiritual growth and maturity of the church members.

Procedures: If you agree to be in this study, I would ask you to do the following things:

1. Complete and answer a 1- hour long anonymous survey.

Risks: The risks involved in this study are minimal, which means they are equal to the risks you would encounter in everyday life.

Benefits: Participants should not expect to receive a direct benefit from taking part in this study.

Compensation: Participants will not be compensated for participating in this study.

Confidentiality: The records of this study will be kept private. Research records will be stored securely, and only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er's faculty chair will have access to the records. Participant

survey responses will be anonymous. Data will be stored on a password locked computer and in a locked desk and may be used in future presentations. After three years, all electronic records will be deleted and all paper records will be shredded.

Voluntary Nature of the Study: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s voluntary. Your decision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will not affect your current or future relations with Liberty University or Pohang Sungdong church. If you decide to participate, you are free to not answer any question or withdraw at any time, prior to submitting the survey, without affecting those relationships.

How to Withdraw from the Study: If you choose to withdraw from the study, please do not complete or submit your study materials. Your responses will not be recorded or included in the study.

Contacts and Questions: The researcher conducting this study is MINYONG PARK. You may ask any questions you have now. If you have questions lat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him at 82-10-3309-9341, mpark5@liberty.edu. You may also contact the researcher's faculty chair, Yoojung Lee, at yjlee@liberty.edu.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regarding this study and would like to talk to someone other than the research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APPENDIX C
부록 C

설문서(한글)

전통 교회에서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설문 문항

[제 1 부]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교회 생활에 대한 질문(1-10)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1)남 2)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1) 20 대 2) 30 대 3) 40 대 4) 50 대 5) 60 대 6) 70 대 7) 80 대 이상

3. 귀하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햇수는 몇 년입니까?
1) 3년 이내 2) 3-5년 3) 5-10년 4) 10년 이상 5) 20년 이상

4. 귀하가 본 교회(포항성동교회)에 출석한 햇수는 몇 년입니까?
1) 3년 이내 2) 3-5년 3) 5-10년 4) 10년 이상 5) 20년 이상

5. 귀하는 포항성동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6. 귀하가 생각하는 포항성동교회의 장점(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1) 예배 2) 교회학교 교육 3) 성경 공부 4) 선교 5) 소그룹 공동체 6) 기타

7. 귀하의 입장에서 볼 때, 포항성동교회의 단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관식)

8. 포항성동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1) 예배 2) 교회학교 3) 국내 선교 4) 해외 선교 5) 소그룹 공동체 6) 건물-예배당 7) 기타

9. 귀하가 볼 때 포항성동교회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지상명령(마태복음 28 장), 즉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성장시키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하고 있다 2) 잘하고 있다 3) 보통 4) 못하고 있다 5) 매우 못하고 있다

10.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포항성동교회가 더 추가해야 할 사역이나,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제 2 부]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유와 유익에 대한 질문(11-20)

11. 귀하는 현재 포항성동교회의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2. 귀하가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만 해당함)

1) 시간이 없어서 2) 유익이 없어서 3) 소그룹 리더 때문에 4) 공동체 구성원 때문에 5) 기타

13. 만일 위에서 제시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그룹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4. 귀하가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적극적(매주 참여) 2) 보통(한 달에 1 번정도) 3) 가끔(2-3 달에 한 번 참여) 4) 불참

15. 귀하가 성동교회에서 참가했거나, 지금도 참가하고 있는 소그룹은 무엇입니까?

1) 목장(구역)모임 2) 연령별 모임(신도회) 3) 사역 활동 부서 4) 양육 훈련(성경 공부, 새 가족반)

16. 귀하가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1) 따뜻한 교제 2) 중보기도 3) 성경 공부 4) 기타

17. 귀하가 과거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소그룹 활동의 유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1) 따뜻한 교제 2) 중보기도 3) 성경 공부 4) 기타

18. 포항성동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1) 따뜻한 교제 2) 중보기도 3) 성경 공부 4) 지도자 훈련 5) 기타

19.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1) 성경 지식 2) 기도 생활 3) 봉사 정신 4) 상담적 노력 5) 기타

20. 앞으로 포항성동교회에 조직되기 원하는 소그룹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자녀들의 연령대가 비슷한 학부모 모임, 산악회나 사이클 동호회, 부부가 함께하는 소그룹)

[제 3 부] 평신도 훈련에 대한 질문(21-27)

21. 귀하는 평신도 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22. 귀하가 참여했던 평신도 훈련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1) 영적 성장 2) 위로와 격려 3) 교회에 대한 소속감 증대 4) 기타

23. 귀하는 포항성동교회와 소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평신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잘 모르겠다 4) 아니다 5) 기타

24. 귀하는 교회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1) 기도 훈련 2) 성경 공부 3) 리더십과 상담 훈련 4) 소그룹 운영기술 5) 기타

25. 위의 평신도 훈련이 개설된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현재는 참여할 수 없지만, 기회가 되면 참여할 것이다 4) 없다

26. 귀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웃을 돕고 격려하는 소그룹 리더로서의 사역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현재는 참여할 수 없지만, 기회가 되면 참여할 것이다 4) 없다

27. 만일 26 번 문항에서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나이 2) 건강 3) 시간(직장) 4) 영적인 부족함 5) 교회에 대한 거리감 6) 기타

[제 4 부]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질문(28-30 번)

28. 귀하는 포항성동교회에 다양한 소그룹들이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필요 없다 5) 기타

29. 귀하는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1)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관심 2) 리더의 열정과 노력 3) 다양한 소그룹 방 4) 성도들의 참여
5) 기타

30.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당회와 담임목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BIBLIOGRAPHY

참고자료

1. 단행본 및 번역서

- 교회성장연구소, 「교회 선택의 조건- 한국 교회 교인 수평 이동에 대한 연구」.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 권성수, 「생명 사역 사역훈련」. 대구: 생명사역훈련원, 2018.
- 김덕수, 「셀 교회 전환과 셀 리더 세우기」. 경기: 도서출판 NCD, 2002.
- 김동현, 「제자들교회 전도 소그룹 이야기」. 서울: NCD, 2005.
- 김명혁, 「한국 교회의 쟁점 진단」. 서울: 규장. 1998.
- 김문기, 「프랑케와 할레의 경건주의」. 경기: 평택대학교 논문집, 1999.
- 김삼성, 「셀 교회에서 G-12 교회로」. 서울: 서로사랑, 2003.
- 김성곤, 「D12 비전」. 부산: 도서출판 두 날개, 2007.
-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NCD, 2005.
- 김성곤, 「양육의 기쁨」. 부산: 도서출판 두 날개, 2003.
- 김성곤, 「재생산의 삶」. 부산: 도서출판 두 날개, 2007.
- 김성곤, 「제자의 삶」. 부산: 도서출판 두 날개, 2003.
- 김수진, 「한국 교회를 섬겨 온 장로열전 1」. 서울: 쿠퍼출판사, 2014.
-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 자료집」. 경기: 안산동산교회 미래목회연구소, 2009.
- 김인중, 「셀이 살아나는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08.
- 김지철, 「성서주석. 고린도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김진두, 「존 웨슬리의 생애」, 서울: KMC, 2014.
- 김한옥, 「셀 목회의 유형과 핵심」. 경기: 실천신학연구소, 2006.
-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 대한민국 통계청, 「2005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서울: 통계청, 2006.
- 두산동아백과사전 편집부, 「두산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2002.
- 류영모 외, 「셀 리더십으로 살아나는 교회」. 서울: 도서출판 NCD, 2007.
-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 문효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타난 소그룹 공동체 연구」. 서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06.
- 민경배, 「한국 기독교 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 2006.
- 박용규, 「안산동산교회 이야기」. 경기: 큰숲, 2009.
- 박용규, 「초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4.
- 박용규, 「한국 기독교 교회사 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 박운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 박익수, 「성서주석.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송창근, 「셀 교회로 교회 영성을 회복하라」. 서울: 두란노, 2009.
- 신현광,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는가」. 서울: 신학연구, 1997.
- 심일섭, 「평신도 신학과 한국교회의 미래」. 서울: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1997.
- 안재은, 「소그룹 목회 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0.
- 옥성호,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서울: 부흥과 개혁, 2008.
- 옥한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8.
- 옥한흠, 「제자 훈련의 터 다지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9.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3.
-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이광수,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
- 이상만, 「교회를 살리는 10 가지 전도습관」.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3.
-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임석중,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 정수영,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종교개혁사」. 서울: 쿰란출판사, 2012.
- 정인찬, 「성서대백과사전」. 1981.
- 주재용, 「사도교부 이그나티우스의 생애와 사상. 신학연구」. 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69.
- 차정식, 「성서주석. 로마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경기: 소그룹하우스, 2010.
-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 최상태, 「21 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 서울: 두란노, 2015.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서원, 1999.
- 한정애, 「교회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 황보갑, 「에클레시아」. 서울: 도서출판 다리, 1996.
- Anderson, T. Neil.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유화자 역. 서울: 조이선교회, 1993.
- Beckham, A. William. 「자연적 부흥」. 이병헌. 박경은 역. 서울: NCD, 2001.
- _____. 「제 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0.
- Berkhof, Louis. 「기독교 교리사」.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7.
- _____. 「조직신학-하」.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 Bilezekian, Gilbert 「공동체」.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7.
- Branick, P. Vincent.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5.
-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하권」. 한철하 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Cobble, F. James. 「교회 성장과 조직의 역동성」. 명성훈 역. 서울: 나단, 1994.
- Coleman, E. Robert. 「주님의 전도 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Collins, R. Gary. 「기독교와 상담 윤리」. 오윤선 역. 서울: 두란노, 2003.
- Comiskey, Joel.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NCD 편집부 역. 서울: NCD, 2010.
- _____. 「셀 그룹 폭발을 위한 코칭」. NCD 편집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7.
- Donahue, Bill. 「월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 1997.
- Finnell, David. 「셀 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경기도: NCD, 2009.
- George, F. Carl.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 _____.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박종훈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 Gonzalez, L. Justo. 「기독교사상사 3 권」.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부, 1989.
- _____. 「현대 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5.
- Hestenes, Roberta. 「소그룹 성경 공부」, 이종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1
- Hull, Bill.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박경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 Icenogle, Weldon. Gareth.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김선일 역. 서울: SFC, 2007.
- _____.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 Khong, Lawrence. 「신사도적 셀 교회」.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0.
- Kuhn, S. Thomas. 「과학 혁명의 구조」. 김명자 역. 서울: 동아출판사, 1994.
- Kuhne, W. Gary. 「새 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1.
- Luther, Martin. 「종교개혁의 3대 논문」. 지원용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3.
- Lynch, Joseph. 「중세교회사」. 심창섭.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5.
- Mallison, John. 「생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신재구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5.
- Maxwell, C. John.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강준민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7.
- Miller, Donald. 「교회 본질과 사명」. 박상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1.
- Moltmann, Jürgen.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 박봉량 외 4인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0.
- Moore, B. Waylon. 「새 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5.
- Neighbour, W. Ralph.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_____. 「셀리더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 Reeder, L. Harry.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송영일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Reid, H. Clrude.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콤파출판사, 1996.
- Sanders, J. Oswald. 「영적 지도력」. 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18.
- Schmidt, Martin. 「존 웨슬리(상)」, 김덕순. 김영선 역. 서울: 은성, 1997.
- Schwarz, A. Christian. 「자연적 교회성장 패러다임」. 임원주 역. 서울: NCD, 2001.
- _____. 「자연적 교회 성장」.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8.
- Snyder, A. Howard.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 Wagner, Peter Charles. 「교회 성장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9.
- Warren, Rick. 「목적이 이끄는 교회」.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2009.
- _____. 「새들백 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2002.
- Weber, Otto 「칼빈의 교회론」 김영재 역. 서울: 이레서원, 2001.

2. 영어 원서

Barna, Gorge. *The Power of Vision*. Ventura. Ca: Regal books, 1992.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 Cho, Paul. Yonggi. *Successful Home Cell Group*. NJ: Bridge Publishing Inc, 1981.
- Eims, Leroy. *Lost Art of Disciple Mak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8.
- Finnell, David. *Life in His Body*. Touch Publications Inc, 1995.
- Henderson, Michael. *A Model for Making Disciples: John Wesley's Class Meeting*. Nappane: Evangel, 1997
- Mcbride, F. Neal. *How to Lead Small Groups*. NavPress. Colorado Springs. F.T.S., 1992.
- McGavran, Anderson Donald. *Ten Steps of Church Growth*.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7.
- Snyder, A. Howard. *Signs of the Spirit: How God Reshapes the Church*. Eugene: Wipf and Stocks Publishers, 1997.
- Wagner, Peter Charles.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San Francisco: Harper, 1981.

3. 정기간행물

- 기윤실, 「2008 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2008
- 기윤실, 「2010 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2010
- 권문상, “21 세기 목회를 위한 조직신학적 제안”. 「개혁신학 논문집」. 13 권, 2002.
- 김경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목회와 신학」. 1989 년 10 월.
- 김인호, “한국교회 셀 목회의 역사와 과제”. 「목회와 신학」. 2013 년 9 월.
- 박영철, “한 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목회와 신학」. 2003 년 2 월.
- 박종국, “제 123 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울산 다운공동체교회」. 2014 년 10 월.
- 방선기, “가정교회 비전과 한국교회의 부흥”. 「목회와 신학」. 2004 년 2 월.
- 안산동산교회 셀 컨퍼런스 큰숲 비전 축제. 「기독신문」. 2005 년 11 월 24 일.
- 옥한흠, “예비 리더를 키우라”, 「국제제자훈련원 소그룹 305 호」. 2010.
- 이상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사람에 집중하라”. 「기독신문」. 2019 년 10 월 29 일.
- 이양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연구”. 「연세대학교 신학논단 vol18」. 1989.
- 임석중, “소그룹을 살리자”. 「월간목회」. 2017 년 3 월.
- 정근두, “오늘의 구역제도. 왜 문제인가”. 「목회와 신학」. 1996 년 5 월
- 정무성, “한국 복지 정책 진단과 교회의 과제”. 「목회와 신학」. 2013 년 11 월.
- 정형권, “구역장 교육 - ② 구역 모임 달라져야 한다”. 「기독신문」. 2015 년 2 월 23 일.
- 최상태, “가정교회 소그룹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언”. 「목회와 신학」. 2017 년 8 월.

최상태, “가정교회 모임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목회와 신학」. 2017년 4월.

최상태, “가정교회 소그룹의 특성”. 「목회와 신학」. 2017년 3월.

최상태, “왜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을 지향하는가”. 「목회와 신학」. 2017년 7월.

황성철, “전통적 구역 제도의 기여와 한계”. 「목회와 신학」. 1996년 5월.

4. 학위논문

김영태, “소그룹 목회 시스템을 통한 교회 성장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9.

민병욱,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교회 성장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7.

박윤석,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전통 교회 갱신 전략.”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신경식,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역동적인 셀 교회 전략 연구: 지구촌교회 장년목장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8.

유양옥, “전통적 교회에서 셀을 중심으로 한 교회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1.

이영배, “전통적인 교회로부터 소그룹 중심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토양화 과정의 중요성.” 박사학위논문.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6.

5. 온라인 자료

가정교회 사역원, [온라인 자료] <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 2020년 2월 25일 접속.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s://kmcmission.or.kr/board/bbs/index.php?group_code=bbs&category_id=97&p_cate_id=59&m_id=116&pageID=2, 2019.10.12. 접속

뉴스앤조이, “주요 7개 교단 교인 수. 정점 찍고 128만 명 빠졌다” [온라인자료]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 2019년 10월 12일 접속.

두 날개선교회 홈페이지 [온라인자료] http://two.or.kr/?page_id=10939. 2020년 2월 24일 접속.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1_05&wr_id=1, 2019년 10월 12일 접속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gapck.org/sub_01/sub02_01.asp?menu=menu2, 2019.10.12. 접속

대한민국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505&vw_cd=MT_ZTITLE&list_id=A11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9.10.12. 접속

안산동산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d21.org/02cell_training/cell_intro.aspx. 2020년 2월 25일 접속.

제자들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jejas.or.kr/?page_id=468. 2020년 2월 25일 접속.

포항성동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sungdong.org/>. 2020년 3월 5일 접속.

풍성한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new.psh.or.kr/?page_id=516. 2020년 2월 26일 접속

IRB APPROVAL

IRB 승인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March 26, 2020

MinYong Park
YooJung Lee

Re: IRB Exemption - IRB-FY19-20-206 A Study on Church Growth through Vitalization of Small Groups in Traditional Churches

Dear MinYong Park, YooJung Lee:

The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has reviewed you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gulations and finds your study to be exempt from further IRB review. This means you may begin your research with the data safeguarding methods mentioned in your approved application, and no further IRB oversight is required.

Your study falls under the following exemption category, which identifies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s exempt from the policy set forth in 45 CFR 46: 101(b):

Category 2.(i). Research that only includes interactions involving educational tests (cognitive, diagnostic, aptitude, achievement), survey procedures, interview procedures, or observation of public behavior (including visual or auditory recording).

The information obtained is recorded by the investigator in such a manner that the identity of the human subjects cannot readily be ascertained, directly or through identifiers linked to the subjects.

Your stamped consent form can be found under the Attachments tab within the Submission Details section of your study on Cayuse IRB. This form should be copied and used to gain the consent of your research participants. If you plan to provide your consent information electronically, the contents of the attached consent document should be made available without alteration.

Please note that this exemption only applies to your current research application, and any modifications to your protocol must be reported to the Liberty University IRB for verification of continued exemption status. You may report these changes by completing a modification submission through your Cayuse IRB account.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exemption or need assistance in determining whether possible modifications to your protocol would change your exemption status, please email us at irb@liberty.edu.

Sincerely,

G. Michele Baker, MA, CIP*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Research Ethics Office**